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on Sakhalin Returnees' Rites
of Passage



2016년 8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학전공

박 봉 수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of Sakhalin Returnees' Rites
of Passage

2016년 8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학전공

박 봉 수

이 논문을 박봉수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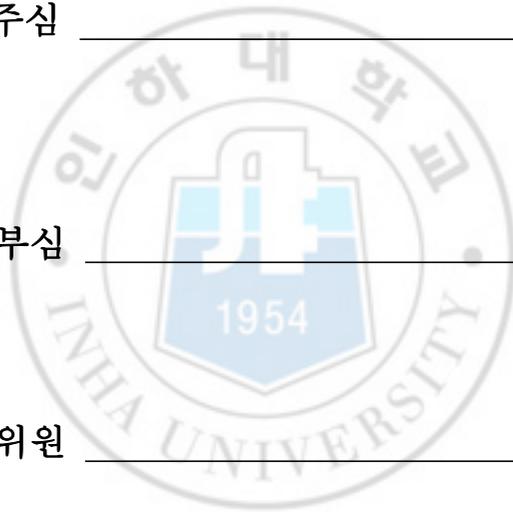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강제이주 기억과 소련의 해체로 인한 체제 이주의 경험을 가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통해 영주귀국 전·후에 그들의 통과의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통과의례 행위의 본질적 의미는 어떠한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통과의례는 개인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이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정세라는 큰 틀에 묻혀 버려 개인, 마을, 지역과 같은 작은 세계를 탐험하게 함으로써 구조 속 개인들의 생생한 삶을 복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통과의례에 대한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재범주화하였다.

고향은 사할린 한인의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상징이자 메타포(metaphor)이다. 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상실한 채 이방인으로 경제인의 삶을 살며 새로운 정착을 위해 고향과 유사한 마을을 만들고 고향의 통과의례를 재현하며 정서적 공간인 '고향'을 찾게 된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고향'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할린 한인 공동체 문화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성된 자생적 문화 창조로 또 다른 고향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된다. 고향과 역사적 근거와 정체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작동됨으로써 자기 존재에의 의미부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향은 개인의 고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 모두의 고향, 즉 민족 공동체로서의 고향으로 의미가 상징적으로 확장된다. 결국 안식처로서의 고향은 상호작용의 공간이자 나를 떠받드는 지지의 공간이 된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통과 의례는 고향에 기원을 두었지만 단지 고향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며 고향을 기억하는 하나의 행위이다. 통과 의례 내러티브는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향에 대한 기억을 현재화하는 작업이며 ‘고향’에 투영되어 그것의 내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가 된다. 고향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들임으로써 현재 연장선상에서 펼쳐진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 의례 내러티브는 비슷한 시대적·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이 각기 풀어내는 이야기는 각각 다르다. 통과 의례는 디아스포라들이 타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디아스포라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삶의 장으로 옮겨 놓는다. 통과 의례는 특정한 공간 속에 살아오면서 형성해 낸 가치관과 윤리관, 자연관과 세계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민족임을 상징하는 ‘통과의례’는 향토애나 고향 의식을 강화시키고 민족 정체성을 친숙하게 이끄는 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결국 통과 의례는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한 집단을 응집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통과의례’가 지닌 상징성은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해 통과 의례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통과 의례 행위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고향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 이렇게 고향의 관습이나 의례 등을 불러내는 작업은 불안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존재의 위기를 느끼며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환기하고자 한 간절한 소망이다. 통과 의례는 ‘나’ 개인의 의례로 시작하여 동네 전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민족 정체성과 연결된다. 고향을 잃은 고단함이 통과 의례를 통해 축제로 승화되어 가난하고 꺾박받은 서러운 과거도 향수로 자리하게 한다. 통과 의례는 공간이라는 사할린과 시간이라는 과거

의 단절을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로 긴밀하게 이어진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러나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온 이들에 관한 연구가 주제가 역사진상규명이나 적응에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부양의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지원 대상으로 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의 흔적으로만 보았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시각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국제이주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켰고,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여 다양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는 또 다른 가족과의 이산이 되었다. 따라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건강하게 통합을 위해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조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한국 사회에 소속되었다는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의식,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체계를 구성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치 있는 메커니즘으로 새로이 조명 되어야 한다.

일제 강점기와 소련체제에서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 살아온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의 이야기는 주요 사건 위주로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식적 역사 기록에서 충분히 배제되어 있었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할린 얼어붙은 땅에 버려진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남기는 것이다. 개인의 삶과 기억을 사회적 기억, 그리고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낮은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후손들에게 회자되게 하는 것이다.

주제어 : 고향 메타포, 민족 정체성, 디아스포라, 포토텔링, 스토리텔링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차	vii
그림 목차	vii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8
3. 선행연구	10
4. 연구 동기	17
II. 이론적 논의	27
1.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27
2. 통과례, 고향, 민족 정체성	34
2.1 통과례와 고향	34
2.2 통과례와 민족 정체성	40
III. 연구 방법	46
1. 내러티브 탐구	46
1.1 내러티브 탐구 개념	46
1.2 내러티브 절차	50
2. 연구 공간	53
2.1 연구 현장으로서 남동사할린센터	53
2.2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56

3. 연구 참여자 선정	61
4. 자료 수집 및 분석	65
4.1 자료 수집	65
4.2 자료 분석	76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	78
5.1 연구의 신뢰성	78
5.2 연구 윤리	81

IV.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별 내러티브 83

1. 연구 참여자 생애사	83
1.1 연구 참여자 A	83
1.2 연구 참여자 B	87
1.3 연구 참여자 C	90
1.4 연구 참여자 D	94
1.5 연구 참여자 E	97
2. 통과의례별 내러티브	100
1.1 출생	104
1.2 결혼	114
1.3 환갑	124
1.4 죽음	134
3. 소결	142

V. 내러티브에 나타난 ‘고향’과 ‘민족 정체성’ 144

1. 고향 메타포	146
1.1 무형식 정신적 안식처	147
1.2 공동체적 삶이 살아 숨 쉬는 곳	155
1.3 뿌리 내릴 수 없는 땅	161
2. 민족 정체성	169

2.1 심리적 동일시	171
2.2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178
2.3 한민족 문화계승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	183
2.4 민족 문화 공동체	192
3 소결	201
VI. 결론	203
1 요약	203
2 논의 및 제언	207
참고문헌	214
ABSTRACT	231
부록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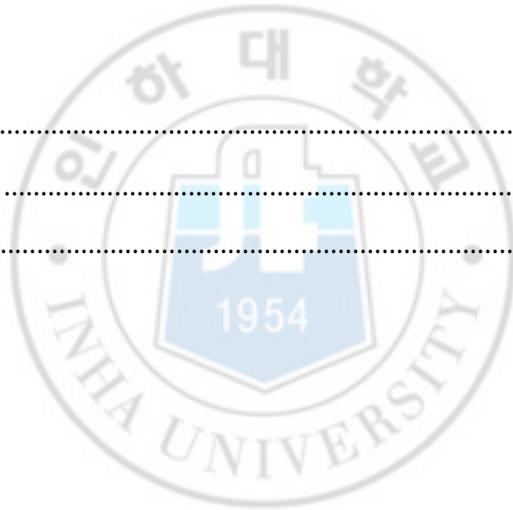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참여자 특성	62
<표 III-2> 심층면담 과정	70
<표 IV-1> 통과예별 내러티브 의미	102
<표 IV-1> 고향 메타포	146
<표 IV-2> 민족 정체성	170

그림 목 차

[그림 I-1]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향의 봄	19
[그림 I-2] 사할린 한인 망향가 특별전 포스터	21
[그림 I-3] 새고려신문 기사	24
[그림 III-1] 내러티브 과정	50
[그림 III-2] 내러티브 탐구 3차원적 탐구지점	58
[그림 III-3] 시네고르스크 탄광촌(2015년)	59
[그림 III-4]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	59
[그림 III-5] 사할린 한국문화센터	60
[그림 III-6] 남동사할린센터	60
[그림 III-7] 조선로동자	60
[그림 III-8] 사할린 청소년 역사캠프	60
[그림 III-9] 한인의 사할린 이주 경로	64
[그림 IV-1] 1947년 탄광촌의 아이들	84
[그림 IV-2] 향수	84
[그림 IV-3] 조선인의 희망	85

[그림 IV-4] 조선인 수학교사	85
[그림 IV-5] 목련꽃 닮은 그대	85
[그림 IV-6] 어느 봄 날	85
[그림 IV-7] 소풍	88
[그림 IV-8] 내 아이와 손녀들의 고향	88
[그림 IV-9] 운동회 우승 기념	88
[그림 IV-10] 농촌 봉사활동	88
[그림 IV-11] 연구 참여자 C의 탄광 숙소	90
[그림 IV-12] 고단함을 내려놓다	92
[그림 IV-13] 삶의 의미	92
[그림 IV-14] 고향 땅을 밟다	92
[그림 IV-15] 내년에도 이날이 오길	92
[그림 IV-16]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사람을 찾습니다	94
[그림 IV-17] 배터리 기술자로서 한인	95
[그림 IV-18] 꿈	95
[그림 IV-19] 북에서 온 편지	95
[그림 IV-20]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95
[그림 IV-21] 꿈을 심는 아이들	98
[그림 IV-22] 조선 소연예인	98
[그림 IV-23] 체육 교사	99
[그림 IV-24] 고향에서 만난 동창생	99
[그림 IV-25] 아들 백일	104
[그림 IV-26] 차남 돌	105
[그림 IV-27] 딸 돌	105
[그림 IV-28] 딸 백일	107
[그림 IV-29] 아들 돌	108
[그림 IV-30] 손자 돌	108
[그림 IV-31] 돌잡이	109

[그림 IV-32] 손녀 돌	109
[그림 IV-33] 입양한 손녀	112
[그림 IV-34] 증손녀 돌	112
[그림 IV-35] 연구 참여자 A-사주	115
[그림 IV-36] 연구 참여자 A-결혼	116
[그림 IV-37] 연구 참여자 A-이불	117
[그림 IV-38] 연구 참여자 C-결혼	119
[그림 IV-39] 연구 참여자 C-로국 며느리	119
[그림 IV-40] 연구 참여자 C-손녀 결혼	120
[그림 IV-41] 연구 참여자 E-칭혼서	121
[그림 IV-42] 연구 참여자 E-결혼식	122
[그림 IV-43] 연구 참여자 E-민속촌	123
[그림 IV-44] 연구 참여자 A-아버지 환갑	124
[그림 IV-45] 연구 참여자 A-팔순	125
[그림 IV-46] 연구 참여자 A-부인 팔순	126
[그림 IV-47] 연구 참여자 B-아버지 환갑	127
[그림 IV-48] 연구 참여자 B-환갑	127
[그림 IV-49] 연구 참여자 E-아버지 환갑	128
[그림 IV-50] 연구 참여자 E-팔순	130
[그림 IV-51] 연구 참여자 C-환갑	131
[그림 IV-52] 연구 참여자 C-부인 팔순	132
[그림 IV-53] 연구 참여자 C-구순	132
[그림 IV-54] 연구 참여자 C-새고려신문	133
[그림 IV-55] 연구 참여자 B-할머니	136
[그림 IV-56] 연구 참여자 E-발인	137
[그림 IV-57] 연구 참여자 D-아버지 발인	139
[그림 IV-58] 연구 참여자 D-삼우제	139
[그림 IV-59] 연구 참여자 D-제사	140

[그림 IV-60] 연구 참여자 D-아들제사	141
[그림 V-1] 손 없는 날	147
[그림 V-2] 아버지의 빈자리	148
[그림 V-3] 청실홍실	148
[그림 V-4] 어머니, 그리움	149
[그림 V-5] 가족애(愛)	150
[그림 V-6] 시작, 그 설레임	151
[그림 V-7] 나의 뿌리	152
[그림 V-8] 아버지의 가르침	152
[그림 V-9] 고향으로 온 아버지	153
[그림 V-10] 가족이 그리운 사람들	159
[그림 V-11] 귀향의 꿈	159
[그림 V-12] 바다로 간 어머니	161
[그림 V-13] 빈껍데기	164
[그림 V-14] 풍경, 공동묘지	174
[그림 V-15] 할아버지의 바램	175
[그림 V-16] 고향으로 부르는 노래	176
[그림 V-17] 건강하세요	176
[그림 V-18]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176
[그림 V-19] 무국적 공민증	178
[그림 V-20] 박씨단자	180
[그림 V-21] 날 닮은 손녀	182
[그림 V-22] 어머니의 된장찌개	186
[그림 V-23] 할아버지 만나는 날	187
[그림 V-24] 고향을 만들다	188
[그림 V-25] 풍악을 울리다	189
[그림 V-26] 고향 닮은 사람들	190
[그림 V-27] 즐거운 휴식	192

[그림 V-28] 어깨 펴는 날 193
[그림 V-29] 어머니의 아우 194
[그림 V-30] 차남의 아내 197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주류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국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자 기획하였다. 특히 통과외레가 지나는 집단 정체성 유지 기능에 주목하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탐구하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한 한인으로 1989년 소련의 영주귀국 허용과 1990년 한국정부의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 수립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 영주귀국한 사람들을 말한다(Kuzin Anatolii, 2014). 사할린은 1년 중 8개월은 겨울이고 여름 한 달은 폭염으로 생업에 불편한 기후 조건 때문에 19세기 중반까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이었다. 이러한 척박한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헐벗고 못 살 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의사로 이주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할린 한인의 이주는 일본에 의한 노동력 보충을 위한 징용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1년 시작된 대동아 전쟁을 위해 일본인 청년들이 징병되자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조선인을 노동력 보충을 위해 모집과 관알선, 징용의 형식으로 강제 연행했기 때문이다(김성중, 2006; 이재혁, 2011; Kuzin Anatolii, 2014).

사할린 한인은 해방이 되어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제 정세에 의해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무국적자로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의 교육에 힘썼다. 그들은 한인 밀집 지역에 조선학교를 설

립하여 민족어와 민족 문자를 지키려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그들의 고향과 유사한 마을을 만들어 동향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으며, 고향에서 행하던 통과의례를 행한다.

또한 사할린 한인은 음력 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일과 조상의 기일에는 음력으로 지냈다. 음식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였으며, 고향의 풍습이 많이 남아있어 중요한 의례가 있을 때에는 떡과 국수, 국과 김치를 주로 하여 밥을 먹고, 자녀의 돌에는 미역국을 먹고 돌잡이를 하며 상·장례에서도 염습을 하고 삼일장과 3년 상을 지키는 등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정진아, 2011; 김춘자, 2015; 배 워토리아, 2015).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는 개인의 기억으로 시작하여 민족 간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가 마을로 확장된다. 개인은 '고향' 또는 '마을'이라는 공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세계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이때 통과의례는 한인들이 모여 서로 민족적 공감과 사회적 연대감, 소통의 장으로 민족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된다. 통과 의례 행위는 전통적 믿음 속에 살아왔던 한인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위안을 주었고 고향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임봉길, 1994). 따라서 사할린 한인에게 통과의례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현재화하는 작업이며 '고향'에 투영되어 그것의 내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향의 친밀한 대상들, 고향의 의례 등을 불러내는 작업은 불안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존재의 위기를 느끼며 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환기하고자 한 간절한 소망으로 보인다.

1945년부터 1959년은 사할린 한인의 문화 부흥기라 볼 수 있다. 7년제, 8년제, 10년제 조선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도서관, 극장, 음악 예술단이 설립이 되었으며, 사범전문학교 내에 조선어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레닌의 길로'라는 주당위원회 기관지와 조선어우리말라디오방송국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향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매년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도 열 수 있었다.

1959년부터 1964년은 사할린 한인에게 민족문화의 암흑기에 해당한다. 소련의 동화정책과 조선 소학교의 폐쇄에 이어 조선 극장, 음악 예술단, 도서관마저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사할린 2세, 3세, 4세들이 언어와 풍속, 문화와 전통을 잊어버리고 소련인으로 동화되기에 이른다(이정희, 1997). 사할린 한인은 삶을 위한 도구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점차 러시아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사할린 한인 3, 4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러시아어로 생활하고 러시아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면서 고학력,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사할린 한인 3, 4세의 경우 러시아의 사회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과 위기의 경험은 공동체와 사회, 문화 공동체의 불일치에서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사회에 언어적, 문화적, 구조적 동화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한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적 동일시와 민족적 애착¹⁾이 있다. 이렇게 사할린 한인이 언어, 문화적으로 현지 사회에 동화되었음에도 강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소수민족으로 구별되고 다르게 대우받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김영순 외, 2015; 박승의, 2015; 윤인진, 2002; 이은숙 외, 2008; 최영진, 2012).

‘88서울올림픽’과 ‘1990년 한·러수교’는 사할린 동포 1세들에게 잊혔던 ‘귀향’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하는 동인이 되어 오늘날 영주귀국에 이르게 되었다. 2016년 현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24개 시설²⁾에 약 4,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주 초기에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국땅에서 염원해 온 그리운 조국과 고향에 돌아왔다

-
- 1) 한인 1세대가 강렬한 모국지향성을 갖은 것은 모국에서의 경험이 ‘원체험’으로 존재하고, 거주국에서의 경험이 ‘후체험’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후체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원체험’으로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2세대에게 거주국에서의 경험은 ‘원체험’으로 모국에서의 경험은 부모세대로부터 전승받은 간접경험, 즉 집단기억으로만 존재한다(탄옥사나, 2010).
 - 2) 대한적십자사 주도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사업이 정례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안산 고향마을, 안산시립전문요양원, 화성, 김포, 오산, 남양주, 양주, 인천 사할린동포회관, 춘천 사랑의 집, 고령 대창요양원, 서울과 부천의 임대아파트, 부산 정관 신도시, 파주, 서천 등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형태의 이산 가족을 의미한다(나형욱, 2009).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³⁾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을 병원과 사할린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렵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은 한국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생계비 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이산에 의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사할린에서는 고국에 있는 부모를 그리워해야 했고, 한국으로 영주귀국 한 후에는 다시 러시아에 남겨진 자녀와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함도 사할린에 있는 친지, 지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들은 이렇게 거듭되는 이산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산으로 사회적·신체적·심리적으로 일반 노인들과 다른 여건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 건강악화, 가족과의 생이별, 정서적 외로움과 소외감 등의 문제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심화하고 있다(박봉수, 임지혜, 2015; 이은숙, 김일립, 2008).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역사적, 정치적, 이해타산적인 접근들이 주된 관점으로 편향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도 매우 의미 있지만, 이제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을 새롭게

3) 대상자는 1945년 8월 15일 당시 사할린 거주 또는 출생자로 규정하였다. 후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2008년부터 1세의 배우자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도 동반귀국을 허용하였다. 1세의 배우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허용했으며,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허용이 되었다. 영주귀국 시 한 세대는 2인 1가구로 한정하였으며 1인은 거주 불가하였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발기준은 1945년 이후 출생자라 하여도 1세대 2인의 연령을 합산하여 고령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입주아파트의 동·호수 배정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를 저층에 배정하고, 합산연령 고령세대 순으로 우선 반영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하지만 거주지는 단지 생존 시에만 제공되고 상속할 권한은 없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러한 제한은 일부의 한인들로 하여금 가짜 결혼을 하게하고, 나이를 바꾸며, 이미 오래 전 고인이 된 사람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불운한 역사가 재생되었다(Kuzin Anatolii, 2014).

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그들에 관한 문헌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다(황선익, 2012). 예컨대 실제로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구심점이 무엇인지를 구술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얼어붙은 사할린 벌판에 버려진 디아스포라들이다.

디아스포라는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의 주변적인 장소로의 이동, 모국에 대한 '기억, 비전 혹은 신화' 같은 집합적 기억을 보존, 때가 되면 '돌아갈 곳'으로 조상의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 이들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자의든 타의에 의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고유한 민족의 정서와 고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William Safra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로 설명하지 못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이주 및 정착의 경험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귀국자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와 이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통해 영주귀국 전·후에 그들의 통과의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통과의례 행위의 본질적 의미는 어떠한지? 통과의례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고, 통과의례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재형성되는지, 통과의례가 연구 참여자들 과거 삶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에 어떻게 작동했으며, 현재 삶의 모습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의 맥락을 찾는 것이다.

반젠넵은(Arnold van Gennep)은 통과의례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에 관한 것까지도 포괄한다고 한다(전경수, 2000: 5-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통과의례를 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통과의례를 하기 위한 과정 모두를 기술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본인의 통과의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접 경험한 통과의례까지도 기술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엿볼 것이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내러티브가 ‘누군가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한 기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의미를 보기 위해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 경험의 맥락에 대한 강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일어난 사건에 관한 연구에 적합하며, 한 개인의 삶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내러티브에 나온 시간과 장소가 어떠한지, 어떤 가족들과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 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Connelly와 Clandinin, 2006).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삶과 경험이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속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변 환경을 비롯한 이웃, 마을, 사회, 국가와 관계 속에 존재하며 그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는 인생이며 삶 자체이기 때문에 지난 70여 년 동안 사할린에서 겪어온 한인들의 삶을 살아있는 역사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왜 그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고향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귀환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고향에 불러일으킨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역귀국하는지 등 삶의 여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이야기는 공식, 비공식 기록물로 주요 사건 위주로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다. 게다가 사건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들의 말은 언어화되지 않았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와 소련체제에서 주변인이자 경계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식적 역사 기록에서 충분히 배제되어 있었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실질적인 교육제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자 해독력의 한계로 답이 없는 슬픔, 부모들의 걸음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다. 당시 사할린 한인의 생활 역사는 대부분 삶의 주체인 사할린 한인 개개인의 기억과 인식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개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러티브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의미를 밝히기 위해 포토텔링(Photo t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클래딘인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의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시간성, 공간성이라는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탐구지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포토텔링(Photo telling)이란 포토(Photo)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의 텔링(telling)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사진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포토텔링은 사진이 가진 객관성과 서술성, 대중성에 이야기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보해 줌으로써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포토텔링은 연구 참여자와 소통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사할린 교포들이 구축해 온 삶의 궤적과 변화의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강제이주 기억과 소련의 해체로 인한 체제 이주의 경험을 가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통해 영주귀국 전·후에 그들의 통과의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통과의례 행위의 본질적 의미는 어떠한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애사에 나타난 통과의례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2.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연구 문제1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에 관한 포토텔링기법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별 의미 범주를 추출하였다.

연구 문제2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연구 문제1에서 추출한 범주를 다시 통합하여 고향 메타포와 민족 정체성의 의미로 범주화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 동기를 시작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문제, 그리고 선행연구를 서술하였다.

II 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고향과 통과의례, 그리고 통과의례와 민족 정체성은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III 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 공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에 관한 것과 자료수

집 및 분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연구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에 대해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연구 참여자 생애사와 통과의례별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관해 기술하였다.

V장에서는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는 연구 문제2에 관련한 것이다.

VI장은 논의 및 제언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주귀국 사할린 노인들에 대하여 풀어야 하는 한국에서의 재정착문제, 정체성 정립, 재사회화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제언하였다.



3. 선행연구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첫째, 제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개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1990년 한·러수교 전후에 한인들의 과거사가 진상규명되었고, 접근 불가능하던 일부 민족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결과 러시아와 경제협력 교류가 확대되면서 냉전이 완화되었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Kuzin Anatolii, 2014; Дин Ю.И, 2015).

연해주 및 사할린 한인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이주와 차별, 적응과 문화변용, 그리고 동화와 공동체, 민족문화와 민족 정체성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영역이다. 실제로 위의 각 주제에 대해 역사학과 인류학을 비롯하여 민속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첫째, 연해주 한인에 관한 연구는 현황 및 실태연구로(박경용, 2013), 역사연구로 이주와 항일독립운동(이재혁, 2011; 전형권 외, 2012), 정치경제연구(김성중, 2006, 2009; 최경옥, 2012; 한혜인, 2012), 정체성연구(박승의, 2013; 이은숙, 김일림, 2008; 임엘비라, 2010; 정근식 외, 2000; 최길성, 2000; 황선익, 2012)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문헌연구로 사할린주 한인 사회의 조직, 국적 문제, 혼인관계, 의사소통문제 등 주로 거시적·제도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시작으로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사할린

4) 정부는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면서 '사할린 동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포'라는 용어에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사할린 한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주 한인들이 국제관계나 거주국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큰 틀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정서를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할린 한인의 문화연구로 (김영희 외, 1996; 김주자, 2006; 이광규, 전경수, 1993; 전경수 외, 2001; 조재순, 2009; 최길성, 2001; 허승철, 1996) 등이 있다. 이처럼 문화연구는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한인들의 의식주, 생활의례, 생활 문화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한인들의 일상생활문화에 주목하여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가 주류문화인 러시아인들의 사회주의 생활문화와 접촉하면서 어떠한 변용을 일으켰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사할린의 일부 농촌에서는 아직도 한국 풍속의 잔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온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출산을 하면 미역국을 먹으며, 자녀의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택일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폐백을 하고, 60살이 되는 해에는 회갑 잔치를 하고,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3일 장을 치루며, 염습과 발인을 하고, 대부분 3년 탈상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생활의례 등은 양력을 사용하는 환경임에도 대부분 사할린 한인들은 음력을 사용하는 등 한국의 문화가 다수 유지 보존되고 있음을 밝혔다.

언어의 경우에는 경상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서 경상도 방언과 북한의 함경도 사투리가 존재하였다. 이는 당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함경도에서 이주하였거나 경상도에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할린 3, 4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며, 한국어도 거의 상실한 상황이다. 의식주 중 복식의 경우 평상시에 한복을 입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자녀들의 돌이나 환갑 등 특별한 날 입는 예복으로 남아있다. 음식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밥과 국, 김치를 주로 하여 먹고, 의례가 있을 때는 떡과 국수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의식주 중 음식은 아직도 사할린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풍속으로 이는 타민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소련의 동화정책과 러시아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한인들의

언어와 풍속이 다소 변용된 상황에서 한인들이 고유한 민속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어로 문학예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해왔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셋째, 문학예술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강제이주 전 연해주 한인들의 문학 활동(김성수, 1989; 민병기, 1998; 이명재, 2004; 장사선, 김현주, 2004)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강제이주 후 연해주나 사할린 지역의 한인 문학예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민족의 애환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낸 고려악단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고려악단은 아리랑 등을 편곡하여 공연을 함으로써 한인들에게 민족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역사연구는 주로 이주사와 항일독립운동사로 역사연구에서 강제이주에 주목하였다. 강제이주는 러시아 한인 정체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연구에서는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한 배경에서부터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 한인들의 동향 등 강제이주까지의 과정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김계르만, 2005; 반병률, 2008; 김피오르게비치, 방상현, 1993; 박환, 2003; 윤병석, 2005; 윤상원, 2010; 이정희, 1997; 정근식, 염미경, 2000; 장석홍, 2007; 진용선, 2009).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 연해주에는 1920년대에는 1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러시아 한인 사회가 성장했다고 한다. 이는 1860년대부터 조선 후기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해 한반도 북부지방에 살던 사람들과 일본 강점기 때 가난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계절농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해주 한인 중 일부는 일찍이 러시아에 귀화해 넓은 토지에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귀화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은 고용인 신세로 힘든 생활을 꾸려나갔다. 특히 한인들은 「선봉」, 「레닌기치」 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조선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행정자치구는 건설되지 않았지만, 한국어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등 독자성을 가지고 정치 문화적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과 연해주 지역이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의 활동무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정진아, 2011).

다섯째, 사할린 한인 문제에서는 강제노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일제의 잔악한 수탈과 식민통치의 내용이 집중 조명되었다(강명구, 2006; 김성중, 2006; 김인성, 2010; 노영돈, 2003; 박봉수, 김영순, 2016; 신상문, 2005; 심헌용, 1999; 심헌용, 김재기, 2004; 유진각, 2005; 이광규, 2000; 이윤기, 김익겸, 2008; 이정희, 1997; 이종훈, 1998).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연구 분야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항일독립운동사의 맥락으로 연해주와 사할린의 한인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문헌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 연구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정치·경제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사할린 한인의 귀환문제,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연해주 재이주와 자치주 건설문제, 연해주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진출 문제였다. 사할린 한인들은 소련의 귀화 강요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위해 오랜 시간 무국적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보고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영주귀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제한된 허용으로 또다시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영주귀국을 하지 못하는 1세대와 그 후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할린 교포 특별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경제 연구는 무엇보다 연해주·사할린 지역 한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인들의 경제활동과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가진 사할린의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관계가 불가피하며 한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해주를 비롯한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었지만, 한인 연구를 다시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

로 연구경향을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크게 유행하던 소수민족의 민족성과 문화갈등 문제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연구이다(이광규, 전경수, 1983).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관심은 한인들이 거주국인 러시아 사회의 주류민족과 여타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정체성과 생활문화에 있었다. 주로 문화인류학적 필드조사 방법을 사용한 이 연구는 특히 한민족 문화원형의 보존과 변용,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한인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둘째, 한·러수교 이후 연해주 및 사할린에 대한 개발수요에 주목하고 한국과 연해주, 사할린을 연결해줄 가교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혈연적 유대감을 강조한다. 사할린 한인들은 거주국에 살지만, 민족적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 강해서 언제나 모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연해주와 사할린을 자원기지, 에너지 기지, 식량 기지로서 주목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침범으로서 한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거주국 중심의 연구이다. 또한, 모국 중심의 연구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간과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디아스포라의 구성적 정체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로(정근식·염미경, 2000; 김나탈리아, 2004; 반병률, 2008; 텐옥사나, 2010; Valery Han, 2001) 등이 있다. 이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추상적이거나 초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부정하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적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섯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생활 실태 및 적응, 건강, 정체성, 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 실태 및 적응에 관한 연구로(김경숙 외, 2012; 김인성, 2011; 김주자, 2006; 나형욱, 2009; 배상우, 2006; 배수한, 2010; 박여리, 2014; 박재인, 2014; 신봉규, 2013; 안미정, 2014; 오승주, 2012; 이명선, 2009; 임채완, 이소영, 2015; 정진아, 2014; 정천수, 2007; 조재순, 2009; 호경임, 2002; 황정태, 2002; 황현욱, 2005), 정체성에 관한 연구(김경숙, 2012; 박봉수, 임지혜, 2015; 박봉

수, 김영순, 2016; 이장혁, 2011), 정치 및 법에 관한 연구(송진숙, 2012; 최경옥, 2012), 건강에 관한 연구(이미애, 2012), 이주루트에 관한 연구(전형권, 이소영, 2012), 구술생애사 연구로(박경용, 2013; Park & Choi, 2015) 등이 있다.

이처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에 관한 생활환경, 근로 환경, 주거 환경, 지역 주민과의 관계, 의료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예컨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생활 실태와 생활 만족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2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와 같이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온 이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야 함에도 주제가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흔적으로만 보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연구가 여러 시각의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그들이 행한 통과의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주 귀국한 후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지를 살핌으로써 첫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와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는 개인 소장 사진이미지를 활용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역사적 상흔에 대한 공감과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다.

셋째, ‘사진과 이야기’로 영주귀국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통과의례에 대한 기억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주제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끌어 낸 것이다.

넷째, 포토텔링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사진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설문지나 문헌고찰, 면접법 같은 방법에 비하여 많이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후 다른 연구자의 연구방법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러티브적 진술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연구자 자신도 새롭게 성장할 기회와 성찰한 것이다.

여섯째, 통과의례를 통해 도출한 의미는 영주귀국 사할린 노인들에 대하여 풀어야 할 한국에서의 재정착문제, 정체성 정립, 재사회화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 등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것이다.

4. 연구 동기

본 연구자는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에 전에 연구자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이 연구의 동기로 연구 동기는 연구자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자는 이미 사할린센터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사할린을 사랑하는 봉사모임’의 자원봉사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사할린 한인 망향가’ 전시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수집한 도우미로 활동한 적이 있기에 때문에 본 연구 주제와 적합한 연구 현장에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 참여자들과 좀 더 친숙해질 것인지 고민하며 참여관찰을 하고 이야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

“여기 우리 손자들을 가르칠 만한 한국어 책이 좀 있나요?”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어르신 두 분이 들어오셨다. “여기 우리 손자들을 가르칠 만한 한국어 책 좀 있나요?” 라고 하신다. ‘손자들에게 가르칠 만한 한국어 책? 그렇다면 손자를 양육하는 할머니신가? 왜 한글도 아니고 한국어 책이지?’라는 궁금증에서 2013년 연구자와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는 2007년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어르신 약 580명이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은 주로 남동사할린센터 내 사할린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할린 경로당에 모여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특히 러시아와 이곳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그 가족들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가족을 대신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교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조선 학교,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에는 러시아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일본어에 능통하다. 특히 이곳에는 러시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자원봉사

연구자는 1999년 10월 31일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물론 이사의 동기는 남편의 이직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사할 당시 연구자의 목표는 가족을 빠른 시일 내에 인천 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이사 당일부터 인천 생활에 잘 적응하였으나 정작 나는 인천 생활에 적응을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겨우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왜 그리 낯설고 서러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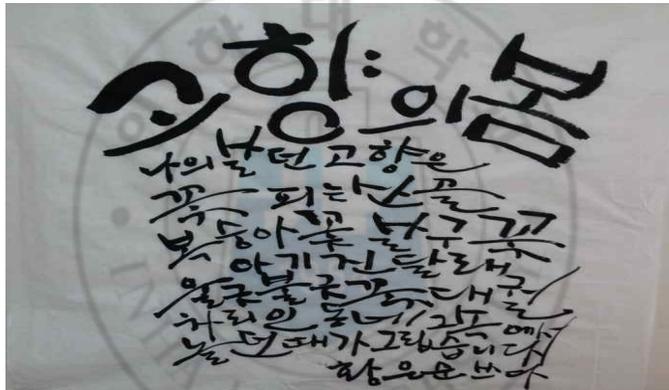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신문광고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 추가 모집'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이 글귀는 오늘의 '나'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낼 방법으로 외국어를 선택하였고, 그 중에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본교의 지인을 통해 중국에서 유학 온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선지 15년이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와 관련하여 나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들이 생활하는 경로당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할린을 사랑하는 봉사모임'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원에 입원한 영주귀국한 사할린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는 모임이다. 연구자는 자원봉사자로 사할린 어르신들을 돕는다지만 한편 사할린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친정어머니를 한층 더 이해하게 되고, 성찰하여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역사 찾기’

나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주일에 한 번씩 사할린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무엇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하는지 등을 보기 위해 참여 관찰을 하였다.



[그림 I-1]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향의 봄(황은순, 15.08.03)

[그림 I-1]은 한때는 연구 참여자로 연구에 참가했던 황은순 어르신댁의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글이다. 이글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사망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황은순 어르신이 직접 붓으로 쓴 ‘고향의 봄’이다.

“고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국이지, 어머니지.”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고향'이 어떻게 존재할까? 연구자의 일기장에는 참여자들의 생일이 적혀있다. 어르신들의 생신이 되면 작은 케이크를 사 들고 찾아뵈다. 어르신들은 연구자를 보면 사할린에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신다. 연구자는 1962년 생으로 참여자들의 자녀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가 돌아올 때쯤이면 “이거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올 때 가지고 온 거야. 맛은 없지만 내가 주는 것이니 먹어 봐요.” 하시면서 사탕 몇 개를 손에 쥐어주신다. 어르신의 따뜻한 손이 연구자의 마음을 친정어머니에게로 끌고 간다.

연구자의 친정어머니는 올해 94세로 연로하여 걸어 다니지 못하고 누워 계신다. 연구자는 어른들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는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바로 전화를 건다. 어머니는 “밥 먹었니? 애들은 무고하고?”가 다지만 어머니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애뜻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그리운 사람,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은 부모님 같은, 자식 같은, 알 수 없는 끌림이다.

“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역사이다. 사할린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한 채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지도 교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2015년은 우리나라가 광복 70년 및 한·러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2015년 9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본 연구자가 속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사업단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사할린 한인 망향가”라는 주제로 사할린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

강제 징용되어 이산의 아픔을 겪은 한인들의 삶과 당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3부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의 자료 수집을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명을 대상으로 영주 귀국한 후의 생활을 영상으로 준비하였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내 얘기가 중요하다고? 정말 내 얘기가 필요한 거야? 예구 말이 짧아서 인터뷰 못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마음속 응어리를 거침없이 쏟아내어 어느 대목에서 말씀을 끊어야 할지, 언제 자리를 떠나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특히 역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별떡 일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온몸으로 울분을 표현해주셨고, 또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다.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도 휴지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실 때에는 흥을 감추지 못하셨다. 어르신은 선명한 기억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사람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사람을 불러냈다.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어 몸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채 잊혀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연구자는 사할린을 가 보았는가?”

연구 참여자 A는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대상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느냐면서 연구자를 사할린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2015년 7월 뜨거운 여름 연구자는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못한 자’의 자료 수집을 위해 사할린을 방문하였다. 영주귀국 하신 어르신들의 구술을 통해 들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부터 개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영주 귀국하지

한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제3부는 영주귀국, 그리고 또 다른 이산이라는 주제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영주귀국과 관련한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영주귀국을 위한 삶, 박노학’, ‘영주귀국자들의 모국에서의 생활’, ‘아직도 다하지 못한 일들’을 구성하였다.

않고 사할린에 남아계신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의 구술과 영상을 채록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운이 좋게도 사할린 한인의 환갑잔치에 초대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 살았던 곳에는 옛날의 풍습과 정서가 어김없이 남아 있기 마련인데 척박한 사할린에도 환갑의 풍습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보다 더 화목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웃과 함께하였을지 모른다. 비록 융성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배어 있는 그 잔치는 우리의 풍습을 통해 한국인임을 내세우고 싶었을지 모른다.

환갑잔치에 초대된 100여 명의 하객들은 모두 한인들이다. 이들은 ‘환갑’이라는 통과의례를 매개로 함께 모여 고향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환갑잔치는 조선어학교 동기생들의 아코디언 소리에 잔칫집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아코디언에서는 한이 서린 서러움이 흘러나와 옛 기억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또다시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모인 모두가 ‘우리’가 되기도 하였다. 환갑잔치는 한인의 정체성과 러시아 문화의 혼종성의 교착이 ‘고향’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간간이 우리의 풍습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할린 한인들의 잔치는 러시아 문화와 한국문화가 어우러져 있었지만, 환갑잔치만큼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사할린에 갔다 온 소감이 어떠한가?”

심층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 A를 다시 찾았을 때 어르신은 연구자를 보자마자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르신의 손에는 사할린 ‘새고려신문(2015.08.07)’에 실린 연구자의 기사가 들려있었다. 그는 이미 연구자가 사할린에서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새고려신문을 통해 알고 계셨다. [그림 I-3]은 새고려신문에 실린 연구자의 인터뷰 기사다.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잘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5년 8월 7일(금)
..(윤력 6월 23일)..
Пятница
7 августа 2015 г.
№ 31 (1164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생애사 연구

중요장의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에 대한 호기심이 이곳으로 오게 했다



9월에 인천이민사박물관에서 <2015사할린 한인들의망향기>특별전이 열린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특별전 준비로 사할린을 방문한 박봉수 인화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과 일문일담했다.

9월에 인천이민사박물관에서 <2015사할린 한인들의망향기>특별전이 열린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특별전 준비로 사할린을 방문한 박봉수 인화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과 일문일담했다.

- 선생님께서 인화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이고 다문화교육융합연구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소와 다문화프로젝트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인화대학교 교육연구소 다문화교육융합연구사업단은한국이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을 탐구하는 연구집단입니다. 연구범위로는 185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와 해외에 거주하는 700여 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지속 가능한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한국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용 다문화가정자녀케어 시스템에 관한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교육융합연구사업단에서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의문화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고, 사할린 동포 3~4세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할린영주귀국자들과는 어떻게 접촉하게 되었고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연구내용도 궁금합니다.

- 사할린동포에 대한 관심은 2007년 인천시 논현동으로 약 600명의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하여 보급자리를 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13년 국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본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이주민,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유학생등을 만나 각 나라의 음식, 의상, 놀이 등을 직접 접촉하게 하여 학생들이 가지고있던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들을 스스로 성찰하고,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과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함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에 찾아가 어르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난을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 스스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운영 결과 많은 성과를 보았지만 특히 사할린동포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계기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생애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들 혹은 본인이 사할린으로 간 배경부터영주귀국하기까지의 생활, 여가생활, 디아스포라 정체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학문적 영역의 배경을 활용하여 사할린동포의 현존하는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함에 있어 필요한 이론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을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사할린동포 케어 시스템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림 I-3] 새고려신문 기사(2015.08.07)

어르신은 인터넷으로 새고려신문에 실린 사할린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스크랩하여 사할린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사할린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유대를 하고 있었다. 어르신께서는 새고려신문⁶⁾에 관해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주시면서 사할린에 다녀왔으니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량의 자료를 제공해주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어르신께서는 “내 살아온 삶이 가치가 있다니 내 삶을 인정받은 느낌이다. 내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응어리진 한(恨)을 이야기했더니 무거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하다.”면서 오히려 연구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연구자를 격려해주셨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1세대와 2세대는 고국의 통과의례 중 환갑과 돌, 삼일장은 형식을 유지하고 전승하려는 의지를 목격하였다. 또한 3세와 4세들의 결혼은 거의 러시아식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고국의 통과의례 중 일부를 지키며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고 전승하려는 의지를 체험하였다. 하지만 가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그리움과 기다림도 조금씩 열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포착하였다. 그래서 과거사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

6) 새고려신문은 이름이 세 번 바뀔 정도로 역사가 길다. 1949년 6월 ‘조선노동자’로 출발하여 한글로 발간되어 온 민족지다. 1961년에는 ‘레닌의 길로’로 바뀌었다가 1991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고려신문’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배 워토리아, 2015).

새고려신문은 1950년대 중반, 당시 ‘레닌의 길로’는 사할린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로 한인들에게 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 기관지라 할지라도 사할린에서 한국어를 보존하는 데는 기여를 하였다(김상호, 2008). 1960년대 초 수많은 한인 학교들이 폐교될 무렵, 레닌의 길로도 폐간 문제가 대두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유즈노 사할린스크 학교들에서 한글반이 개설됐고, 신문사에서 직접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며 신문 기자들이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며 동포신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한때 신문사의 재정문제로 폐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고국의 한국일보의 기술적인 도움으로 주 1회로 발간 횟수를 줄여 현재까지 맥을 잇고 있는 상태다. 새고려신문의 주 내용은 사할린주 한인들의 이산가족문제, 귀환문제, 강제징용피해보상 문제 등이다. 2008년부터는 러시아어로 된 면을 하나 더 추가하여 사할린 지역정보, 러시아 및 독립연합국가들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박봉수, 김영순, 2016).

은 채 세월만 흐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찰해야 할 역사적 진실과 과제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안타까웠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사할린을 역사상 존재하던 통한이 맺힌 ‘얼어붙은 땅’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동포애가 살아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았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발전 가능한 한인 사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간 경계를 넘는 어르신들의 영주귀국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사회적 공간도 확장되었다. 또한 이번 사할린 방문을 통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행동이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할린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3세, 4세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당신들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다. 이는 지난 역사 속에서 고국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고 배척당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쓰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처음 만났던 때와 장소로 돌아갔고, 자원봉사자로 실천현장에서 부모에게 못한 효를 행하며 감사해하던 모습 속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의 그리움을 달래며 위로를 받던 모습들이 스쳐지나갔다. 이렇게 연구자는 연구자가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였고, 연구 문제를 형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사할린 한인은 3가지 유형의 이주루트와 6개의 이주 시기가 있다. 첫째, 3가지 이주 유형은 모국 송출지에서 유입지로의 이주, 유입지인 사할린에서 유입국 내부 이주 '재이주루트', 그리고 유입지에서 모국 송출지로 영주귀국하는 '귀환루트'가 있다. 둘째, 6가지 이주 시기는 1905년 이전의 초기이주시기, 남 사할린과 북사할린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이주를 했던 자유이주기(1905-1937), 일본의 강제이주기(1937-1945)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강제이주기는 북 사할린에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동된 때(1937)에 부합되는 시기이다. 그후로 소련지역에 살게 된 한인들의 혼돈기(1945-1959)에 들어오며 일본인 부인을 둔 사람의 일본으로 귀환하고 남은 한인들은 체념과 포기상태에 이른다. 이후 재 정착기(1959-1988)를 상대적 안정기라고 볼 수 있으며, 소련의 해체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새로운 변화기(1990)를 맞게 된다(이재혁, 2011:92).

이를 요약하면 사할린 한인이 이주하게 된 것은 우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기근이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더 나은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찾아 나서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한인들의 동원이다. 일본에 의한 강제이주로 이들은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철도부설, 비행장 건설, 탄광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비록 이들의 부친들이 더 좋은 돈벌이를 위해 사할린을 선택하였다 하여도 결국 이는 강제연행이었다(전형권, 이소영, 2012; Kuzin Anatolii, 2014).

따라서 사할린 한인의 경험에는 강제이주, 차별과 배제, 적응, 문화변용, 동화, 공동체, 고국에 대한 충성심,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 등 다양

한 주제들이 있다. 이들 각각의 주제는 독립적인 연구영역이며 실제로 위의 각 주제에 대해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각각의 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인진, 2002). 따라서 ‘디아스포라(diaspora)’는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이주와 적응 경험을 포괄하면서 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디아스포라의 어원은 ‘파종’ 혹은 ‘이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 $\delta \iota \alpha \sigma \pi \rho \acute{\alpha}$ (Diaspora)’에서 유래한 것으로 ‘ $\delta \iota \alpha$ ’는 ‘~을 넘어’, ‘ $\pi \rho \acute{\alpha}$ ’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이다(윤인진, 2004). 이를 ‘민족분산(民族分散)’ 또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단지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나라 밖에 자리 잡는 집단에 쓴다. 즉, 조상의 출신국, 자신이 태어난 나라, 현재 국민으로 속해 있는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서경식, 2006).

디아스포라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샤프란(William Safran, 1991)은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로 정의하고 여섯 가지의 특성⁷⁾을 설명하였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그리스인, 아로메니아인의 분산으로 이주민, 국외로 추방된 난민, 초빙 노동자, 망명자 공동체, 소수 민족 공동체(Tölölian, 1996:19), 모국으로 귀환하려는 희망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은 이주민 집단(Cliford James, 1994), 모든 형태의 문화적 고정성에 비판적 거

7) (William Safran)의 디아스포라의 특성은 첫째, 디아스포라는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 의 주변적인 장소로의 이동. 둘째, 모국에 대한 '기억, 비전 혹은 신화' 같은 집합적 기억을 보존. 셋째, 거주하는 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믿음. 넷째, 때가 되면 '돌아갈 곳'으로 조상의 고국을 그리워함. 다섯째, 고국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헌신. 여섯째,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등이다.

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배자의 정신(Edward Said, 2001), 정치적 이유로 거주국 사이에 동화될 수도 없고, 동화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들 자신이 고안해낸 이상화된 기원지로 귀환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Mudimbe and Engel, 1996: 6),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간혀 있는 상태(Ryang, S., 2001) 등으로 정의한다.

코헨(Robin Cohen, 2008)은 디아스포라의 조건을 첫째, 기원지로부터 비극적인 방식으로 2개 이상의 분산, 둘째, 노동 또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 고국으로부터의 인구 확장, 셋째, 고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과 신화, 넷째, 상상의 고국에 대한 이상화와 그것의 유지, 복원, 안전 및 번영, 심지어 창조에 대한 집합적인 헌신, 다섯째, 귀화 운동의 발생, 여섯째, 공통의 역사와 공동운명체 의식에 기초한 강하고 지속적인 민족 집단의식의 형성, 일곱째, 거주국 사회와의 힘들고 갈등적인 관계, 여덟째, 타국의 동족과의 감정이입과 연대감, 아홉째, 다문화주의를 허용하는 거주국 사회에서 고유하고 창조적이며 풍성한 생활의 가능성으로 보았다(김명지, 2013). 이를 종합하면 디아스포라는 타국에서 고국을 지향하며, 고국과의 유대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에는 동일하다. 이때 민족동질성과 정체성이 합쳐질 경우 더욱 견고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과거의 디아스포라는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국과의 연대의식과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특정한 민족주의의적 절대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현재 디아스포라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다문화),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윤인진(2004)은 디아스포라를 구성하는 여러 조건 중에 몇 가지의 조건만으로도 디아스포라에 해당됨을 설명한다. 또 디아스포라를 이주노동자, 무국적자, 다문화가족, 언어의 혼종성 등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문제와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 노동자, 민족 공동체, 문

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산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할린(Sakhalin) 한인의 이주와 정착의 경험은 디아스포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극적 이주 경험, 집단적 이주, 상상의 모국인 한국의 존재, 거주국에서 차별과 배제의 경험, 모국에 대한 귀환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를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디아스포라로 설명하지 못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이주 및 정착의 경험 즉, 귀환이주⁸⁾까지 포함할 것이다.

사할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은 1870년대부터라고 전해진다(이재혁, 2011). 사할린은 혹독한 기후, 지리적 오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소련은 버려진 땅 사할린 섬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유형 죄수들을 이용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이 가중되는 시대 상황에서 일본은 정치적으로 식민이주자들을 사할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노동 모집과 징용을 널리 활용하였다(Дин Ю.И., 2015).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협약에 따라 러시아는 남-우수리스크 변방 영토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고 이 변방지역에 한인들의 이주를 허용하고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이 1905년 남사할린을 점령했을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4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20년 남부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의 수는 934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북부 사할린지역에 거주하던 한인은 1,431명이었으나 일본이 철수한 1925년에는 그 수가 487명으로

8) (Reyes, 1997)의 귀환이주에 대한 이론은 정착에 실패했기 때문에 귀환한다고 설명하는 '실망 이론'(disappoint theory), 영구 혹은 장기간 정착하려는 계획 없이 단기간, 반복적 혹은 순환적 형태로 빈번하게 이주와 귀환을 되풀이하는 것을 일컫는 '순환이주 이론'(circular migration theory), 애초에 이주를 하면서 세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귀환한다는 '목표 수입 이론'(target income theory), 그리고 이주가 사회적 연결망을 따라 이루어지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 때문에 귀환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사회적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등이 있다(박정석, 2007:3에서 재인용).

현저하게 줄었다. 소련은 1937년에 강제이주정책을 통해 북부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1939년-1945년)에 일본은 남사할린을 일본영토로 공고히 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 노동력을 한반도에서 끌어왔다. 한인들이 남부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와 전체 사할린 섬에 약 5만 명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44년 여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에서 광부로 일하던 한인을 일본 남부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것이 전환배치다.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⁹⁾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박승의, 2015; 전형권, 2012; Дин Ю.И, 2015; Kuzin Anatolii, 2014). 이들은 대부분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 현장,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항만 운수, 집단 농장 등에 동원되었는데 그 중 석탄 광산에 동원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당시 이들은 모두 일본식 이름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9월 초 남사할린이 해방되자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기 시작했을 때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을 제외한 기타 한인들은 일본으로 송환에서 제외되었다. 한인들은 귀국을 위해 코르사코프 항구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사할린 개발에 노동력이 필요한 소련 정부는 한인들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국제정세에 의한 거대한 정치적 구도가 사할린 한인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귀향의 꿈을 가슴에 품고 무국적자로 남게 된다. 이들은 소련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향후 귀국에 문제가 될 수

9) 동원이란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를 가리킨다.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 현장,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항만 운수, 집단 농장 등에 동원되었는데 석탄 광산에 동원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노무 동원은 국가 권력이 자행했는데 정책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집단적 폭력 동원이었다. 노무 동원의 방식은 할당 모집과 국민징용, 그리고 관 알선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할당 모집(1938~1945)은 조선총독부가 노무자의 모집 지역과 할당 인원을 결정하고 허가하였으며, 지역 행정기관이 기업 모집 담당자와 함께 노무자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수송책임을 행정기관과 해당 기업에 함께 담당하였다. 둘째, 국민 징용(1939~1945)은 국민 징용령 및 국민직업 능력 신고령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가 선정하여 징용 영장을 교수하여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정기관이 선정에서 수송은 물론 식량 조달과 인력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였다. 셋째, 관 알선(1942~1945)은 사업자 또는 대행단체가 신청하면 조선총독부가 모집 지역과 인원을 결정하고 조선 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관, 경찰, 조선노무협회, 직업소개소 등이 협력하여 노무자를 선정하고 송출하는 방식으로 수송책임 또한 각 기관이 공동으로 담당하였다(한국이민사박물관, 2015).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국적자로 차별대우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고초를 견뎠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는 전쟁 후에 사할린에 남아있던 한인들만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사할린 한인사회는 한국, 북한, 일본,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에서 온 한인들과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형성되었다(Kuzin Anatolii, 2014). 1946년~1949년 사이에 수산업 진흥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사할린으로 이주하였고,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약 2천명의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들어오면서 동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의 일본국민이었던 한인들은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으며 일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사할린 한인의 자녀들은 대학과 기술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 국가보조금 등에서 제외되었다.

1952년부터 한인들을 소비에트 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1950년대 말 경에는 한인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지만, 일부 한인들은 고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 중 일부가 북한 국적을 받아 월북하여 또 다른 이산가족 형태가 생겨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무국적자의 자녀들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소련 국적을 취득하였다(최상구, 2014).

소비에트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고(1985년), 서울올림픽(1988년), 세계 한민족제전(1989년)은 사할린 한인에게 커다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한인들 사이에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일기 시작했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맺자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4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pilot project) 실시에 합의하게 되었다. 1999년 사할린 송환자들을 위해 일본은 한국에 32억 엔을 분담하여 100개의 숙소를 마련했고,

2000년에는 500개의 아파트가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여 영주귀국이 시작되었다(최상구, 2014).

그러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조건이 까다로웠다. 즉, 한·일 양국 정부는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출생자로 제한하고 부부 양측이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만 영주귀국이 허용되었으며 거주지는 단지 생존 시에만 제공되고 상속할 권한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주귀국제도는 2008년에 영주귀국 범위가 다소 확장되어 부부 중 한 명이 상기의 조건에 충족되면 다른 한 명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자라 하더라도 허용됐고, 또한 이들 가족 중 장애를 가진 자녀들 및 가족 중 한인이 아닌 구성원도 일부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일부 한인들이 영주귀국하기 위해 가짜 결혼을 하고, 생년월일을 조작하고, 이미 오래 전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영주귀국 하는 폐단을 가져왔다(Kuzin Anatolii, 2014).

사할린 한인은 과거 일제시기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고, 지금은 조상의 땅으로 영주귀국하기 위해 자녀들과 헤어져야 하는 새로운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역사의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2. 통과례, 고향, 민족 정체성

2.1 통과례와 고향

고향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장’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국립국어원, 2014).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고향은 시간성과 공간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과거라는 시간성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는 장소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향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향은 마을과 같은 공간적인 차원과 전통과 같은 시간적인 차원, 그리고 혈통 및 가족 내에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전광식, 1999:64-65).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고향’은 이중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고향’은 조상들과 자신의 기원지라는 의미와 거주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들에게 현재 위치는 거주국이자 또 다른 고향이기 때문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자의든 타의든 내가 나고 자란 곳, 조상 대대로 머물던 곳을 떠나 거주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자신의 출신지를 ‘고향’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인간적인 공간, 즉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하게 된다(김태준, 2006:9).

누구에게나 고향은 어머니와 같은 근원적인 따스함과 평화, 신뢰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고향이라는 근원적 장소가 지닌 절대성을 확인시켜 주는 강력한 힘이다. 어머니와 고향은 우주의 모든 생명을 포용할 수 있는 낙원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무의식적 정서 이면에는 각박해지는 삶에 대한 대안으로 고향의 동경을 통한 자기 확인 의지가 내재하여 있다. 거주국의 사회 문화적 체제에 동화되며 생존해야 하는 디아스포라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같은 환경과 체험에서 발생

하는 집단적 감정과 의식을 생성하여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고향을 떠나게 된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자발적 이주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이주인지에 따라 자신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자발적 이주자라면 거주국에 적응하기 위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기보다는 거주국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게 된다. 반면 비자발적 이주라면 비교적 고향의 전통문화를 지키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화의 속도도 더딘 편이다.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고향은 회귀해야 할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초적 힘을 지닌 고향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 고향을 '환상'화 시키기도 한다. 아름다운 고향의 풍광 등은 고향을 대신하는 대체물로서 실제 고향이 가진 어두운 기억을 가리는 기능을 한다. 그들의 과거에는 가족과 소박한 자연, 그리고 동물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 풍속과 문화를 토대로 한 집단적 동질감을 형성케 한다. 그들이 처한 오늘날의 결핍은 어머니나 누이가 머무는 고향을 평안한 안식처로 상상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된다. 어머니의 존재는 궁핍과 고단함의 자취가 남아있는 고향을 치유의 질서로 재배치시킨다. 이렇게 고향은 지난 세월의 시간성 위에 존재하는 심상 공간이며,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억의 표상이다(최재목,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향이라는 장소 그 자체는 과거의 경험과 사건의 현재적 표현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현재적 표현이다. 또한 '고향'을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친밀한 관계 즉 친밀성으로 볼 것이다.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로 설명한다(윤형숙, 2002). 이는 대부분 자기 동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교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산·망명자의 경우에 고향의 정체성은 고국

이나 민족과 중첩하기도 하고, 혹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보여준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 대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땅을 고향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Relph, 1976). 이들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정서적 공간인 고향을 그리며 새로운 고향을 만든다. 개인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섭하면서 마을로 확장된다. 이들은 고향과 유사한 대체 공간을 만들어 고향에서 행하던 의식들을 거행하기도 하며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다(김태준, 2006).

이때 고향이야말로 그 사람과 별개가 아닌 개개인의 동질성이며,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향 만들기는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제 행동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일이 되기도 한다. 고향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머무는 소통의 장이자 지지의 공간이다. 이들은 거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향의 관습에 따라 출생, 혼인, 죽음 등 삶의 주요한 시점에서 그에 따른 통과의례를 거행한다.

통과의례¹⁰⁾는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로 반겐넵(Arnold van Gennep, 1909)¹¹⁾

10) 하는 일생의례는 출생에서 상례까지 즉, 출생의례, 관례, 혼례, 상례를 말하고 가례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말한다(전경수, 2000). 이는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자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에 관한 사항으로 관혼상제로 집약한 것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의례인 일생의례는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이 사회적 의식(ceremony)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의례(rite)이다. 반면 가례는 일생의례나 통과의례가 아니라 유교적 사회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그 시대의 생활의 지혜와 가치관과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다. 가족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이 유교의 사회적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인간행위의 규범이다. 유교의례는 한국인의 일생의례에서 모범으로서 다른 종교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제도와 친족질서를 기본으로 삼는 사회적 구조 전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김만태, 2011). 유교의 궁극적 덕목은 인(仁)이며 인은 예(禮)를 통해 실현된다. 예(禮)는 사회적 질서이자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11) 반겐넵(Arnold van Gennep)은 개인들의 ‘인생 고비(life crises)’에 따른 의식을 질서와 내용을 따라 ‘분리(分離)’, ‘전이(轉移)’, ‘통합(統合)’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각 부분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생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단계는 ‘분리’로 흔히 ‘죽음’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개인의 종래의 묶은 생활양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사회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격리됨을 말한다. 2단계는 ‘전이’로 이 동안에 개인과 다른 사회 성원의 관계는 예전 지위의 관계가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지위에서 맺는 관계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띤다. 3단계 ‘통

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인류학자들¹²⁾에 의해 널리 이용되었다. 이는 불어(ceremonie passage)와 영어(rites of passage)의 직역이며, 장소, 생태, 사회적 지위, 나이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키는 말이다(전경수, 2000: 5-11).

반젠넵(Arnold van Gennep)은 통과의례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에 관한 것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과하는 의례는 사람들이 한 세계를 건너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직접적인 통과의례로 해석하였다(전경수, 2000). 통과의례의 기본 구조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장애를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즉, 통과의례는 하나의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변환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정형화 공식화된 실천들이다. 이는 기존의 상황을 벗어나 경계의 상황에 머물다가 새로운 상황으로 편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회적, 주술적 지위로의 통과에 수반되는 모든 의식에서 전이의 상징적, 공간적 영역이 다소간 현저한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과의례는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개인의 삶은 혈연 집단을 비롯한 이웃, 마을, 사회,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므로 통과의례는 사회적 관계와 공적 가치를 상당 부분 포함한다. 통과의례에는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친족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작동 메커니즘이 들어있다.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출생, 혼인, 죽음 등 삶의 주요한 시점

’은 개인이 예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관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나 상태를 획득한 사실이 공인된다(이명현, 2006; 이지엽, 2008: 281).

12) 반젠넵(Arnold van Gennep)이 이후의 인류학자들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할 때 통과의례라 하였다. 맥스 글럭먼(Max Gluckman, 1962)은 부족사회에서 통과의례가 빈번히 거행되는 의례를 사회적 역할의 미분화라 보았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58)는 통과의례를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임을 주장한다. 터너(V. Turner, 1967)는 과도기. 경계기의 무구조(無構造)에 주목하였다(서영대, 1989: 185).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통과의례는 사회적, 주술적 지위로의 통과에 수반되는 모든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에서 그에 따른 의식을 거행한다. 민족은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상징과 의례와 의식의 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복합체이다(김만태, 2011). 통과의례는 인간 개체는 물론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가정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해당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통과의례는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집단에게는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상징이다. 통과의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 교집합의 가장 축소된 형태 중 하나이다. 통과의례는 결국 가족을 만들고 민족의 테두리를 긋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다. 통과의례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통과의례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공동체적 의미를 창출하고 휴식 및 즐거움을 나누는 여가를 제공하기도 한다(김영순, 정찬영, 2008).

통과의례는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사회문화적 통합을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향'을 나타내는 '통과의례'가 지닌 상징성은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통과의례는 개인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이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정세라는 큰 틀에 묻혀버려 개인, 마을, 지역과 같은 작은 세계를 탐험하게 함으로써 구조 속 개인들의 생생한 삶을 복원할 수 있게 한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 근거를 마련한다. 공동체 문화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성된 자생적 문화 창조로 또 다른 고향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된다. 결국, 고향과 역사적 근거와 정체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작동됨으로써 자기 존재에의 의미부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통과의례와 더불어 한인의 민족 정체성에 중요한 상징이자 메타포(metaphor)는 '고향'이다. 특별히 '고향'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고향은 개인의 고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 모두의 고향, 즉 민족 공동체로서의 고향으로 의미가 상징적으로 확장된다. 고향의 공간적 의미가 민족 공동체로서의 고향으로 상승된다.



2.2 통과 의례와 민족 정체성

앞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고향이란 조상들과 자신의 기원지라는 의미와 거주국이라는 것을 논하였다. 또한 고향은 통과 의례와 더불어 한인의 민족 정체성에 중요한 상징이자 메타포(metaphor)라는 것과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해 통과 의례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생산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이러한 통과 의례는 고향에 기원을 두었지만, 다음 세대와 연결함으로써 결국 민족을 응집하게 하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란 용어는 동일성, 연속성, 소속감 및 일체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말이다(국립국어원, 2015). 정체성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 여러 범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해 보면 ‘집단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정체성은 사회 심리학자 에릭슨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자아 정체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현재의 주관적 자아감’을 의미한다(임채완, 2002). 이것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의 자각을 뜻한다. 반면 집단 정체성은 자아 정체성의 객관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정체성, 즉 정체성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확장시켜왔다. 대표적인 집단 정체성으로는 성(gender), 계급(class), 인종(race), 민족(ethnic), 국가(nation) 정체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민족 정체성은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조상 대대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 및 태도(Edward, 1985), 공동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의 느낌, 즉 심리적 동일시(Shulman, 1999), 문화적 관습(정호영, 2001), 한 국가의 주권적 시민이라는 의미의 국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동질적으로 공유된 민족적인 특성 또는 개성과 민족

적 차원에서 자기 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 소속감(유강은, 2015) 등으로 정의된다.¹³⁾

이처럼 전근대의 정체성은 지역, 언어, 문화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민족 정체성은 산업화, 자본주의화,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의 현상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이용성, 1999). 앤더슨(Anderson)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근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 한다(윤형숙, 1991).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는 민족국가를 형성함에 있어 일정한 경계와 독립된 주권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거의 모든 공동체는 얼굴을 맞대고 상호동일시킬 수 없으므로 상상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이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바(Uba, 1994)¹⁴⁾에 따르면 한 개인의 민족 정체성은 그의 자긍심과 긍정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기 민족 정체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13) 정체성의 개념적 성격은 학자에 따라 달리 규정한다. 블룸(Bloom, W.)은 민족 정체성은 한 국가의 전체를 포괄하며,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차이들을 모두 초월하는 개념으로 민족 정체성을 어떠한 민족의 동일시와 상징에 대한 내면화로 정의한다. 예컨대 한 집단의 성원들이 어떠한 민족적 상징들에 대하여 동일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상징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타미르(Tamir, Y.)는 민족 정체성을 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로 정의한다. 즉, 성원들에게 근대적 삶의 노이로제, 소외,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인시켜준다고 본다. 홀(Hall, J. A.)은 민족이라는 것은 계급, 문화적, 민족, 지역적 배경 등을 모두 아우를 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티르야켄(Tiryakian, E. A.)은 민족 정체성 형성에는 종교와 민족주의의 역할이 가장 큰 핵심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정호영, 2001; 70-72).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규정한 민족 정체성 개념 간의 공통점은 (1)민족 정체성은 사회적·집합적 정체성 (2)개인의 특정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말하며 민족적 상징이나 민족적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연대감이나 일체감 (3)개인의 자아 개념의 일부로서 개인에게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민족 정체성은 한 인간이 갖는 정체성의 일부로서,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이라고 볼 수 있다.

14) 민족 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기 민족 집단에 대한 일반 지식, 신념, 기대들을 일으키고, 그가 사물, 또는 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의 의미를 해석하느냐를 결정짓는 인지적, 정보처리적 틀/framework) 또는 필터(filter)로서 기능하며, 그의 행위 기준이 된다(Uba, 1994; 윤인진, 1996:103에서 재인용).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로서 자신들과 남들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민족경계(ethnin boundary)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거주지나 국적을 초월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언어나 종교, 의식주 생활양식의 차이를 초월하기도 한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또는 종교가 다르고 언어와 같은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민족적 출신이 같으면 하나의 민족이다(김상호, 2008).

민족 정체성은 공통의 생물학적, 역사적 기원, 그리고 문화를 소유하는 사람들을 일련의 민족적 목표와 이해관계에 의해 강한 응집력과 연대감을 가진 집단으로 변환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귀속성의 근간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문화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바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민족 정체성은 사회적·집합적 정체성의 하나로 '민족 구성원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동일시와 개인이 어떤 특정한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으로 정의한다.

민족 정체성의 내용이나 형식은 해당 민족집단의 전통문화, 관습,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그 집단이 처한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 이때 개인, 가족, 공동체, 민족을 관통하기 때문에 우애(友愛)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문화적, 정치적 유대를 통하여 성원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민족에게는 공동체 형성의 수단이 되어준다. 우애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행진, 기념식, 기념물, 선서, 화폐, 깃발, 영웅에 대한 찬양,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 등 의식이나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민족 정체성은 상황적 민족성과 같은 개념으로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야기되고 표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수준을 살필 수 있는 지표는 그가 어느 정도 민족 단결력을 유지하고 족내혼(endogamy), 모국어 사용, 전통문화와 관습들을 인정하고 지키려는 의지이다(윤인진, 1996). 민족의 문화 정체성은 그 민족 구성원의 장기간 공통된 경험과 기억, 공통된 운명 의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공통된 정서적 교감과 성향을 포괄한다.

민족 정체성은 민족 집단의 고유한 문화, 가치,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을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어느 한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과 기호는 자유롭게 창조되고, 일정한 내용을 나타내며, 전통을 통해 전해진다. 단 스페르베르(Dan Sperber)는 의례나 상징은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유강은, 2015). 이는 민족 정체성은 한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처럼 민족 정체성이 모든 소수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아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 계층, 성 또는 성적 지향이 더 중요한 정체성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개 이상의 민족집단에 일체감을 갖는다(Heath & Mclaughlin, 1993). 다만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성, 계급, 지역, 종교와 같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가족과 민족적 언어, 상징, 행동, 신념 등을 거부해야 할 상황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Banks, 2002).

통과의례는 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을 내보임으로써 자신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는 경계선을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 성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상징의 사용과 의례의 반복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한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복장과 음식, 특정한 의식, 의례 등이 모두 개인을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 연결하는 상징들이다. 한 집단에 소속된다는 사실은 그 집단의 상징체계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려면 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외부인들과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과의례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촉진하는 도구가 된다.

소속은 한 개인의 '자아 개념(self-concept)'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거나 타인들에 의해서 정의

되어 질 수 있다. 소속은 정체성 공유 의식을 지탱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은 통과의례를 통해 자신을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아상을 확립한다. 통과의례를 행함으로써 한인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 속에서 지위를 얻으며 안전감을 느낀다.

상징과 의례는 개인의 삶에서 전환점을 찍는 데 이용된다(Montserrat Guibernau, 2013). 상징과 의례는 민족 정체성 같은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통과의례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변화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통과의례는 개인의 기억으로 시작하여 민족 간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가 마을로 확장된다. 개인은 '고향' 또는 '마을'이라는 공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통과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그 세계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이때 통과의례는 구성원이 모여 서로 민족적 공감과 사회적 연대감, 소통의 장으로 민족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된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에게 통과의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교집합의 문화코드이며 상징이다. 통과의례는 가족 내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끈끈한 연대감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정신적인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상징은 개인에게 자기 삶뿐만 아니라 소속된 공동체의 삶도 이해하게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다. 통과의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한민족으로 상호 인정을 해주며 그 집단의 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할린 한인에게 통과의례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현재화하는 작업이며 '고향'에 투영되어 그것의 내적인 구성을 가능케 하는 근본 원리이다. 통과의례 행위는 전통적 믿음 속에 살아왔던 성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고향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 이렇게 고향의 친밀한 대상들, 고향의 의례 등을 불러내는 작업은 불안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존재의 위기를 느끼며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환기하고자 한 간절한 소망이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타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

식과 태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디아스포라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삶의 장으로 옮겨 놓는다. 그들의 통과의례에는 특정한 공간 속에 살아오면서 형성해 낸 가치관과 윤리관, 자연관과 세계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민족임을 상징하는 '통과의례'는 향토애나 고향 의식을 강화시키고 한 집단을 응집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이는 곧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통과 의례는 민족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한민족의 강력한 메타포이다.



Ⅲ.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1.1 내러티브 탐구 개념

뢰벤슈타인(Loewenstein, 1991)에 의하면 내러티브(narrative)는 어원적으로 “말하다” 혹은 “서술하다”로 해석되었다(이혼정, 2003:9재인용). 내러티브는 개인의 비교적 긴 형태의 이야기로서 개인의 경험이나 특별한 시간과 사건에 관련된 것을 정리한 ‘이야기’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 듀이(Dewey)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가 발전시켜온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개인의 이야기화된 경험(storied experience)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 클래디닌(Clandinin, 2013)은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 이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 즉, 경험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며 시간성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경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을 묘사하는 이야기이다(Clandinin & Murphy, 2006: 634).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특정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협동 연구다. 연구자는 현장의 이러한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탐구를 진행해 나가며, 결과적으로 그 탐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살아내(reliving)는 성찰적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탐구된 경험을 넓히고 확장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 64).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경험이 사건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 내러티브적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개인의 모든 경험은 이야기를 통해서 발현되고 우리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경험들이 구성되고, 형성되며, 표현되고 실행되는 범위 내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클래딘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내러티브 탐구라는 연구 방법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탐구지점이라는 은유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탐구지점이란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장소성(place)을 말한다. 내러티브 탐구 시 연구자는 3차원적 내러티브탐구 지점에서 내러티브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러티브하게 생각하기'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듀이(Dewey, 1938)가 제시한 경험의 세 가지 속성 즉,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성(Interaction), 상황(Situation)에서 고안한 것이다(김대현, 2006, 115; 엄지숙, 2009: 238; 홍영숙, 2015).

3차원적 내러티브탐구 지점에서 시간성 차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고, 다른 경험에서 자라난 경험은 또 다른 경험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2).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backward),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forwar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안에서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담겨져 있음을 말한다.

사회성은 실제적 상황들, 환경, 개인의 맥락적 요소들, 그리고 연구자와 참여자의 탐구관계로 내재적 조건과 외재적(객관적) 조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경험을 탐구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의 감정이 어떤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곳의 장소는 어떤지, 이장소의 상황, 맥락은 어떠한지, 모두 포함하여 연구

해야 함을 말한다.

장소(상황)는 탐구와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로서 이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자는 경험이 형성되는 장소의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탐구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내러티브 탐구의 내적 지향(inward), 외적 지향(outward), 과거 지향(backward), 미래 지향(forward)의 4방향(backward/forward, inward/outward)이라는 경험을 바라보는 두 방향성(backward/forward)을 제시한다. 내적 지향이란 느낌, 희망, 미적 반응, 도덕적 기질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외적 지향이란 실존적 상황, 즉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 지향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경험을 살피는 것이며, 미래지향은 현재 경험의 기반 위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험을 예측하는 것이다(김대현, 2006: 115).

본 연구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의미를 밝히기 위해 생애사적 내러티브 방법으로 수행한다. 인간의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시간성, 공간성의 삼차원적 탐구지점 속에서 이해하고자한 클래딘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의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 삶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는 인물이나 사건의 탐구,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나 왜곡된 모습으로 비치는 주변 계층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활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적 삶을 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의 특성과 부합한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데 유익한 정치적, 실천적 해석을 가져야 하는 개인적 경험을 진술한 생애사 자료는 그들의 삶과 경험을 주관적 시간적으로, 혹은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위치를 재조명하는 점검 및 평가, 일관성 유지를 위한 의미부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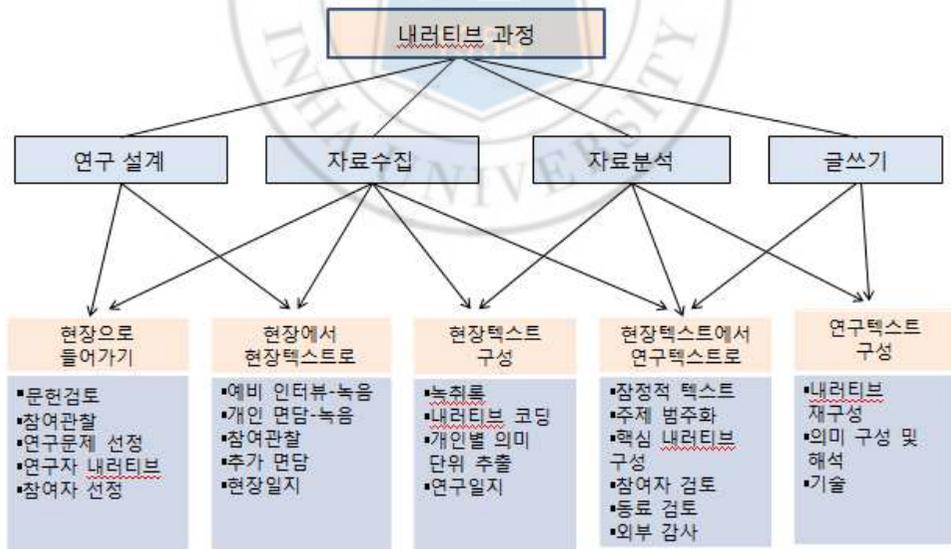
정당화, 성공과 즐거움을 인식하는 자기만족, 부족함과 아픔을 수용하는 자기반성 및 치유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 재구성이라는 내러티브의 특성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를 통해 전개할 수 있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즉,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내러티브를 통해 이야기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며, 변화된 이야기를 다시 살아낸다고 볼 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살아냄으로써 통과의례에 함유된 의미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1.2. 내러티브 절차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1991)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어떠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고, 탐구의 방법으로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탐구 패턴’까지를 의미한다(염지숙 1999). 내러티브 절차에서 내러티브 과정은 연구 설계에서 글쓰기까지의 논문을 작성하는 전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과 형성하게 되는 연구 관계와 연구 장소, 연구 참여자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그림 III-1] 내러티브 과정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은 연구 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글쓰기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설계와 자료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 설계에서 문헌검토와 참여관찰, 연구문제 선정,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자료수집에서는 예비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문헌검토를 하고,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 참여자 선정과 참여관찰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참여관찰을 하였다. 이는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사람들을 관찰하며 면담할 것인지, 연구의 대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함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자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뷰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내는 이야기를 찾기도 더더욱 힘들다. 만약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상적인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 참여관찰을 하고, 참여관찰에서 보이는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였으며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받아 관계 맺기를 시작하여 예비 인터뷰를 한 다음 선별코딩을 하였다. 이는 연구자 머릿속에 이미 다층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분석했을 때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면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할 계획을 세우며 잠정적 연구 참여자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개별의미 단위를 추출한 후 동료 연구자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외부 감사를 거친 후에야 참여자와 탐구자로 만났을 때는 서로 이야기 하는 단계, 즉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에 들어갔다.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과 글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 공동체를 만들어 끊임없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동저자, 즉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그리고 멘토가 본 연구가 끝날 때까지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자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비판하여 연

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과정은 연구 설계에서부터 자료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과 동시에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연구텍스트 작성하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한 글쓰기 작업을 염두에 두면서 논문을 작성하였다.



2. 연구 공간

2.1 연구 현장으로서 남동사할린센터

덴진(Denzin, 1989)과 클라이드 클럭혼과 고츠초크(Kluckhohn, C., & Gottschalk, L. R.(1945)는 연구대상의 대표성 문제와 개인적 서술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기억의 부정확성과 주관성의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피면접자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여관찰이 필요하다(Denzin, N. 1989; Kluckhohn, C., & Gottschalk, L. R. 1945).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가 되어서 연구 대상의 일상적 상황 속에 참여하고 관찰한다는 것이다. 참여관찰은 참여와 관찰이라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상황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상황에서의 활동, 사람들, 물리적 측면을 관찰하기 위함이다(Spradley, J. P., 1980).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연구자가 참여관찰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질적 자료는 심층적이고 중층적이게 된다(윤택림, 2004:51).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5명이다. 우선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기 위해 사할린경로당을 찾아가 내러티브 탐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적 관계 맺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관한 것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연구자를 공동 연구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공동연구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을 공동연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연구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 연구를 위해 연구 장소를 찾을 때부터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들과 관계 형성에 긴장하였다. 특히 외부인으로서 사할린경로당에서 관찰하고 참여자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위계에 따른 협력관계의 어려움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 공유한 이야기들의 타당성 문제 등의 내러티브 탐구 수행 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고 있던 사할린 경로당 회장님에게 참여관찰 가능 동의를 받고 참여관찰을 하였다.

연구자는 2015년 2월 ‘설맞이 합동 차례’와 3월 8일 ‘세계 3.8여성의 날’에 초대를 받아 사할린센터에 갔을 때 이 공간에서만큼은 ‘나’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로 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들과 동반자적 관계로 평생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살아왔던 환경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의 환경, 그리고 미래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남동사할린센터’에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참여관찰을 하였다. ‘남동사할린센터’¹⁵⁾에 초점을 두어 참여관찰을 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국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적응하였으며, 그 후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는 다양한 관계 맺음을 통해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스토리텔러이자 매개자가 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 표정, 몸짓, 동료들과의 관계, 게이트볼을 치거나 당구를 칠 때 오고 가는 이야기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갈 수 있는 할머니방, 할

15)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영구정착과 사회통합, 아름다운 노년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남동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1층에 사무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그리고 식당이 있다. 2층에는 센터장실, 다목적실이 있는데 그 공간을 경우에 따라서는 강당으로, 혹은 당구실과 탁구실, 그리고 교육장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옥상에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다.

아버지방, 식당 등 어디에서나 관찰하였다. 그 느낌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집에 오자마자 다시 시간성, 사회성, 공간특성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겪었던 경험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 시설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신체가 불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는 신체가 건강한 노인들이 맡아 해결해주는 자조 공간이다.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은 총무 담당, 문화담당, 대서관 담당, 영서관 담당 등 임무를 정해 놓고 상근을 한다. 예를 들어 영주귀국한 노인이 사망했을 때 사할린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장례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들은 모두 러시아어권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통해 불편함이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한국어가 서툴러 더듬거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여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잠시 벗어나 러시아어로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부르던 가요를 부르며, 러시아 춤을 추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는 곳으로 따뜻한 친밀감이 살아있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마작 등으로 소일을 일삼으려는 목적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생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사회와 사할린과 소통하는 발전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남동사할린센터에서는 사할린에 잔류하는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위해 일본 적십자와 한국 적십자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권리를 위해 일함으로써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할린센터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은 사할린과 한국 사이의 맥락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남동사할린센터는 이들의 자조 공간으로 초국가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장이 된다. 특히 이곳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그 고향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아닌, 물리적 공간으로 투영된 것이다. 그곳이 사할린센터이다. 그 안에서 자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은 그 고향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고향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기는데 연구자 같은 사람들의 그룹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연구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고향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모님 경험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경험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할린센터는 고향이 확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2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면서 시간성, 사회성, 장소라는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에서부터 연구의 현장,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그리고 연구 수행 시 나와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가 다차원적인 삶의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현장 참여관찰 시 연구자가 항상 깨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연구자는 사할린을 가 보았는가?”

연구 참여자 A가 연구자와 첫 번째 만남에서 한 말이다. 그는 '사할린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할린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연구자로서 연구 대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에 관한 우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러티브 연구의 딜레마에 해당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일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참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중요시하는 또 다른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해외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을 몸담고 있었던, 개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2015년 7월 29일에서 8월 5일까지 일주일간 사할린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그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사할린 한인 1세의 집에서 홈스테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아직 영주귀국하지 않고 사할린 현지에 잔류하고 있는 한인 1세대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하였다.

사할린 현지 조사 첫날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할린한인회를 방문하여 사할린 한인 사회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때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사할린우리말TV방송국 국장,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회장, 사할린주 새고려신문 사장, 경제협력정보대학 총장, 한인여성협회 회장, 박물관 관장 등 사할린 한인 2세들을 만나 사할린 방문 목적과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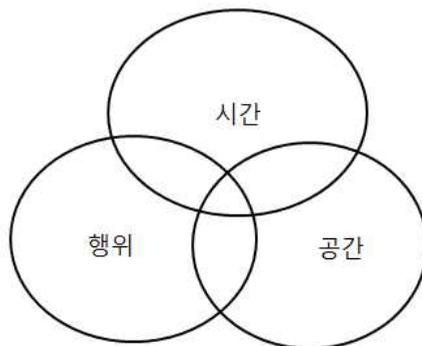
다음 날, 사할린한인회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으로 모든 사회단체장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사할린 한인 문인, 화가, 작가 등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특히 크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올라가 1945년 해방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았다. 셋째 날, 사할린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할린 한인 3, 4세대의 역사캠프'에 참석하였다. 역사 캠프를 떠나기 전에 사할린 희생사망동포위령탑에서 제사를 지냈다. 참가한 청소년 모두 선조들에게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선조들과의 만남을 신고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회의 직원들과 함께 사할린 한인 공동묘지에 참배한 후 시네고르스크 탄광과 박물관 견학을 하였다. 그 당시 치열했던 모

습은 사라졌지만, 역사의 흔적은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시네고르스크 탄광 옆에 사는 90세의 김운덕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인터뷰하면서 당시 그 지역의 한인의 생활상을 추론해 보았다. 넷째 날, 포자르스코예 27인 학살 위령탑에 참배하였고, 향토박물관 견학을 하였다. 저녁에는 박 알렉산드로의 환갑연에 참석하여 현재 사할린 한인들의 환갑 통과의례를 경험하였다. 다섯 째 날과 여섯 째 날, 새고려신문과 사할린우리말TV방송국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고,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생활했는지, 그리고 사할린 한인 민족미디어가 사할린 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한민족 문화의 계승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등 사할린 한인 민족미디어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하였다.

사할린 현지답사는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구자에게는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배경이 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집’, ‘나의 통과의례’는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인 사회 전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의 이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다음은 [그림 III-2]는 사할린 현지 조사에서 얻은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탐구지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2]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지점

아래 [그림 III-3]은 '시간성'으로 남사할린에서 가장 큰 탄광 중의 하나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 한인이 가장 많이 노역하던 시네고르스크 탄광이다. [그림 III-4]는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에 있는 '사할린 희생 동포 위령 기념 조각'으로 한강포럼의 주관으로 최인수가 조각하고 (주)대우건설이 제작하였다(우리말TV방송, 2015). 이곳은 사할린 한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묻힌 곳이다.



[III-3] 시네고르스크 탄광



[그림 III-4]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
'사할린 희생 동포 위령 기념 조각'

아래 [그림 III-5]는 사할린 한국문화센터로 사할린 한인 사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점, [그림 III-6]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자조 공간인 남동사할린센터이다. 이곳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초국가적 이주를 배경으로 한 경험이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 맥락 속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림 III-7]은 사할린 한인 청소년들의 역사캠프, [그림 III-8]은 과거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로동자이다.



[III-5] 사할린 한국문화센터

[그림 III-6] 남동사할린센터



[그림 III-7] 조선로동자
(현 새고려신문)

[그림 III-8]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3.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의 의미가 과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고향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재형성 되는지, 현재의 삶의 모습과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의 맥락을 찾는 것이다. 크레스웰(Creswell, 1998)은 질적 연구에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절성'과 '충분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김영순 외, 2014; 49에서 재인용).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력은 연구 참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Patton, 1990).

따라서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전문가와 사할린 한인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본 연구의 멘토와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내러티브 탐구 특유의 협동이 가능한 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 참여에 적극적이면서 동기가 높은 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본인과 가족의 사진이미지를 공개 가능한 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둔 것은 연구의 참여자의 특징인 우리나라와 생활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미숙으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피하고자 함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하는 사진이미지를 사용함에 따라 개인의 생애사가 상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참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연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첫 연구 참여자는 사할린 센터 회장님의 추천으로 진행하였다. 첫 연구자의 추천을 받아 두 번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12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1차 면접을 마치고 사진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중단을 요청하는 연구 참여자가 발생하여 4명이 중단하였다. 그리고 1인은 연구의 목적에는 적합하고 연구 참여자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지만 연구자의 판단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히고 연구자와 협의로 최종 선택된 5명의 참여자 정보 및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성별	출생 연도	출생	고향	영주귀국 전 거주지	부친/본인의 이주 동기/ 직업
참여자 A(남)	1934년	의성	의성	유즈노 사할린스크	부친: 모집/탄광
연구 참여자 B(남)	1938년	일본	진도	유즈노 사할린스크	부친: 1차: 자유/노동 2차 :징용/탄광 3차: 전환배치/탄광
연구 참여자 C(남)	1922년	울산	울산	유즈노 사할린스크	본인: 징용/탄광
연구 참여자 D(남)	1939년	함양	함양	하바롭스크	부친: 모집/별목
연구 참여자 E(남)	1935년	일본	의성	유즈노 사할린스크	부친: 자유/계절 농업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우선 부친이 먼저 일본 혹은 사할린으로 이주하였고, 이주한 부친을 찾아 사할린으로 간 경우와 사할린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5인 중 3인은 한국에서, 2인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 부친의 이주 경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이 이주 요인은 첫째, 자유이주이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역사와 가정의 경제, 우리나라의 기근이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더 나은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찾아 나서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강제이주이다. 일본의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한인들의 동원이다. 이들은 일본에 의한 강제이주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철도부설, 벌목, 비행장 건설, 탄광 등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비록 이들의 부친들이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사할린을 선택하였다 하여도 결국 이는 강제연행이었다(Kuzin Anatolii, 2014; 박승의, 2015; 박봉수 외, 2015).

아래 [그림 III-9]는 연구 참여자 부모들의 사할린 이주 경로로 초록 점선은 이주 1단계(1930~1938년)에 해당하는 자유이주 루트이고, 빨간 점선은 2단계(1938~1945년)로 강제이주시기 루트이다. 이 두 개의 선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 부모님들의 출발지는 모두 고향 땅 한국이다. 이들의 출발점은 조선이지만 한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동토의 땅에 묻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은 비록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대적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기 풀어내는 이야기는 다르다.



[그림 Ⅲ-9] 한인의 사할린 이주 경로
출처: 사할린주한인회

4. 자료수집 및 분석

4.1 자료 수집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 바덴 사빈과 니커크(Savin Baden & Niekerk, 2007)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현장에서 손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일기형식의 기록을 써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기록은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 시 면담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 느낀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다음 면접에 반영할 내용과 부족한 점 등 반성하며 쓴 현장노트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특히 부모에 관한 이야기에서 많은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휴지도 많았다. 이런 휴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기록하고 연구자의 느낌 등을 기록하여 해석하는 데 반영하였다.

4.1.1 포토텔링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통과의례를 통해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포토텔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포토텔링(Photo telling)이란 포토(Photo)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의 텔링(telling)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사진이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박봉수, 김영순, 2016).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영어교사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

(voice)’ 과 ‘행위(gesture)’ 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 간의 인터랙티브한 과정이다. 쉐리 레인즈(Shirly Raines)는 스토리텔링에는 이야기(story), 청자(listener), 화자(teller)가 존재하고, 스토리텔링은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벤트라고 한다(최혜실, 2006).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식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의미전달 구조이며,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이다. 이는 이야기하기 행위와 이야기 자체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다(고육, 이인화, 2003: 김영순, 2011: 23: 최혜실, 2011).

스토리텔링의 넓은 의미는 공감적 의사소통의 행위로 이야기, 구술적 속성, 현재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특성 중 이야기하는 현재성에 초점을 맞춘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단순히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고, 기억하게 하며, 정서적 몰입과 공감을 끌어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엇(what)과 어떻게(how)를 구별하여 내러티브를 파악하였던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은 모든 내러티브를 ‘이야기(Story)’와 ‘담론(Dicourse)’으로 보았으며 스토리텔링은 ‘담화’ 로 전달된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인물, 환경 등을 포함하며, ‘담론’ 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거나 제시하거나 나레이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이현정, 김미영, 2004:12). 내러티브가 전통적인 ‘이야기’ 를 대상으로 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매체’ 와 결합하면서 이야기하기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광육, 2008).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다양한 매체로 실현되지만 그 바탕에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다양한 매체의 스토리텔링은 비교하는 과정에서 변별적 자질로 사용할 경우 매체의 차이점 외에 요소별로 어떻게 다른지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주체인 화자, 그리고 청자가 행위를 해야 하고, 환경인 시간과 공간이 주체 간에 일치하여야 한다. 즉, 텍스트, 주체의 행위, 시·공간이 핵심이 된다. 텍스트는 '이야기'로, 주체의 행위는 '이야기하기'로, 시·공간의 '이야기판'이라 한다(김영순, 2008). 이때 이야기는 스토리와 매체가 결합하였을 때 실현된다.

서사학(敍事學)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론의 이론과 분석 도구를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구술시대의 '이야기'에서 '글'로, '책'으로 '문학'으로 존재하던 이야기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물'로 보이면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으로 확장된다(김영순, 2011). 내러티브에는 언제나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의 의미 차원과 '의사 전달의 내용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이해되는가'하는 매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매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고 수용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망과 힘을 제공한다(김진희 외, 2015). 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가능성과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가치를 담고 상호 간의 의견 교환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진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내러티브 표현 양식의 하나로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Eisner, 1991). 내러티브 탐구의 틀 내에서 사진을 사용하는 내러티브 탐구 연구가 아이스너(Eisner, 1991)에 의해 제시되었고, 덴진과 링컨(Denzin & Lincoln, 1994)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Eisner, 1991: 백지연, 2014).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도 왕 케롤라인과 브르스 메리(Wang Caroline & Burriss Mary, 1992)에 의해 고안된 포토보이스(Photo voice) 연구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진희 외, 2015: 167). 포토보이스는 사진술과 결합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카메라를 주고 사진을 찍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보기 위함이다(박봉수, 임지혜, 2015; 윤은향,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에 접근하려는 방법과 시각에 관하여 이야기가 향유되는 총체적인 과정을 통찰하는 단계, 즉 이야기의 안과 밖, 이야기의 저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진’과 ‘이야기’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상호작용한다.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대화를 통해 ‘다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대해 깊이 고찰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행한 고향 행위 중 하나인 통과 의례에 얽힌 민족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고향에 대한 상(像)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내러티브 매체로서 포토텔링의 차용은 사진이 가진 객관성과 서술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중성을 담보해 줌으로써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고, 연구 참여자와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넓히는 데 유용하다(김형곤, 2009).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한 자료수집은 사진이 주는 과거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배경으로 한 뚜렷한 사실로 인지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에게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창을 제공한다(박봉수, 김영순, 2016). 어느 한 개인의 삶은 혈연집단을 비롯한 이웃, 마을, 사회,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므로 개인 생애의 기억은 사회적 관계와 공적 가치를 상당 부분 포함한다.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친족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작동 메커니즘까지 드러난다. 따라서 포토텔링을 활용한 연구는 새로운 시각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확장과 개인적 내러티브를 확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용한 포토텔링 기법은 사진이 누구의 사진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새로운 개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소통행위를 유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는 사실적 기록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기록이 갖는 자세한 이야기를, 사진의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풀어내어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포토텔링의 특성은 사진 속 장면을 일깨울 수 있는 여백을 갖게 되어 시간과 기억이라는 보편화한 주제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진들은 일정한 방향성으로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그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기억의 주체에 의해 왜곡이 일어나는 인간 기억의 주관성을 연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매체로한 내러티브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할린이라는 특정한 공간 속에 살아오면서 형성해 낸 가치관과 윤리관, 자연관과 세계관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들이 타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삶의 장으로 옮겨 놓는다.

연구 참여자들이 지닌 오래된 통과의례 경험에 대한 사진이미지는 시간성이 더해져 최근에 찍은 사진과는 다른 역사에서 오는 독특한 깊이의 내러티브를 함축하고 있어 지나간 시간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요소들은 동시에 사진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사진이 제시하는 과거의 시간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현재의 시간으로 시선을 끌어당긴다.

4.1.2 면담

두 번째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다음 <표 III-2>는 심층면담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표 III-2> 심층면담 과정

	성명	1차	2차	3차	4차	5차	추가 인터뷰
1	연구 참여자 A	15.08.12	15.11.06	15.11.22	15.12.06	16.01.11	16.02.06
2	연구 참여자 B	15.08.22	15.09.03	15.12.13	16.01.17	/	16.02.06
3	연구 참여자 C	15.09.06	15.11.11	16.01.05	/	/	16.01.24
4	연구 참여자 D	15.10.06	15.12.23	16.01.14	/	/	16.02.21
5	연구 참여자 E	15.07.21	15.10.10	15.11.06	16.01.11	/	16.01.31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예비조사¹⁶⁾가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형성 기간으로 삼았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할린센터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하였다. 참여관찰을 할 때

16) 2015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서는 「사할린 한인 망향가」라는 특별전을 계획하였다. 위 전시에서 본 연구자는 제3부에 해당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삶’을 주제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명의 생애사를 수집하였다. 특히 자료 수집 중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언급한 역사적 장소와 사건, 인물들의 취재를 위해 사할린 현지를 방문하여 그들의 구술을 통해 나온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확인하고, 그 때 상황을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할린 방문 시 사할린 한인 사회 단체장들을 만나 한인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사할린주의 새고려신문과 우리말TV방송이 가지고 있는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고향과 삶, 그리고 민족정체성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가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까지 연구 참여자를 확대하였다.

면담시간과 횟수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은 추가적인 면담을 포함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모두 개별 면담으로 회당 각각 약 90분~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기본적으로 3회~4회로 구성하였으며, 면담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과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 면담, 통과의례에 대한 포토텔링 기법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고, 연구 참여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자택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택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일종의 라포 형성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배치한다. 연구자가 참여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전시 혹은 부착해 놓은 사진을 보고 누구이며, 언제 찍은 것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와 관련된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적 기억들은 이미 선별적으로 코드화되고 부분적으로 잊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된 정보로 현재 상황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심층면담에서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경험들의 해석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재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전적 기억들이 타당한 것인가? 혹은 축적된 과거의 경험 재현으로써 객관적이고 진실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 하는 나'인 화자는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 경험의 주체인 '이야기되는 나'에 대해 비판적 혹은 해설적 거리를 가지고 성찰하는 것이다.

가브리엘레 루치우스와 아르놀프 데퍼만(G, Lucius-Hoene & A, Deppermann, 2006)은 현재를 축으로 경험의 관련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박용익 외, 2013). 연구자는 이러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 돌아온 고향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 또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기획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1차면담은 이야기 형식을 빌린 사할린 한인들의 일상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처음 만났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인에 대한 긴장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2차면담은 1차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1차면담에서 침묵되거나 공백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으로 대부분 '부모에 관한 것'과 '자신'에 관한 것이다.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님은 언제 사할린으로 이주하였습니까?", "이주하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님께서서는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등이다. 이러한 면담 질문을 통해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기, 생활 환경, 사건, 적응 경험 등 연구 참여자의 성장 배경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3차면담에서는 2차면담 내용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연구자가 해석하기에 오해가 발생할 만한 것에 대한 추가 질문과 연구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 관한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사할린으로 이주하였습니까?", "이주할 당시 누구와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학교는 어디 다녔습니까?",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언제 가장 즐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애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1차와 2차에서는 주제가 '고향과 성장 배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3차면담에서는 생애연보에 의한 '통과의례'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언제 누구와 하였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등이다. 어떠한 통과 의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그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4차면담은 각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수집 정도에 따라 달리 진행하였다. 한인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언제 한국인이라는 것을 느끼는지, 그리고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느끼는지, 문화에 대해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중에 러시아말을 사용하는 때도 있었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대답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 -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것입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가 무엇입니까? 혹은 어떤 의미입니까?" 등과 같이 추가로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대답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심층면접에서 다시 질문하거나, 러시아어권에서 유학 온 연구실의 동료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시간 간격은 연구 참여자가 1차면담 후 자기의 기억과 만나고 자기를 들여다 볼 시간과 자기 안의 것을 해석하게 해주는 시간을 주었다. 1차와 2차, 2차와 3차의 면담 시간은 2주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고령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간 경우, 그리고 갑자기 사할린에 간 경우가 그렇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회기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기분이나 행동 등을 기록하고, 각 면담이 끝나면 그 현장과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2일 이내에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녹취록 작성 시 화자가 바뀔 때마다 고딕으로 표시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를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 B : 일본으로 가는 배에는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은 뭐 그 모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간 사람이 많지요. 파

도가 치면 여자고 남자고 막 서로 끌어안지요. 안 그러면 이리 밀리 가고 저리 밀리 가고 그러지 뭐(-할아버지는 모르는 사람끼리 부끄러운 상태로 있다가 파도 때문에 배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둥켜안기도 하였다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 하시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진하게 웃으셨다)

각 연구 참여자 1인의 1회 면담 전사기록은 A4용지로 약 15매~20매 정도였다. 연구 참여자 5인의 면담 전사기록은 총 385매 정도였다.

질적 연구형태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연구자의 자료수집 기술은 자료의 실질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료 수집에서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수집된 자료 간의 괄호 치기다. 질적 연구 기법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들은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비교 작업은 개별 사례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 또는 해석의 오류를 피하고자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기간 참여자들에게서 나온 자료와 문헌 고찰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사진이미지, 연구자의 성찰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였다.

4.1.3 참여관찰 및 현지조사

세 번째 자료수집은 참여관찰 및 현지조사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하였다. 현지 조사의 목적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관찰하고, 또한 연구자 자신의 행동을 그들의 눈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현지 조사 첫 번째 장소는 남동사할린센터이다. 이곳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영주귀국 사

할린 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포형성이 되어야 한다.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면담을 하더라도 피상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남동사할린센터 현지 조사를 위해 사할린 경로당의 회장을 찾아가 참여관찰 가능 동의를 받고 시작했다.

두 번째 현지조사 공간은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로 2015년 7월 29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다. 연구 참여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 등을 직접 체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 증언 속의 사건이나 장소는 과거이고 이미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남동사할린센터에서의 참여관찰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현지 조사는 그들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으며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연구 참여자들 증언 속의 인물과 사건, 현장을 만나기 위함이다.

4.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이다. 가장 좋은 내러티브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텍스트를 쓰면서 분석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격적인 자료 분석은 쓰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염지숙, 2009).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다(Ezzy, 2002). 이는 이야기에 내포한 하나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과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상화작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 분석방법이 있다(Ezzy, 2002). 그리고 내러티브 안에는 연구 참여자의 삶과 신념, 경험에 대한 해석,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등에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Gribich, 2007).

클래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7)는 이 두 가지 분석방법을 통합하여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해보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는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할 때는 사건 혹은 경험의 시간적 연속성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들이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위와 같은 분석방법을 반영하여 연구텍스트 작성 시 3

차원적인 재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의 증언 속탐구지점에서(Clandinin & Connelly, 2000)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할린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되는 공간으로 간주하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내면적인 상태와 외형적인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되살려 내는 데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과거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이 가족을 포함한 러시아 사회 구성원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낮은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이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독자들이 사할린 한인의 삶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경험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소리도 드러나도록 노력한 결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목소리 또한 점차적으로 뒤섞이는 경험을 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

5.1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연구의 타당도에 대해 헤머슬리(Hammersley, 1988)는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설명은 근거가 있으며 진실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reswell, 2000). 이는 질적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 혹은 객관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연구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연구했나에 가치를 둔다는 것으로 즉,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전략은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분석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는데 있다.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연구자로서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의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 협동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절차의 타당성과 엄격성 확보를 위해 메리엄(Merriam, 1998)의 전략 중 일부를 차용하고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2)이 고안한 진실성(truth value), 적합성(fitness),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충족하기(김영순 외, 2014)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신뢰 형성을 위해 연구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를 작성할 때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참여자가 표현하는 의미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석을 마친 후에는 면접 내용에 대해서 임의대로 의미를 부여했는지,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유도 질문을 삼갔는지,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였는지 등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자는 주제와 관점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의 다양화를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방법, 연구자와 이론을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과의례에 관한 사진이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다원화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수행한 것은 참여자들이 긴 인생을 살아온 고령자라는 공통점과 사진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불러와 현재의 기억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해주는 매체라는 점에서 참여자, 사진, 연구자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셋째,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2)이 고안한 동료검토법(peer examination)이다(신경림,).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기 위해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식견이 있고 연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동료 연구원 3~4명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실에서 열리는 질적 연구를 위한 콜로키움¹⁷⁾을 활용하여 멘토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통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연구자에 의해 섭외된 전문가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외부 감사(audit)를 통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 교수 1인, 대학에서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 1인, 질적 연구 워크숍을 진행하는 박사 후 과정 1인으로부터 각각 지속해서 조언을 받으며 연구진행을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작이나 진행단계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관련 워크숍¹⁸⁾을 수시로 참여하여 연구문제나 연구수행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검토를 받았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텍스트에 대한 구성원 간 검토를 수행하였다. 구성원 간 검토는 '신뢰성을 형성하기 위한

17) 위한 콜로키움은 연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주일에 1회 3시간씩 현재 진행 중인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발표와 코멘트,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질적연구를 위한 콜로키움 구성원은 지도 교수를 비롯하여 2인의 연구 교수, 3인의 박사후 과정, 박사 학위 논문을 진행하는 5인의 박사 과정 원생으로 구성되었다.

18)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에서 주최하는 2015 질적연구방법론 '봄' 과 '가을' 캠프과정에 참석하고 2016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과정에 참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신경림, 1996)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기 위해 포토텔링 기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연구결과와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관점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연구 진행에서 연구자 또한 참여자 확인 작업을 중시하면서 기초 자료인 면담 기록과 잠정적 연구텍스트, 완성된 연구텍스트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주제에 관해 확인하고 자료 간의 불일치된 주제는 참여자들의 새로운 의견과 설명을 듣고 정리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과 원자료 분석 과정 경험을 공유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일치해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5.2 연구 윤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포토텔링과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제시하는 사진이미지를 사용해 면담을 하고 개인의 생애사가 상세하게 노출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삶의 세밀한 부분이 공개될 수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하여 대안을 마련해가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모임을 통해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특징,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나 혜택을 사전에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특히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진 이미지 활용에서 사진은 개인의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 사진을 그대로 제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만 연구에 활용하였다.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설명하고 참여과정에서 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나 중도에 하차할 수 있음에 대해 알려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권지성 외, 2007). 만약 연구 참여자가 면담 중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면담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속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가 연구를 중단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연구자의 사정에 의해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 중 4인은 연구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1인은 연구자의 판단으로 연구 참여자 보호차원에서 연구 중단을 제안하여 제외되기도 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연구 종료 3년 후 원자료를 폐기할 것에 관해 설명한 후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각자의 생애사적 내러티브에 대해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참여자의 시각적 내러티브를 위한 사진이미지의 사용에 관하여 참여자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의견 및 보호를 먼저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구 텍스트 확인을 검토 받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검토를 받았다. 참여자가 연구텍스트를 확인하고 승인할 때까지 수정과 대화를 거듭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시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시간과 정성에 대한 작은 보상의 목적으로 소정의 사례(3만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현재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50608-1AR이다.



IV.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례별 내러티브

1. 연구 참여자 생애사

1.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강제징용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죄스러움 등이 교차한다. 그는 1934년에 의성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1943년에 외아들인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 모집에 응한다. 그의 아버지는 집을 떠날 때 "2년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에 보내줄 테니 어머니를 잘 모셔라."는 당부를 하고 사할린으로 간다. 하지만 그는 1944년 10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 탄광으로 간다.

사할린으로 가기 위해 고향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탄다. A의 어머니는 사할린으로 가면서 주식으로 쌀을 볶아 가지고 간다. 그의 기억은 배에서 따뜻한 물에 볶은 쌀을 불려서 먹은 것과 배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았던 생각,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떼를 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일본에 갔다가 다시 기차와 배를 타고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간다.

그는 아버지가 일하는 탄광 옆의 탄광촌에서 '료'라는 함바집에서 살았고, 늘 배가 고팠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석탄이 묻은 까만 얼굴이다. 그의 삶은 갖가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온갖 역경을 헤쳐 온 사할린 동포의 역사 그 자체다.

“44 , 45년도에는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한국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걸 강제노정, 강제징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18, 19살 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지고 지금 이름도 모르고, 묘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중략)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에 가고 싶어 고향, 고향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말로는 표현이 어렵지요. 특히 우리 사할린 한민족한테는 딴 민족보다도 ‘고향’이라는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15.08.12).

그는 부모들의 고된 생활 덕택으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사범대학에 다닐 때 지금의 부인을 만난다. 그의 아버지와 부인의 아버지는 동향 사람으로 의형제지간이었다. 연구 참여자 A와 그의 부인은 사할린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학교도 같이 다녔다. 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1958년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조선 여자와 결혼하여 1남을 두었다. 그러나 차남이 로국(러시아)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2년 동안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손자가 2살이 되어서 며느리로 인정한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년퇴임을 하기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으며, 정년퇴임 후에는 사할린주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역임하다가 2007년 영주귀국하였다.



[그림 IV-1] 1947 탄광촌의 아이들



[그림 IV-2] 향수



[그림 IV-3] 조선의 희망



[그림 IV-4] 조선인 수학 교사



[그림 IV-5] 목련꽃 닮은 그대



[그림 IV-6] 어느 봄 날

위의 [그림 IV-1]은 연구 참여자 A의 13살 때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맨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연구 참여자 A다. 그리고 맨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금의 부인이다. [그림 IV-2]는 연구 참여자 A가 뽀로나이스크 사범학교 조선과에 다닐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

는 사진이다. [그림 IV-3]은 대학을 마치고 우글레고르스크 탄광촌의 조선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 사진이다. [그림 IV-4]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시절이다. [그림 IV-5]는 그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며 [그림 IV-6]은 둘째 아들을 낳고 친구 가족과 나들이 가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제사와 명절 등을 중요시 하고 중요한 행사는 음력으로 한다. 지금도 러시아에 사는 자녀들이 이사를 할 때는 손 없는 날로 날을 잡아서 이사하게 할 정도로 고향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청소년들에게 사할린의 역사에 관해 설명해주고 싶어 한다. 그는 현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에 산책을 하거나 경로당에 가서 체스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1.2 연구 참여자 B

“ 오니까 어떠냐고요? 편하고 좋지요. 일 안 해도 먹여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몸이 편하다고 마음도 편한 게 아니에요. 사할린에 있을 적에 고향, 고향, 그저 고향에 간다는 거 그거뿐이었지요. 막상 고향에 와 보니 우리가 거기서 생각한 고향이 아니야.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 키우며 옥식각신하고 산 사할린. 자식들 보고 싶을 때 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쓸모가 있구나 하고 느끼는 곳이 내 고향인 것 같소.(중략)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할린이 내 고향인가보다 하고 사할린에 가면 한 달도 못 되어 여기에 오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좋아요. 그 마음은 아마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यो.”

연구 참여자 B는 8남매 중 장남으로 1938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 5살 때까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누님, 여동생과 같이 일본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를 위해 1943년에 사할린으로 이주한다. 그의 부친은 4번의 이주 경험이 있는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 강제이주가 아닌 자유 이주로 일본으로 간 것이 첫 번째 이주다. 그리고 어느 날 고향에 사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위해 한국에 왔다가 강제징용을 간 케이스가 두 번째 이주다.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의 쿠릴열도로 전환배치를 당했을 때가 세 번째 이주, 그리고 다시 사할린으로 이주한 것이 네 번째 이주다. 그의 부친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다시 일본에서 사할린을 오가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

연구 참여자 B는 1944년 6살 때 부친을 찾아 사할린으로 갔다. 그는 3년 동안 일본 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학교가 폐교되어 다시 조선 학교에 다녔다. 10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별목장에서 막노동한다. 별목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철도회사에 들어갔다.

1965년 지금의 부인을 만나 3녀를 두었다. 그는 딸이 셋인데 모두 한국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자녀 3명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아 조선 사람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한인'이라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는 철도회사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그의 부인은 방직 공장에서 바느질 기술자로 일하다가 2007년에 영주귀국하였다.



[그림 IV-7] 소풍



[그림 IV-8] 아이와 손녀들의 고향

위의 [그림 IV-7]은 그의 장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사진이다. 맨 앞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그의 장녀다. 연구 참여자 A는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사한 후 다시 재결합을 한다. [그림 IV-8]이 그의 일생이 담긴 집이다. 이집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는 결혼을 하여 이집에서 손녀를 낳다. 손녀는 지금도 이집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소년들에게 추억이 가득 담긴 고향을 주고 싶어 한다.



[그림 IV-9] 운동대회 우승 기념



[그림 IV-10] 농촌 봉사활동

위의 [그림 IV-9]는 그가 회사에 다닐 때 운동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한 기념사진이다. 그리고 [그림 IV-10]은 회사 다닐 때 농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가서 찍은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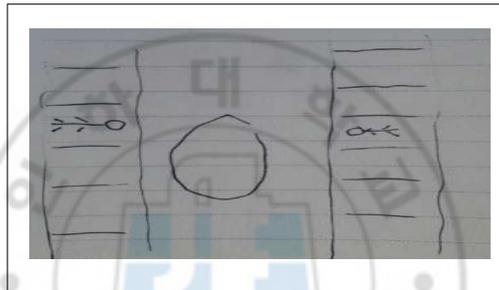
그는 현재 사할린센터에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을 대신해 한 달에 한 번 러시아영사관에 가는 업무를 맡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찾은 고향,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과 이웃과 어울려 사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며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는 할머니의 제사, 부모님의 제사, 그리고 장인, 장모의 제사까지 지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조상의 제사나 명절이 되면 연안부두에 가서 바다를 향해 절을 한다. 그가 바다에 절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1.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의 내러티브에는 강제이주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20세 청년에 멈춰 선듯하다. 그는 올해(2016년) 94세로 1922년 울산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징용의 상황에 놓인 형을 대신하여 1942년에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1945년 해방 전까지 탄광에서 일하였다. “탄광의 숙소는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아래 [그림 IV-11]과 같이 그려주었다. [그림 IV-11]은 연구 참여자 C가 직접 그린 당시 탄광의 숙소이다.



[그림 IV-11] 연구 참여자 C의 탄광 숙소

그는 손에 힘이 없어 비뚤거리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야기 도중 그의 기억을 자극하는 한 단어 ‘탄광’에 머무르자 별떡 일어나더니

“ 이제 쪽 자지. 이제 이거 난로 여기 있으면 요렇게 복판에는 난로, 이렇게 쪽 놓고. 복판에는 여기 난로 놓지, 이렇게 한 방에 5~60명 자지.”(를 그림으로 그리신다. 힘이 없어 뻘뻘하지만 온몸으로 표현해주셔서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저렇게 온 힘을 다해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자의 기록).

하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마시려고 떠다 놓은 물이 퐁퐁 얼 정도로 추운 기억과 항상 배고픔에 시달린 기억을 꺼내었다. 탄광에서 일할 때 배급을 받은 도시락에는 쌀보다는 콩이 더

많았고, 반찬은 무 2조각에 멸건 국이 전부였다고 기억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이 폭발하여 폐광되었다.

양복점에서 일할 때 친구의 소개로 장인어른을 만나고, 장인 어르신의 눈에 들어 결혼한다. 그는 1952년 30살에 19살 어린 신부를 만나 3남 1녀를 두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신념으로 무국적자로 지내다가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다. 소련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적을 바꾸지 않겠다는 연구 참여자 C의 고집 때문에 이혼하기로 마음마저 먹었다는 부인의 이야기도 있다.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갑자기 별떡 일어나더니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리랑’을 부른다.

아리 이히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 간다~
아주까리~ 동백은,,,

까먹었네(웃음).

아주까리 동백은 마라 산골에 그늘에 산울어 난다~
여러는 콩밭으로 왜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 간다~

젊을 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아서,,, 이제는 틀렸어.(중략).

그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미일까? 연구 참여자 C에게 ‘아리랑’이 무엇이길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리랑을 불렀을까? 사투리, 정확하지 않은 음정 박자, 가물거리는 기억을 더듬어 부른 아리랑은 그에게 조국이요, 고향이요, 어머니이다.



[그림 IV-12] 고단함을 내려놓다



[그림 IV-13] 삶의 의미



[그림 IV-14] 고향 땅을 밟다



[그림 IV-15] 내년에도
이날이 오길

위의 [그림 IV-12]는 연구 참여자 C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이다. 모두 조선 사람들로 실항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림 IV-13]은 그가 힘든 세파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되어준 자녀들이다. [그림 IV-14]는 1991년에 찍은 것으로 그가 약 50년만에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은 날이다. 그는 고향 땅이 너무도 낯설어 평평 울면서 영주귀국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림 IV-15]는 2015년 가을 그의 94세 생일에 찍은 사진이다. 연구자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을 때 그와 그의 아내는 눈물을 보였다. 아마도 사할린에 있는 자녀들이 그리워서일 것이다.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오늘과 같은 날이 오길 기도하

며 촛불을 끈다.

그는 귀가 어두워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만 쉽게 알아듣는 정도다. 그의 귀가 어두운 만큼 목소리가 높았다. 연구 참여자 C는 귀가 어두운 편이라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인터뷰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 즉, '탄광'에서 있었던 경험에 가서는 묻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20세의 젊은 연구 참여자 C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탄광'에 대한 아픔이, 한이 된 것이 아닐까?

연구 참여자 C는 연구자에게 “이름이 뭐여?”라고 물었다. 연구자가 이름을 말하자 “여기에다 써.”라고 한다. 연구자의 이름과 성, 본, 고향, 자녀 여부, 사는 곳 등을 물어보고 써달라고 하였다. 흰 종이에 썼더니 하나하나 읽어보고 반듯하게 접어 셔츠 앞주머니에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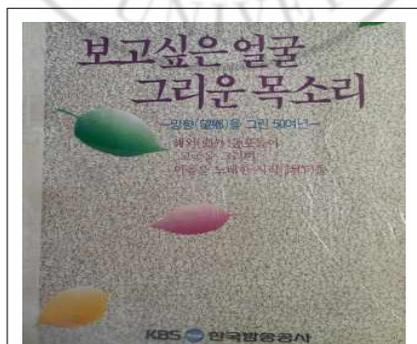
그가 스스로 연구자와 한 행위는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인사에 관한 한인의 문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연구자와 1년 정도 만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 관한 관심과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2007년에 영주귀국하였다. 그는 날이 더운 여름에는 오전 9시에 1시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겨울이 되면 오전 10시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세상과 이야기 한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그는 사할린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가 이야기할 시간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그의 내러티브가 필요한 이유다.

1.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1939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1942년에 사할린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부친은 모집으로 사할린에 간다. 그는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베타리 회사에 다닐 때 결혼을 하였다.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3살 때 사망하였다. 차남은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사람과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2009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하바롭스크로 이주하여 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는 일을 했다.

그의 부모님은 북한 국적을 받으면 조선으로 갈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북한 국적을 받고 장남을 데리고 입북을 하였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조선으로 갈 수 없게 되자 화병을 얻어 사망을 하고 이산가족이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정년퇴임을 하고, 1993년부터 하바롭스크 한인이산가족협회에서 이산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한다. 1993년 전수조사 당시만 해도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고, 대부분 고향에 돌아가기를 희망하였고, 고국으로의 귀국은 삶을 이어갈 또 다른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IV-16]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사람을 찾습니다.

K-1TV 오전 8시 30분, 헤어진 가족을 찾겠다는 이산가족 50명을 대상으로 그 사연과 함께 시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방송된다(한겨레/1990.01.11 기사).

다. 그의 부모님과 형은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바람이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림 IV-20]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로 영주귀국하지 않은 사할린 한인의 명부다. 그가 이산가족협회에서 일할 때 영주귀국을 둘러싸고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산가족협회에서는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의 영주귀국을 추진하였는데 사할린 한인 중에 공산당 당원이 된 몇몇 사람들의 방해로 일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으로의 귀환을 절대적 목표로 삼은 1세대와 러시아에서의 삶을 살아갈 2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 즉, 영주귀국제도가 만든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영주귀국은 한편으로 가족의 이산을 선택해야 함을 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에 부인과 영주귀국하여 인천에 거주하면서 '강제징용 노무자 보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1.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에게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1945년 해방 당시로 돌아가 이렇게 시작하였다.

“ ? 고향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니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야~ 하면서 노래 부르고, 팽과리를 치고, 돼지, 소, 말 다 잡아서 먹고 매일 잔치를 했어요. 았으나 서나 고향 갈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 1년이 되어도 찾는 사람이 없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고, 술 마시고 고래고래 아버지 이름 부르다, 형님 이름 부르다, 고향을 부르짖다가 미쳐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중략). 한국 정부에서 지 자식들을 모두 버렸어요.

우리 환경이 그런 밑바닥 생활이 없었지. 참 모래밭에 서서, 내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 사람들 속에서 하루는 어떻게 지내며, 일 년을 어떻게 지낼까? 생사의 고난이라는 게 눈앞에 부글부글했고 큰 꿈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여지가 없었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일제시대에는 강제징용으로 부모자식 간 생이별을 시키더니, 이제는 영주귀국으로 부모 자식 간 생이별하고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15.06.25).

연구 참여자 E는 7남매 중 장남으로 1935년에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고향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에 “내 고향은 의성이다.”라고 한다. 이는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니들 고향은 의성이다. 잊지 말아라. 니들이라도 내 고향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 E의 고향은 ‘일본’이 아닌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의성’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E의 부친은 고국이 어려울 때 직업을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였다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1941년 대동아전쟁 때 사할린으로 갔다. 할머니, 큰아버지, 삼촌 그리고 4남매 모두 같이 살았다. 그의 부친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한인에 비해 초기 적응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 철수하고 러시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의 고초는 더욱 컸다.

연구 참여자 E는 사범대학¹⁹⁾을 졸업하고 체육 교사로 15년 근무한 후에 사할린주 조선어라디오방송국의 아나운서를 역임하였다. 조선어라디오방송국은 1956년 10월 1일 창설된 유일한 자국어방송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²⁰⁾. 조선어라디오방송은 우리 동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러시아 국가의 정책 방침을 전달하고, 선진 문화를 홍보하며 과학문화 지식을 보급하는 주요 기반이었으며 한인들의 정신문화를 동화시키려는 수단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는 아나운서를 하다가 사할린 한인 1세들의 영주 귀국을 돕기 위해 이산가족회에서 활동하였다. 후에 부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러시아통역으로 일하였다.



[그림 IV-21] 꿈을 심는 아이들



[그림 IV-22] 조선 소인연예단

19) 1945 해방이 되기 전에는 일본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러나 해방이 된 후 조선학교가 세워져 무학년제로 시작을 하였다. 소련이 조선학교를 설립한 것은 한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었고, 우리의 글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한 소련 정부의 수단이었지 한인의 조선말과 조선 글을 인정해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조선학교는 1953년에 폐교됨으로 사할린 한인 자녀들은 다시 러시아 학교에 들어가 수학해야만 하였다(한국이민사박물관, 2015).

20) 사할린주에는 우리말로 된 새고려신문과 우리말TV방송이 있다. 소비에트 연방시절에 러시아 정부는 한인 민족 미디어를 한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 민족 미디어는 우리의 글과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체이자 소련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한인 민족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전략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Kuzin Anatolii, 2014; 배빅토리아, 2015; 김영순 외, 2015).

‘꿈을 심는 아이들’ [그림 IV-21]은 1951년에 찍은 사진으로 학교 임원들과 찍은 사진이다. 앞 줄 중앙이 연구 참여자 E이다. [그림 IV-22]는 ‘조선 소인연예단’ 활동사진으로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연구 참여자 E다. 그는 체육 교사로 제직하면서 ‘조선 소인연예단’을 조직하여 방학이 되면 각 지방으로 순회공연을 다닌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에게 향수를 달래주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조선인의 계몽 운동을 위함이다.



[그림 IV-23] 체육 교사



[그림 IV-24] 고향에서 만난 동창생

[그림 IV-23]은 그가 체육교사로 일할 때 축구 대회에 가서 찍은 사진이다. 앞에서 다섯 번째가 연구 참여자 E다. [그림 IV-24]는 사범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2012년에 고향에서 동창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시를 회고한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청춘으로 돌아가 다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다. 맨 앞줄 가운데가 당시의 조선학교 선생님이고, 그 옆이 연구 참여자 E다. “낙엽이 되어 돌아왔다”는 그는 2007년에 영주귀국하여 현재 남동사할린센터 사할린 경로당의 회장을 맡고 있다.

2. 통과예별 내러티브

고향 설(故鄉雪)

작사 : 김다인

작곡 : 김해송

노래 : 백년설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깊은 밤 날아오는 눈송이 속에 고향을 불러보는
고향을 불러보는 젊은 푸념아

소매에 떨어지는 눈도 고향 눈
뺨 위에 흩어지는 눈도 고향 눈
타관은 낮설어도 눈은 낮익어 고향을 외워보는
고향을 외워보는 젊은 한 송이.

이 눈을 붙잡아도 고향 냄새요
저 눈을 붙잡아도 고향 냄새세
내리고 붙잡아도 모란 눈 속에 고향을 적셔보는
고향을 적셔보는 젊은 가슴아.

어느 날 사할린 경로당에 갔는데 연구 참여자 중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고향설(故鄉雪)'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다. 연구자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 옆에서 서서 우두커니 보고만 있었다. 노랫말 가사를 보니 그동안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들어오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가슴이 아팠다. 어르신은 노래를 다 부르시고 마이크를 내려놓으시면서

“이 노래가 요즘 내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인데 아무 때나 부르지 않고, 고향이 그리울 때,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그리고 힘이 들 때면 부르던 노래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부르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실 때는 이 노래를 왜 부르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중략) 사할린의 눈이 그리워요. 사할린에는 눈이 많거든.”(연구 참여자 E, 16.01.31.)

‘고향설’은 1940년대 노래로 고향을 떠나 타관 객지를 떠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잘 묘사한 노래다.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눈을 보고 고향 생각하고, 얼마나 부모·형제가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하얀 눈을 보고 울었을까? 연구 참여자 E는 지금 왜 사할린의 ‘눈’을 그리워할까?



본 장은 연구 참여자는 5인의 통과례 경험을 출생, 혼인, 환갑, 죽음 순으로 기술하였다. 다음 <표 IV-1>은 연구 참여자의 통과례별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표 IV-1> 통과례별 내러티브

	출생	결혼	환갑	죽음
참여자 A	나의 금단지	달달한 어머니 냄새	가족, 두터운 울타리	/21)
연구 참여자 B	/	/	고향을 만들다	꽃신 신은 할머니
연구 참여자 C	올릴 수 없는 내 아이들	조선 여자와 양복쟁이	효부, 로국 며느리	/
연구 참여자 D	아가 뭐 잡았지?	/	/	가슴에 묻다
연구 참여자 E	/	연지곤지 찍은 색시	낙엽이 되어 돌아오다	아버지의 유언

이와 같이 비슷한 시대적·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이 각기 풀어내는 이야기는 다르다. 위의 <표 IV-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 A가 경험한 출생, 혼인, 환갑, 죽음에 관한 통과례 중 출생, 결혼, 환갑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B의 통과례 경험 중에서 환갑과 사망에 관한 경험을. 그리고 연구 참여자 C의 통과례 경험은 출생, 혼인, 환갑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연구 참여자 D의 이야기는 출생과 죽음에 대해. 연구 참여자 E의 경우에는 결혼과 환갑, 그리고 죽음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에 따라 어떤 연구 참여자는 세 가지의 경험이 기술되었고, 어떤 참여자의 경

21) 내러티브는 연구 참여자 5명의 것을 모두 읽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중에 내러티브가 풍부한 것만을 선별하였다. 어떤 연구 참여자는 3개의 통과례를 기술하였고, 어떤 참여자는 두 개의 내러티브를 기술하였다. 통과례 내러티브에서 제외된 것은 위의 < IV-1> 통과례별 내러티브에서 // 과 같이 표기하였다.

험은 두 가지의 통과의례 경험을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통과의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의 통과의례뿐만 아니라 가족의 통과의례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 통과의례에는 부모님의 사할린으로의 이주 배경과 적응 과정에서의 삶과 경험, 연구 참여자 자신의 출생에서 영주귀국까지의 삶과 경험, 그리고 영주귀국 후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적응한 이(異) 문화의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과 영주귀국 이후 현재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다음에 전개될 내용은 각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통과의례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이야기 형태로 쓴 것이다. 연구 텍스트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목소리와 연구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경험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내러티브로 재구성한 것이다.



2.1 출생 내러티브

2.1.1 나의 금단지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 경험 중 자녀의 출산과 돌에 관한 내러티브는 가장 중요한 의례이자 그들 삶의 기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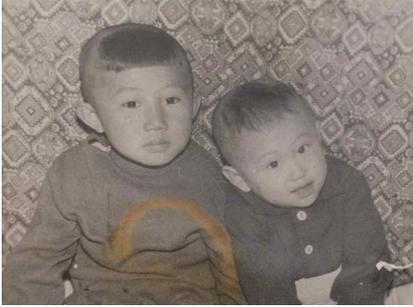
[IV-25]딸 백일
(연구 참여자 D)

“우리 큰아들 백일이예요. 백일잔치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 그 때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일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팔단자하고 백설기 하고, 목에 실타래를 걸어주고.(중략)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니까 부모님들이 고향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했지.”(15.12.06).

“부모님들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했지, 그게 효니까. 우리 큰 애가 뭐를 잡았지? 야, 생각이 가물가물하네. 큰 애가 실을 잡았던가? 둘째가 실을 잡았나? 암튼 누가 실을 잡았는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실을 잡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돈을 안 잡고 실을 잡은 것도 좋지.”(연구 참여자 A, 15.11.22)

[그림 IV-25]는 1959년에 찍은 연구 참여자 A 장남의 백일 사진이다. 그가 기억의 창고에서 꺼낸 아들은 우량아로 옷을 입히지 않고 남성을 드러내 놓고 찍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진이미지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부인이 뒤에서 잡고 옷을 입히고 찍은 사진이다.

연구 참여자 A의 부모님은 손자의 백일에 미역국을 끓이고 상에 백설기와 수수 팥떡을 해서 손자의 무병을 기원한다. 생일에 돌잡이를 했는데 아들 중 몇째가 실을 잡았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돈을 잡아 어른이 되었을 때 당신들처럼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 마음과 “돈을 안 잡고 실을 잡은 것이 다행이다.”라는 말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림 IV-26] 아들의 돌
(연구 참여자 A)

“ 들쨌요. 우리 때는 의술이 약 해서 애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한 살 되어야 이름도 짓고, 잔치도 했어요. 집안에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초상집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22).(중략)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지. 우리는 먹고 살기 정말 바빴어요.”(16.01.11.)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실질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부모와는 이별하여 홀로 사할린에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한 고향에서 행하던 방식으로 돌 의식을 행한다. 연구 참여자 A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몇 가지 금기하는 것이 있었다. 임신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등을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연구 참여자 A가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하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전수한다. “먹고 살기 바빴다.”에서 ‘바쁘다’의 의미는 ‘힘들었다’는 말의 사할린 말이다.



[그림 IV-27] 딸 돌
연구 참여자 A

“나한테는 금단지요. 아들만 낳다가 딸을 나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어요. 돌잔치 할 때 친척, 이웃집들이 다 모여 구경하죠. 실 놓고, 연필 놓고, 그다음에 아 그 돈, 하하 지금도 사할린 풍습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내 손자 손녀들은 백일도 하고, 돌잔치도 해요. 증손자 돌도 해야지.”(15.11.22.)

22)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계기마다 치르는 중요한 의례를 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훈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일생의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속신을 통해 가르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신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체계의 언어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김시덕, 2011).

그에게 딸은 ‘금단지’다. 그는 아들만 낳다가 막내딸을 낳는다. “내 아내는 딸을 낳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한다.”로 표현하며 딸의 출산에 대한 감회에서 증손자에 대한 기대와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이어진다.

“ 돌잡이를 했지. 우리 손자가 손가락을 덩석 잡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손자들은 지금도 내가 간다면 “할머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할머니가 만든 김치 먹고 싶다.”해서 김치만 만들어 가지고 가요.(중략) 금쪽같지.”(연구 참여자 A, 15.12.06.)

“우리 작은 아들의 손자는 낳는 것도 돌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들이 의대에 다니다가 갑자기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2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중략) 그 손자가 커서 의과대학을 나와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내과 의사예요.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손자도 의사니까 좋지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연구 참여자 A, 16.01.11.)

연구 참여자 A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도 섞여 있다. 그는 내 아이의 돌에 관한 이야기보다 손자의 돌 얘기에 점점 더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그의 기억에서 꺼낸 큰아들의 손자 돌과 둘째 아들의 손자 돌로 이어진다. 큰 손자는 돌잡이에 때 손가락을 잡아서 돌에 참석한 가족과 친척들이 한 바탕 웃음바다가 된다. 그러나 둘째 손자의 돌에서 연구 참여자 A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후회가 나타난다. 둘째 아들의 손자 돌에 대한 내러티브는 당시 사할린 한인들의 결혼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둘째 아들은 러시아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 러시아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한다. 그는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반대하지만 둘째 아들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고 결혼하여 손자를 출산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 A는 둘째 손자의 출생도 축하해줄 수 없었으며, 손자의 돌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둘째 손자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아쉽다. 그리고 그 손자가 결혼을 할 때에는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손자의 결혼

을 축복해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진다.

2.1.2 야가 뭐 잡았는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식들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하고 돌잡이를 했다. 하지만 몇째가 무엇을 잡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그리 선명하지 않다.



[그림 IV-28] 딸 백일
(연구 참여자 D)

“ 우리 딸 백일 사진이에요. 첫 아들을 1년만에 잃었어.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나면 되는 거지. 처음 얻은 딸이라 좋았지.(중략) 어머니가 직접 떡 해주고, 팔단자 해서 나눠먹고, 그 때는 그계 옷을 입고 힘든 줄도 몰랐고. 우리 어머니는 빨리 아들 나라고 성화였는데 (15.12.23.)

1963년 연구 참여자 D의 딸 백일사진에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불러온다. 당시 사할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아이를 낳으면 1년이 안 되어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래서 사할린 한인의 경우 대부분은 100일 잔치를 하지 않고 1년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한다. 연구 참여자 D도 첫 아이를 실패했기 때문에 딸의 출산은 매우 의미 있다. 백일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미역국을 나누어 먹으며 딸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한다.²³⁾ 특히 연구 참여자 D의 어머니는 손녀의 백일을 맞아 수수 팥떡을

23) 산과 바다는 한국과 비슷하여 산에는 나물이 많고, 바다에는 미역이 많았기 때문에 출산, 생일, 돌에는 미역국을 나누어 먹었다. 사할린의 한인들은 한국과 비슷한 풍토에서 먹을 거리를 찾아 나름의 식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할린 한인들은 밥과 국, 김치를 주로 하여 밥을 먹고, 의례가 있을 때는 떡과 정과를 준비하며 김치, 국수, 개장국을 타민족에게 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역국, 돌잡이, 폐백과 회갑, 염습과 발인 등 한국 문화가 다수 보존되고 있다(황선익, 2012. 283; 정진아, 2011, 396).

하여 부엌과 화장실 등에 놓아 잡귀를 물리치는 의식은 손녀가 무병장수 하길 바라는 마음과 고향에서 하던 관습이다. 첫아들을 잃은 뒤에 얻은 딸의 명이 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그림 IV-29] 아들 돌
(연구 참여자 D)

“ 그렇지만 우리 사할린에 서는 아들을 나면 대를 잇는다하여 모두 좋아했지. 그리고 보통 딸의 돌 보다는 아들의 돌을 크게 했어요. 부모님이 계실 때니까 이렇게 했지. 아들이 잘 생겼었어요. 착하고 잘생 기면 뭐해. 명이 짧아서.(중략) 근데 야가 뭐 잡았던가? 생각이 가물가물 하요.”(16 .01.04.)

[그림 IV-29]는 1963년에 찍은 연구 참여자 D 아들의 돌잡이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부모보다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있다. 연구 참여자 D는 이 사진을 보자 아들의 돌에 대한 기억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에 대한 야속함이 앞선다. 그의 차남은 2009년에 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한다. 아들의 사망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 했고 돌잡이에서 무엇을 잡았는지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은 먼저 간 아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림 IV-30] 손자 돌
(연구 참여자 D)

“우리 손자 돌 때 처음에 연필을 잡았 어요. 그러더니 다시 돈을 잡았어요. 하 하하, 나야 연필도 좋고, 돈도 좋았지. 올해 25살 되었는데 지금도 할아버지만 찾아요. 아기였을 때부터 할아버지만 따 라다녔거든, 애한테는 그저 내가 최고지. 지금도 스마트 폰으로 매일 영상통화 해 요. 하하하.”(16.01.04.)

연구 참여자 D에게 손자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소통하게 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윤희유다. 연구 참여자 D의 돌에 대한 내러티브는 손자들에 대한 사랑이 생생하게 기억되면서 행복하게 되살아난다.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애뜻함이 배어있다. 손자는 돈과 연필을 잡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준다. 손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지금도 할아버지의 안녕을 걱정하는 착한 손자다. 그런 손자가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해 더욱 애통하다. 손자가 빨리 결혼하여 증손자를 낳아주면 좋겠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더욱이 그 고향을 떠남이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함 역시 타의에 의한 것일 때 고향의 그리움과 생각은 더욱 크고 간절한 것처럼 손자의 돌사진은 자주 만날 수 없는 손자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온다.



[그림 IV-31] 돌잡이
(연구 참여자 D)

“ 돌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꼭 했지. 야가 돈 잡았소, 보세요. 돈요. 가위도 있고 실도 있고, 연필. 젤 침에 딴 거 잡았는데, 젤 침에 뭐 잡았던가? 젤 침에 딴 거 잡았다가 두 번째는 돈 잡았어요. 부자 되면 좋겠지. 이제 다 커서 대학 다니고 방학이 되면 여기 와서 1달씩 놀다가요.”(16.01.14.)



[그림 IV-32] 손녀 돌
(연구 참여자 D)

“야가 벌써 시집갔어요. 모델이요. 지그 엄마 닮았지. 정말 이쁘요. 러시아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요. 우리 애들 때보다 손녀들이 더 이쁘요. 우리 애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어찌 살았는지 기억도 없소.(중략) 여름에 왔다 갔어요. 보낼 때 서운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16.01.14.)

연구 참여자 D는 손녀의 돌 사진에서 내 아이들의 돌을 상기하지만

내 아이 돌에 대한 기억은 손녀의 돌만큼 선명하지 않다. 내 아들의 돌에는 어머니가 돌복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돌잡이에서 실을 잡는 아들을 기억한다. 그는 손자, 손녀들의 돌이 되면 자연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돌잡이를 한다. 그가 손녀의 돌잔치를 한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이다. 한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 그는 1992년에 고향방문단으로 고향을 방문했을 때 남대문에 가서 손녀의 한복을 사서 돌날에 입힌다. 그 손녀가 자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델이 되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는 소녀들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손녀의 돌사진을 통해 손녀와 같이 사는 미래를 꿈꾼다.

2.1.3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내 아이들

연구 참여자 C에게 자녀의 '출생'에 관한 질문을 하자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애들 사진은,,,," 하면서 말을 시작한다.

“ 큰 아들이가 1952년 8월 29일생, 그리고 둘째 딸이가 1953년 6월 26일생. 이렇게 일 년에 애가 둘이 되어버렸지. 내가 피붙이 하나도 없이 홀로 사할린에 가서 고생하다가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했어. 내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났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지. 자식을 낳고 보니 부모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 고향을 향해 절을 했지.(중략) 고향에 있는 내 호적에 자식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연구 참여자 C, 15.09.06.)

연구 참여자 C는 1943년 당시 20세에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되어 30세에 결혼을 하고, 31세에 아들을 낳았다. 처음으로 '내 가족, 내 피붙이'가 생겼다. 그는 아들을 낳았을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더욱 간절해진다. 그는 첫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을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라며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내 아이의 이름을 고향에 있는 내 호적에 올리고 싶었다. 그러므로 큰 아이가 소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국적으로 지낸다. 만약 소련 국적을 받으면 고향에 갈 수 없고,

영영 소련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두려움에서다.

“ 애들이 넷을 낳는데 마냥 좋아할 수 없었지. 이 사람이 동생들 여섯 명 키우라, 우리 애들 네 명 키우라 정신이 없어서. 장모님이 일본 사람인데 동생들만 남겨 놓고 죽었어. 56년도, 몇 살이지? 39살에 돌아가셨어. 돌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먹을 게 없어서 언 감자를 주어다가 녹여서 죽 끓여 먹었어.”(연구 참여자 C, 15.09.06.)

연구 참여자 C의 '출생'에 관한 내러티브에서 당시 어려웠던 한인의 생활을 불러온다. 그의 부인은 7남매의 장녀로 사할린에서 태어난다. 장인은 제주도가 고향이다. 장인은 1943년 징용으로 사할린에 갈 당시 기혼자로 이미 자녀가 세 명이 있었다. 장인은 1943년에 일본 여자를 만나 두 번째 결혼한다. 일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일곱 명의 자녀를 낳았다. 장모님은 1945년에 해방이 되어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C의 장인은 “고향으로 갈 수 없다면 일본에 가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살겠다. 일본에 가고 싶으면 애들 다 놔두고 혼자 가라.”고 해서 장모도 자녀들과 헤어질 수 없어 일본으로 귀향을 포기하고 사할린에 머물게 된다.

장모는 사할린에서 살다가 1956년에 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한다. 그 때 연구 참여자 C 부인의 나이 25살. 그의 부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동생들을 돌본다. 자신의 자녀 네 명, 동생이 여섯 명. 먹을 것이 없어 남이 버린 언 감자를 주워서 물에 담가 녹말을 만든 다음 떡을 해서 먹고 죽을 끓여 먹으며 고단한 생활을 한다. 너무 어려워 아이들의 돌다운 돌잔치를 해준 것 같지 않고, 사진도 찍어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과거는 연구 참여자 C의 기억창고에 향수로 남아 있다.



[그림 IV-33] 입양한 손녀
(연구 참여자 C)

“ 입양한 애예요. 좀 더 기다리면 좋을 텐데 안 생기니까 얼른 입양하더라고요. 금방 난 애를 데리고 왔어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었는데 조선 사람이라 그런지 당기나 봐요. 아주 착해요.(중략) 명이 길라고 실도 놓고 했는데 공책을 잡았지. 하하하 아마 교수 나올 거야.”(15.09.06.)

[그림 IV-33]은 연구 참여자 C의 손녀 사진이다. 연구 참여자 C의 막내아들은 결혼하여 자녀가 없자 딸을 입양한다. 입양한 손녀와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C가족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 부부가 결정한 일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돌잡이를 하였는데 손녀가 연필을 잡아 커서 어른이 되면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준다. 손녀가 자라는 과정을 보고 ‘조선 사람’이라 그런지 정이 가고 이제는 가슴에 품을 수 있다. 그는 고국방문단으로 한국에 왔을 때 남대문에 가서 손녀 돌에 입힐 한복을 사서 선물한다. 손녀가 입고 돌잡이를 할 생각에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것이 미안하다.



[그림 IV-34] 증손녀돌
(연구 참여자 C)

“우리 애들 것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우리 아 4명에 우리 동생들. 아이고 고생스러워라.(중략) 우리 증손녀요. 이쁘지요? 돌 때 다 한복 입히고, 수수팔단자를 해서 액운을 쫓고, 지그 할머니가 로국 사람이라도 다 우리식으로 했어.”(15.09.06.)

연구 참여자 C는 ‘손녀’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지나온 어려웠던 경험이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떠올리게 하는 충분한 단어다. 그의 장남은

러시아 사람과 결혼을 한다. 손자가 한인 3세와 결혼을 해서 증손녀를 낳았다. 증손녀의 돌은 고향에서 하던 것처럼 집에서 아침에 돌상을 차리고, 미역국을 끓여 나누어 먹음으로 러시아 며느리가 용서된다.

이러한 돌잡이 의식행위는 연구 참여자 C에게 커다란 의미다.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과정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네 명이나 낳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 자녀의 돌을, 생일 의식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큰 아들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고, 손녀를 낳아 그 손녀가 조선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그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러시아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사라진다. 게다가 그 손녀가 증손녀를 낳다. 그에게 증손녀의 존재는 더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2.2 결혼 내러티브

2.2.1 달달한 어머니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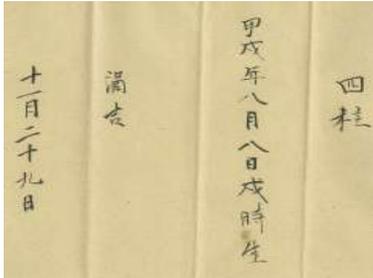
연구 참여자 A에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그는 사범대학을 나와 학교에서 수학 선생으로 일할 때 결혼을 한다. 그가 풀어내는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가 형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내의 아버지는 동향 사람이예요. 우리 둘이 결혼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형제끼리는 절대 못 한다고 반대하셨어요. 작은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어떻게 장인이 되나고요. 피가 섞인 형제도 아닌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의형제 18분을 다 만나 설득시키고 결혼을 했어요.”(연구 참여자 A, 15.08.12.)

그의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에서 결혼하기까지 과정은 당시 사할린 한인 사회의 결혼관을 볼 수 있다. 그는 부인과 7년 동안 수학을 같이했기 때문에 연애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그의 아버지와 부인의 아버지는 경남 의령이 고향으로 동생간을 하면서 형님 아우 하던 사이다. 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동생간이라는 이유로 양가 집안에서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의 아버지는 제일 큰 형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지만 큰 형님 역시 그 결혼을 반대한다. 결국 아버지는 만약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의형제 모두에게 승낙을 얻어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에 연구 참여자 A는 장백(제일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비롯하여 아버지의 동생간 17명의 집을 찾아가 결혼 승낙을 받은 후에야 결혼 할 수 있었다.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피가 섞이지 않은 동기간끼리도 결혼을 금하는 풍습 때문이다²⁴⁾. 이는 한민족

24)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타민족과의 결혼을 회피하였으며, 가까운 친족을 비롯하여 의형제 간의 결혼도 지양했다(최길성, 2000, 113).

이 추구하는 족내혼을 금기하던 풍습으로 이들의 고향에서 온 것이다.



[그림 IV-35] 사주 연구 참여자 A

“58 결혼할 때 이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결혼 택일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좋은 날로 잡아서 하라고 하시고, 나는 학교 방학에 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께 거짓말 했어요. 좋은 날로 잡은 것이라고. (중략) 우리 두 집은 뒤편이 있고, 누가 뒤편하고 다 아는데.”(15.12.06.)

연구 참여자 A 가족과 부인의 가족은 가족들끼리 서로의 신상과 내력을 알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아내의 집에서는 좋은 날을 잡아 손이 없는 날 결혼식을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는 학교 교사로 방학 때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장인에게는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아 날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요일에 결혼식을 한다.

당시 사할린 한인들은 동네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한인 공동체에서는 정보뿐만 아니라 혼례의례를 비롯한 각종 일생의례에 관한 절차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모두 공유한다. 일을 함께하면서 또는 평소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삶과 관련된 지식을 교환하며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때로는 일을 함께 하고 의례도 공동으로 치르는 예도 있다. 예컨대 누구의 딸이 어디를 나왔고, 어디를 다니며, 누구 집 며느리가 어떻고, 제사음식은 어떻고 등의 평이 교환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상호신뢰감을 높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한다.

그의 집과 부인의 집도 이러한 신뢰가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신뢰는 동향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돈독하다. 고향은 자기 동질성의 토대가 된다. 마을은 마치 가정의 연장이나 확대와 같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해 문제가 형성되지 않고 사랑과 정, 그리고 혈연적 유대감이 지배하

게 된다.



[그림 IV-36] 결혼
연구 참여자 A

“ 때는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먼저 하고, 다음에 신랑집에서 하지. 수탉 놓고, 암탉 놓고, 소나무 옆에 줄 걸치고. 우리 결혼하는 날 폭설이 와서 신랑집에 못 갔어. 그래서 신랑집에서는 신부, 신랑 없는 잔치만 하고, 그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잔치를 했어. 결혼식 잔치를 5일이나 했네.”(15.12.06.)

그에게 ‘결혼’은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새겨주는 따뜻한 고향과 같은 장소로 고정되어 있다. 1958년 연구 참여자 A는 우선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음 날 신랑 집에 가서 다시 결혼식을 한다. 결혼하던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집으로 갈 때 비행기가 뜨지 않아 다음날 신랑집으로 간다. 다음날 신랑집에 가니 결혼식 참석하려고 왔던 친척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다. 신부가 왔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다시 와서 잔치한다.

그의 이야기에는 마당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부침개를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하다. 마당에서는 국수를 삶아 먹고,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신랑을 달기 위해 작전을 짜느라 분주하다. 폐백할 때 밤과 대추를 한 움큼 던져주면서 “검은 머리 과 뿌리 될 때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열만 낳고 잘 살아라”하던 부모님의 덕담도 함께한다.

그의 부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연구자를 방으로 안내했다. 침대에 깔린 이불을 끌어안고 이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부인은 어렸을 때 추위를 많이 타서 고생한다. 장모님은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을 위해 특별히 좋은 목화를 써서 솜이불을 만들어주셨다.



[그림 IV-37] 이불
연구 참여자 A

“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불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을 못하고 하도 울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사람은 이불 한번 내놓을 때 어머님 생각나고, 여기에 누우면 어머니 생각나고,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니의 달달한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15.12.06.)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솜이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가 그리워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해 올 때 이불을 가지고 왔다. 5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이불에서 잠을 자면 어머니의 포근한 마음과 달콤한 어머니의 냄새가 난다. 이불은 더 이상 이불이 아니다. 어머니다. 그리움이다. 오래도록 되새길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며, 정신적인 힘의 원천이다.

2.2.2 조선 여자와 양복쟁이

연구 참여자 C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친구가 소개해준 조선 여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30인데 여자도 없고 하니까 내 친구가 “내 친구 딸이 하나 있는데 조선 여자다. 결혼해라.” 했어. 그런데 장인 되는 분이 날 보더니 첫 눈에 반했다고, 좋다고 하더라고. 아마 내가 조선 사람이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내 친구가 중매했어.”(연구 참여자 C, 15.11.11.)

“그러니깐 뭐 그때만 해도 우리는 연애도 모르고, 결혼 안 한 총각이 많았지. 조선 여자들이 혼치 않았지. 그때 당시는 얼굴을 안 봐도, 싫어도 부모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부모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때라. 아마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했겠지.”(연구 참여자 C, 15.11.11.)

연구 참여자 C는 1952년에 ‘조선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그는 1945년 8

월 해방이 된 후에도 탄광에서 일하였는데 어느 날 갱이 폭발하여 더 이상 탄광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양복점에서 일한다. 친구의 소개로 장인을 만나 장인의 눈에 들어 부인을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한다. 친구가 말한 “조선 여자다”라는²⁵⁾ 말은 결혼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결혼하라는 의미다. 연구 참여자 C의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에서 당시 사할린 한인들이 족내혼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장인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결혼하기로 했지. 조선 사람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 사람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지, 도시로 이사 오라고. 여기에 집이 있다고. 그런데 진짜 왔어. 그 길로 살았지. 나 같은 사람은 돈이 어디 있어? 담배 사서 피워야지, 옷 사 입어야지. 나는 술은 안 먹었어.(중략) 잔치는 무슨 잔치 부모도 없는데. 내 동생간 형님들이 보내줘서 갔지.”(연구 참여자 C, 15.11.11.)

연구 참여자 C는 사할린의 수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았고, 부인은 도시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 살았다. 그는 부인될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부인될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곧 결혼이 된다. 의형제들은 연구 참여자 C의 결혼식 때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에게 의형제는 어머니이자 형제 그 이상이다. 한인들은 의형제를 통해 끈임없이 경험의 공간을 확대하고, 관계가 확대될수록 고향의 범위도 확대된다.

25)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1940년대 단신으로 강제 징용 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단신으로 동원되었고 동포와 결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기혼자들은 아이를 두고 갔기 때문에 대개는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산가족으로 남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최길성, 2001, 116).



[그림 IV-38]결혼
(연구 참여자 C)

“ 결혼할 때요. 1952년이니까 내가 30살, 이 사람이 19살.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있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강제징용으로 왔으니.(중략) 부모님은 고향에 있으니 부모님한테 기별도 못하고, 한(恨)이 되었지. 우리 부모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 하셨을까.”(15.11.11.)

그의 결혼사진에는 웃는 모습이 없다. 그 이유는 결혼식의 속신에 따르면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설(김시덕, 2011)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은 부모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연구 참여자 C는 강제징용 당사자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을 하고서야 당시의 심정을 “나도 가족이 있는 조선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C가 말하는 ‘조선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



[그림 IV-39]로국며느리
(연구 참여자 C)

“큰 아들이 로국 여자와 결혼했어.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혈압이 올라가 죽을 뻔했어요.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결혼은 죽어도 한인하고 해야 한다고(중략). 조상을 어떻게 봐. 숯대 없이. 민족을 생각하니깐 죽고 싶었어. 불효지. 내 뿌리가 없어 지는데.”(15.09.06.)

연구 참여자 C의 자녀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는 로국(러시아)의 며느리가 주를 이룬다. 장남은 1976년에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여 그에게 상처를 준다. 당시에 그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들은 결혼에서도 한인만을 고집한다. 만약 동포끼리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차 한민족이 사라진다는 우려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동포끼리 결혼을 해야만 완전한 한인으로 인정한다. 2, 3세의 결혼은 개인 문제인 동시에 민

족적 문제라고 한다(최길성, 2001; 이은순·김일립, 2006; 윤인진, 2004).

연구 참여자 C도 사할린 한인들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한인과의 결혼풍습은 사할린 한인들의 혈통과 민족 정체성을 중시한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그의 내러티브에는 민족 단결을 유지하고 모국어 사용과 같은 한민족의 가치와 관습은 족내혼을 유지하려는 민족 애착을 보인다. 윤인진(1998)은 민족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행위적 애착 또한 강하다고 한다. 그는 장남이 한인이 아닌 러시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자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러시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식음을 전폐하고 눕는다. 장남이 같은 피를 갖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조상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위의 인식 때문이다. 당시 사할린 한인사회에서 러시아 며느리를 보면 수군덕거리며 흉을 보는 마을의 정서도 한 몫을 한다.



[그림 IV-40] 손녀 결혼
(연구 참여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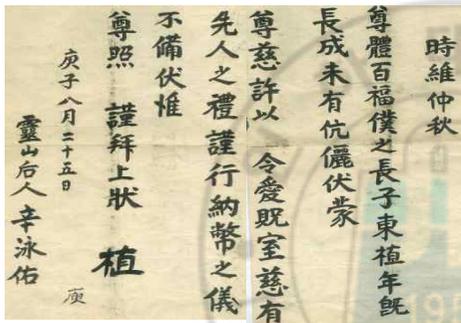
“ 조선 손녀사위잖아요. 물론 며느리 되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을 봤으면 좋겠죠. 사람 욕심을 내가 잘 압니다. 근데 내는 손자라고 조선 며느리 봤으니까 내가 아픈 걸 시답아줬나, 사위가 조선 사람이라 내 마음이 정말로 아픈 것도 없어진 거 같아요.(15.10.06.)

로국 며느리한테서 낳은 손녀가 장성하여 조선 사람과 결혼을 한다. 연구 참여자 C는 손녀의 결혼을 통해 지난날 장남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조상에게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야 조상을 뵈면 면목이 생겼다는 생각에 아픈 것도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손녀의 결혼사진을 보며 손녀와 나와 조상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에 와 있다. 그에게 손녀의 결혼은 단순히 손녀의 결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조상’이라는 과거와 ‘나’라는 현

재, 그리고 ‘손녀’라는 미래와의 만남이 된다.

2.2.3 연지 끈지 짝은 색시

“봉채요. 신붓집에 보낼 때 이걸 넣어요. 올해년 8월 29일 진시. 이게 내 생일이지. 이래 써서 깨끗하게 정서를 해서 보내요. 사주 여기다 써놓고, 결혼 한다고 아버지가 날 잡으라 색시집에 보낸 거요. 결혼하는 날을 잡을 때 사주를 보고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보고. 택일을 하고, 손이 없는 날 결혼을 하지요.”(16.01.11).



[그림 IV-41]청혼서
(연구 참여자 E)

“ 내 청혼서요. 내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직접 써준 건데요. 아버지가 명필이셨지. 붓으로 줄을 아무 것도 안치고 요렇게 반듯하게 썼어요. 나는 지금 요렇게 쓰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그래 해 놓은 거를 요래 보면서 내가 자숙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재혼했거든요”(16.01.11.)

위의 [그림 IV-41]은 연구 참여자 E의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를 공고히 해줄 청혼서다. 이것은 단지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만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의 그리움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그는 영주 귀국할 때 이것을 가지고 왔다. 그 후 이것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다가 이 봉채를 보면서 아버지와 추억을 꺼내어 과거로 들어간다.

아버지는 학자로 주위에서 존경받던 인물이다. 글씨도 잘 썼지만 글을 배운 사람으로 주위에 사는 한인들이 큰일이 생기면 모두 찾아와 그의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손님이 많았다. 가난했지만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고 가난을 함께 공유한 아버지다.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다.



[그림 IV-42]결혼식
(연구 참여자 E)

“ 연지 곤지 찌고, 설레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상에다 송죽(松竹) 가지를 세우고, 홍실 청실 걸어놓고, 닭을 앉혀 놓고, 쌀을 한 그릇씩 떠다놓고, 깨끗한 물로 손도 씻고, 표주박에 술도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고, 백년해로 하라고(중략). 주례자가 혼례 식순이라 써놓고.”(15.11.06.)

연구 참여자 E는 결혼사진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결혼 과정을 불러온다. 고향과 똑같이 혼례상에는 닭을 놓고, 소나무 가지에 청실과 홍실을 걸고, 쌀과 실을 놓고,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진행한다. 이때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은 보통 마을에서 나이도 많고, 학식이 있으며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결혼식이 끝나면 양옆에 증인을 세워 생을 마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서약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은 혼인 신고할 때 필요한 것으로 호적부에 제출하고, 양쪽 증인이 가서 서명해야 혼인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절차에서 점점 혼인은 간소화가 되고 한국식도 아니고 러시아식도 아닌 새로운 결혼 문화가 탄생하게 된다.

아래 [그림 IV-43]은 연구 참여자 E의 결혼사진이나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의 부인과 재혼으로 그녀와 찍은 결혼사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88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을 알게 된다. 그는 1991년 고향방문단을 통해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민속촌을 방문한다. 그때 민속촌에서 진행되는 전통혼례식을 보고 지난 날 ‘나의 결혼식’을 회상하며 사진을 찍는다.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그리고 친구들의 장난 섞인 농담이 없어 허전하지만 고향에서 만난 전통 결혼식 풍경에서 과거를 불러온다.



[그림 IV-43]민속촌
(연구 참여자 E)

“1991 ? 찍었어요. 결혼사진이요. 난 사실상 이 사람하고 찍은 결혼사진은 없거든.(중략) 민속촌에는 우리 부모님이 썼던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 물건들을 보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면서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그것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더 나지. 부모님이 못 오신 것이 한이 되었지.”(15.11.06.)

그리고 민속촌에 진열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면서 부모님과 즐겁게 지내던 때로 돌아간다.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고 떡을 치는 삼 형제와 깔깔 거리며 즐겁게 일 하던 아주머니, 막걸리를 마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던 아저씨, 코를 흘리면 뛰어노는 아이들을 불러 본다. 인정이 넘치는 배고픈 추억은 부모님이 고생하던 시절과 오버랩되면서 어느 덧 추억이 되어 향수로 남아있다.

2.3. 환갑 내러티브

2.3.1 가족, 두터운 울타리

연구 참여자 A의 통과의례 중 환갑에 대한 내러티브에는 당시 사할린 한인 사회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IV-44] 아버지환갑
연구 참여자 A

“ 어머니 환갑은 안 챙겼어요. 옛날 풍습에서는 여자들은 완전히 뒤에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환갑은 크게 했어요. 우리 형제들 다 절하고 악단 불러다가 노래하고요. 지금은 러시아스타일도 아니고 한국 스타일도 아니고 절반, 절반.(중략) 이런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쉽지요.”(15.11.22)

연구 참여자 A는 장남으로 결혼하고 계속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그는 1964년 아버지의 환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환갑에 대해 매우 생동감 있게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경북 의성이 고향으로 늦게 난 아들의 교육을 위해 사할린으로 간다. 사할린에 가는 차비는 공짜이고 사할린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어 고향에 논도 살 수 있다는 말에 40세에 선택한 길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자 고향이 경상북도인 사람들만 모아 18명이 의형제를 맺어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치르며 고향을 재현한다. 당시 사할린 한인들은 대부분 여성의 환갑은 하지 않고, 남성의 환갑은 성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A의 경우도 아버지의 동기간이 모두 모여 한 달 전부터 음식을 하고, 막걸리를 담아

마시며, 이웃과 상호작용한다. 이로써 환갑은 고향을 잃은 서러운 디아스포라의 진정한 휴식의 매개체가 된다.



[IV-45] 팔순
(연구 참여자 A)

“이거는 팔순 때 찍은 사진이에요. 친척들이 많지 않으니까. 손님이라야 뭐 영주귀국한 친구들하고 자녀들이지. 사할린에서 올 수 없으니까.(중략) 점점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도 아직도 환갑이나 팔순은 꼭 해요. 그래도 할 것은 다 했어요.”(15.11.22.)

연구 참여자 A는 사할린에서 수학 교사로 정년퇴임을 한 다음 3년 동안 시의회의 의원으로 일했다. 그는 2007년 영주귀국하여 한국 생활을 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는 팔순을 맞는다. 사할린에 사는 남동생과 자녀, 손자가 한국으로 와서 함께 축하해준다. 그리고 사할린 경로당의 동기들이 축하를 부르며 아버지 환갑을 끌어 온다. 그리고 사할린에서 생활했던 혈기왕성하던 때로 돌아간다.

아버지 환갑 날 마당에 풍장을 치고 18명의 의형제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하던 때로 돌아가 현재의 나를 비추어 본다. “내가 사할린에 있었을 때는 지인이 많았소. 사할린에서 잔치를 했으면 아마 4~500명은 왔을 것어요.” 이러한 의례가 점점 간소화되고, 의미 또한 변형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사할린에 있는 지인,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자고,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잠이 없어 못 잔다는 말로 ‘나의 위치’와 요즘의 근황

을 일축한다.



[그림 IV-46] 부인의 팔순
(연구 참여자 A)

“ 팔순을 안 하고 여향을 가려고 했는데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어. 우리 애들 하고만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척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두 와서 축하해 줘서.(중략) 애들이 이런 우리의 것을 잊지 않고 대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 민족이지.”(15.11.22.)

그의 아내는 10월생으로 팔순을 맞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남편과 여행을 가려고 계획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행에 따라가서라도 팔순을 하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꾸어 간단하게 자녀들과 팔순을하기로 한다. 자녀들이 움직이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자녀들과 친척, 친구들이 와서 기뻐했다고 한다. 그는 팔순 잔치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팔순을 함으로써 자녀들과 친척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고, 특히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둔다.

2.3.2 불모지에 내린 뿌리, 내 새끼들

[그림 IV-47]은 연구 참여자 B 어머니의 환갑 사진이다. 그는 어머니 환갑 사진에서 아버지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돈을 벌고,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좀 더 좋은 생활을 위해 사할린으로 가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불러온다.

어머니 환갑잔치를 하기 위해 국수 기계를 직접 만들고, 국수를 직접 뽑아 삶아 먹고,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막걸리를 마신 이야기에 흥이

묻어 있다. 그는 국수 기계에서 국수를 뽑느라 팔을 크게 돌리는 모습, 두부를 만드느라 맷돌을 돌리는 그는 어느새 흥이 묻어난다.



[그림 IV-47] 어머니 환갑
(연구 참여자 B)

“ 형제들이 그리운 사람들이라 환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수도 나눠먹고, 막걸리 마시면서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자식 많은 집이 최고 부자지.(중략) 당시 음력을 안 썼지만도 우리는 다 음력으로 해요. 부모님이 고향에서 몸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보고 배운 거지요.”(15.12.13.)

또 그는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더니 튀어 나온 부분은 큰 달, 움푹 들어간 곳은 작은 달 하고, 손을 펴더니 손가락 마디를 세면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당시 사할린에서는 러시아의 문화에 따라 양력으로 생일을 했지만 조선 사람들은 거의 음력을 사용했다. 그의 행동에는 부모님한테서 전수받은 고향이 들어 있다.



[그림 IV-48] 환갑
(연구 참여자 B)

“내 새끼들이요. 딸 셋에 사위 둘, 손자, 손녀. 이것들 보고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지. 다 대학 나오고 야가 지금도 내 집에서 사요. 지그들 자랄 때 추억이 있으니까 더 좋지.(중략) 부모님 환갑 때하고 다르지. 러시아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우리 애들 때는 또 다르겠지.”(15.08.22.)

B의 환갑 사진에는 자녀 셋과 사위 둘, 그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한다. 그리고 할머니의 환갑과 어머니, 아버지의 환갑을 지나 자녀들의 환갑까지 연결되어 현재의 ‘나’, 그리고 사할린에서 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극

복하던 때로 연결한다. 그는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산다. 그러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집도 살 수 없었고,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허위로 이혼을 한 다음 이사를 하고 다시 재혼을 하면서까지 자녀의 교육에 초점을 둔다.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었던 ‘가족’과 ‘집’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사할린의 집은 딸 셋을 키우며 가족의 추억이 숨 쉬는 곳이다. 그 집에서 지금 손녀와 손녀사위가 살고 있어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무엇보다도 손녀에게 손자에게 고향이 되어 줄 집이기 때문에 더욱 애뜻하다.

2.3.3 낙엽이 되어 돌아오다

연구 참여자 E는 환갑 사진을 통해 할머니의 환갑과 어머니, 아버지의 환갑이 교차한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러시아의 사회현상과 문화, 한인의 정체성이 혼종 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나’를 믿고 의지해주었던 가족을 떠올린다. 또한, 동시에 ‘나’와 향수 속의 ‘사할린’ 역시 교차한다. 이처럼 현재와 과거의 ‘나’가 교차하는 지점에 가족이 있고, 그 속에 고향이 있다. 내가 돌봐 주어야 할 가족,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었던 ‘가족’과 ‘집’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참여자 E는 현재의 ‘나’는 사할린에서 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극복하던 때로 회귀한다.



[그림 IV-49] 아버지 환갑
(연구 참여자 E)

“ 환갑 때 상을 이렇게 크게 차렸어요. 이음식은 전부 만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아주머니들하고 떡을 치면 웃느라고 일 못해요. 아주머니들이 뒤로 넘어가요.(중략). 다 한동네에 살았어요. 여기도 신 씨, 저기도 신 씨. 여기는 동생간, 저기도 동생간. 고향이나 마찬가지로였어요.(15.11.06.)

[그림 IV-49]는 1966년에 찍은 연구 참여자 E 아버지의 환갑사진이다. 환갑에 대한 내러티브는 아버지의 환갑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갑잔치가 끝날 때까지 한인들의 삶과 인생관, 세계관이 모두 녹아 있다. 환갑잔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의 깔깔거림으로 시작한다.

회갑잔치 때 풍물을 치며 한판 놀이마당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는 부자라 하여 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집도 가난한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지낸다. 마을에는 동네잔치를 위해 맷돌과 절구가 공동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며 잔치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부분 잔치음식은 부조로 모은 음식들을 다시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형편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공동으로 마을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환갑에는 많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환갑은 가장 큰 행사였다. 아주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할 때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나니라 고향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했다. 떡을 칠 때 아주머니들의 깔깔거림, 구수한 고향 사투리, 행동에서 풍기는 미래를 점치는 농담, 그리고 속신까지도 모두 함유하고 있어 고향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이렇듯 고향은 삶의 공간에 대한 일상적 묘사가 아니다. 이는 무의식과 기억에 의해 구조되는 것이며, 이러한 집합적 기억이 고향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 환갑이다 하면 다 모여요. 그게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거든. 그러니 날마다 모였지요. 오늘은 누구 생일, 내일은 누구 생일. 막걸리 마시면서 밤에 몰래 이불 뒤집어쓰고 라디오 들은 얘기. 누가 일 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조선의 가족과 연락이 닿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등”(연구 참여자 E, 15.11.06.)

사할린 한인들은 생소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농이자 자연스럽게 모국의 문화와 관습들을 찾게 된다. 환갑은 환갑으로 그치지 않는다. 환갑을 기회로 한인들이 모일 수 있었고, 이런 모임은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소속은 한편으로는 제약하는 것도 많았지만 얻는 것도 많다. 고향의 소식과 거주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대처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사할린 한인들은 이러한 통과의례를 통과의례로만 그치지 않고 한인의 축제로 만든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의례를 통해 모든 곳에서 고향처럼 안주하는 것이다.



[그림 IV-50] 팔순
(연구 참여자 E)

“ 돌아온 사람이 팔순 잔치는 무슨. 애들하고 손자들이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쉬는 것으로 팔순 잔치를 대신했어요. 내가 지금 팔순 잔치를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나야 영주귀국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근심 없이 편하게 살면 그게 생일이죠.”(15.11.06.)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까지 다 모여도 몇 안 돼요. 다 모여서 집에서 절 받고, 서로 축원해주고,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떠들썩하게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조촐하게 밥 먹었어요(중략).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사할린에 있었다면 7남매 중에 동생 하나만 빼고 다 모였겠지.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이런 날은 부모님 생각이 더 나지. 아버지도 팔순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연구 참여자 E, 15.11.06.)

“낙엽이 되어 돌아왔어요.”라는 연구 참여자 E는 2015년에 팔순을 맞았다. 그는 팔순잔치 대신 자녀들과 부산에서 지냈다. 부산은 연구 참여자 E가 영주귀국하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통역가로 일할 때 거주했던 곳으로 자녀들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팔순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7남매가 북적이며 아버지의

환갑에 형제들이 떡을 치던 그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형제가 많아 부러울 것이 없었다. 7남매 중 남동생 한 명만 사망하고 모두 생존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욱이 깔깔거리며 떡을 치던 그 날은 다시 오지 않음이 안타깝다.

2.3.4 효부, 로국 며느리

연구 참여자 C의 기억에는 어제의 일보다 배가 고파 굶주림으로 시달린 탄광에서 일하던 스무 살의 연구 참여자 C가 더 선명하다. 탄광에서 막노동할 때 춥고 외로움을 함께 견디며 고향을 만들어 간 동생간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성이 '김'이거나 고향이 '울산'인 사람들끼리 의형제를 맺어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낸다. 젊었을 때는 모두 가까이에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눈다. 그들은 고향에 두고 온 부모요, 형제다. 그래서 더 각별하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교육할 때쯤 필요 때문에 사할린주 각지에 흩어져 산다. 비록 멀리에 살지만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사이다. 언제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같이 하므로 그들의 관계는 끈끈한 정으로 뭉친 각별한 사이가 된다.



[그림 IV-51] 환갑
(연구 참여자 C)

“ 환갑이요. 다 내 형님, 아우님 이고, 친구지. 내가 부모가 없으니 계. 부모가 고향에 있잖여. 친 형제 처럼 지내는 동기간이요. 다 갔어. 나만 남았어. 이도 가고, 이도 가고, 모두 갔어.(중략). 노래 불렀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부모님이 계셨더라면,,,”(16.01.05.)

1982년 연구 참여자 C는 환갑을 맞는다. 의형제들은 그의 환갑에도 모두 참석하여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당시 사할린 한인들은 이러한 통과례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위안을 삼기도 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하고 없는 사진 속에 있는 의형제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어려움은 향수로 자리한다.



[그림 IV-52]부인 팔순
(연구 참여자 C)

“ 사할린으로 갔어. 사할린에서 이 식구가 다 오면 복잡스럽지. 우리가 돌아가는 게 좋지. 이거는 큰 며느리, 로국 사람이요. 며느리가 비행기 표를 사서 보내줬어. 조선 여자나 로국 여자나 살아보니까 똑같어. 효부야, 우리한테 잘하고, 뭐니 뭐니 해도 아들한테 잘해주니까 최고지.”(15.11.11.)

2013년 연구 참여자 C 부인의 팔순을 맞는다. 그는 홀로 사할린으로 가서 4남매를 낳았고, 4남매가 모두 결혼하여 손자, 손녀를 낳고, 증손녀까지 생겨 자손이 번성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며느리가 러시아 여자이기 때문에 효심도 없고, 한국인의 정서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 하지만 잘 살고 못 살고는 조선 여자, 로국 여자라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 현재 그에게는 효부 로국 며느리가 최고이다.



[IV-53] 구순
(연구 참여자 C)

“이 건 내 90살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지 60년이 됐어. 아들, 딸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 있고 이제 부자 됐어. 큰 며느리가 비행기 표도 사 주고 이 상도 큰며느리가 준비했지. 큰 며느리가 러시아 사람이지만 참 효심이 좋아.”(15.11.11.)

2012년은 연구 참여자 C가 구순을 맞으면서 구순잔치는 사할린에서 연다. 한국에서 하게 되면 사할린에 사는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가 고령으로 사할린에 갈 수 있는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한 배려다. 사할린에서 구순을 함으로써 주위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었다. 사할린에는 이제 실질적인 사할린 1세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 귀하다.



[IV-54]새고려신문
(연구 참여자 C)

“ 이젠 새고려신문인디 우리 결혼 60주년 축하한다고 우리 소녀들이 부탁해서 신문에 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줬어. 회장도 오고, 뭐 뭐 다 와서 좋았지. 이제 사할린에 못 가. 비행기 못 타.”(15.11.11.)

[그림 IV-54]는 사할린주에서 발행되는 ‘새고려신문’ 기사의 일부분이다. 새고려신문은 우리 글로 된 사할린 한인 민족미디어다²⁶⁾. 연구 참여자 C의 손녀는 연구 참여자 C의 90세 생일과 그의 결혼 60주년을 맞아 새고려신문을 이용하여 축하사연을 보낸다. 연구 참여자 C는 홀로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현재 대가족을 이룬다. 타민족의 여성이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 개인으로 볼 때 자손의 번창은 곧 나의 행복을 간음하는 잣대가 된다.

26) 고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국과 거주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관계 망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민족 미디어는 주류사회의 언어가 아닌 소수민족의 언어로 제작 배포되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민족 언어는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윤인진, 2004). 민족 미디어는 주로 이들 소수그룹에 의해, 소수그룹을 위해 운영되며, 그들의 민족적, 국가적 상황과 특징을 반영하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민족 미디어는 민족 집단의 고유한 문자, 가치,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을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한국방송개발원, 1997). 모국정보의 전달(Jonson, 2000), 모국문화 유지(정의철, 2011), 모국문화 배양(김상호, 2008)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문화적응을 지원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민족 공동체의 동원력을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2.4. 죽음 내러티브

2.4.1 꽃신 신은 할머니

연구 참여자 B의 내러티브에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 못지않게 할머니 ‘오순덕’에 대한 기억도 크다. 그의 내러티브는 한복 입은 할머니의 고운 모습과 꽃신 신은 할머니를 회상하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낸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무한한 사랑이 18세의 연구 참여자 B로 회귀하게 한다.

그는 장남으로 가족을 위해 18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막노동을 하게 된다.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한복감을 사서 드린다. 할머니는 그 한복감을 받고 “우리 장손이 공부를 해야 할 텐데 미안하다.”고 우신다. 그는 그날 이후 할머니의 바람대로 산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야간 철도대학에 다녀 할머니의 기대에 보답한다.

“ 할머니가 88살에 돌아가셨는데 삼일장을 지냈어요. 동네 한 어르신이 할머니를 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꽃신을 신기셨어요. 관이 나갈 때 접시를 밟아서 깨고 갔어요.²⁷⁾ 상여가 가다가 다리 위에서 잠시 쉬었어요. 봉투를 주니까 다시 가더라고요. 지관이 산에 가서 못자리를 잡고, 좋은 자리에 모셨는데 야~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한 쪽 날개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이 서럽대요.”(연구 참여자 B, 15.08.22.)

연구 참여자 B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꽃신’을 떠올린다. 그는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할머니와의 정이다. 할머니에게 그는 아들과

27) 정찬영(2008)에 의하면 천구 때에 빈소에서 관을 내올 때 접시를 얹어 놓고 관으로 그것을 깨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내세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세계에 통합시키는 의미이다. 이는 전이 의례로 다음 의례인 통합의례에 가기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남은 후손을 위한 것으로 금기의 절차와 신성의 절차 수행을 의미한다.

같은, 친구와 같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

할머니의 염을 할 때 삼베옷이 아닌 새 옷을 입히고 꽃신을 신겼는데 그 꽃신은 그가 첫 월급을 탔을 때 사 드린 것이다. 할머니는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꽃신을 신고 나들이 간다고 아끼셨는데 편찮으셔서 한 번도 신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아쉬움을 남게 한다.

할머니를 억척스럽고, 고집이 세지만 '나한테만큼은 최고'로 기억한다.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한쪽 날개를 잃은 것 같았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밝히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가 가장 생각이 났고,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은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지할 할머니도, 어린 시절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백발이 성성한 곧 죽음을 앞둔 노인이 있을 뿐이다. 할머니 죽음에 대한 내러티브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때'를 더욱 안타깝고 그렇게 한다.

“ 장례가 끝나고 위패를 모셔 놓고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3년 탈상을 했고, 어머니는 1년 탈상을 했어요. 3년 동안 목욕탕에 가서 벌거벗고 목욕도 하지 않고, 수건에 물을 묻혀 닦는 정도로 씻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면서 “어디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고, 갔다 오면 바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중략) 진짜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똑같이 했지요.”(연구 참여자 B, 15.12.13.)

연구 참여자 B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3년 탈상을 했다. 3년 동안 상을 차려 놓고 성스러운 공간을 통해 할머니와 만남을 갖는다. 길에 지나다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쭈덕을 보면 사다가 할머니 상에 올리면서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쭈덕인데 할머니가 만들어 주던 것보다 맛이 없다.”면서 할머니에게 응석도 부리고 할머니의 표정도 살핀다. 이와 같은 성스러운 만남은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표상이다.



[그림 IV-55] 할머니
(연구 참여자 B)

“ 계실 때는 지방을 썼지만 내 시대에는 지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걸 보고 쓰요. 우리 할머니가 동북 오 쓰요. 오순덕. 지방을 붙이고,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지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딸이 기억해주면 고맙지.”(16.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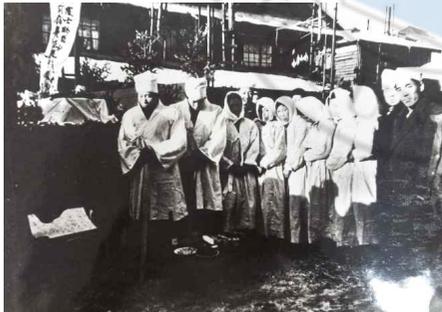
일상의례에서 제사는 조상을 만나 가족의 안식과 안락을 기원하고, 생명에 감사를 표하는 대표적인 의례 중 하나이다. 연구 참여자 B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제사와 똑같이 행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하여 조상께 예를 표하고 있다. 제사를 제대로 하면 사람이 그 조상의 자식답게 착해지고 자기를 조용히 반성해 볼 기회를 얻는 이로움이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밤 12시가 되어야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정이 아닌 어둠이 내린 저녁, 편한 시간에 모신다. 지방 또한 떡을 갈아서 붓으로 쓰는 대신 펜으로 쓴다. 제사 지내는 절차가 표면적인 것에는 변형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조상에 대한 예(禮)와 정(情), 성의 등과 같은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끌벅적하던 때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조상을 위해 술을 드리며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미래, 즉, 자녀를 위한 기원을 하며 제사를 통해 고향을, 민족 정체성과 연결한다. 그는 자녀들에게 고향을 전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러시아에 사는 자녀들이 자주 참석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너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2.4.2 맴도는 아버지의 유언: 너희들만이라도 고향으로

유교적 일생의례에서 특히 상·제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개인의 삶과 죽음이 연속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박종천, 2010). 즉, 유교전통에서 개인의 죽음은 가족구성원의 의식적인 정성과 실천을 통해 삶과 죽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나를 거쳐 후손에 이르는 생명의 전승 과정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한 매듭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시키고 제사를 통해 의례적 생명을 획득하게 된다.

“보통 집에다가 시신을 모셔 놓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삼일장으로 해요. 끼니때마다 곡을 하고, 팔죽을 끓여서 문상 온 사람한테 한 그릇씩 다 먹이는데, 아마도 팔이 붉은색이니 귀신을 쫓는 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운구가 나가는 날 대문 앞에 접시를 얹어 놓고 운구로 깨뜨리고 가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도 그런 뜻 같아요.”(연구 참여자 E, 16.01.11.)



[IV-56] 발인
(연구 참여자 E)

“ 어머니가 너무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56세에 돌아가셨거든. 참 아깝지. 집에서 다 했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삼일장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동기간이 다 와서 같이 치렀어요. 발인 날은 상여에 만장까지. 또 하나의 고향이지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한인들의 잔치도 돼요.”(16.01.11.)

사할린 한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상을 치렀으며 삼일장으로 매장을 하였다. 전통 상례는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곡을 멈추고 신주를 사당에 모시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진행된다(김영순·정찬영, 2008).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잘 씻

기고 수의로 갈아입힌 후 가지런히 수습하는 연습도 한다.

[그림 IV-56]은 연구 참여자 E가 제공한 사진이다. 발인 날은 상여를 메고, 만장이 뒤를 따랐다. 매장할 때 죽은 자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것을 함께 묻어주는 것까지 고향의 풍습에 따른다. 이때 장례절차 등은 동기간 중 제일 큰 형님이신 '장백'이 주관한다. '장백'은 동기간 중 제일 나이가 많은 만형 격이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3년 뒤에 탈상한다. 이렇게 하여 부모와 상호작용한다.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목숨처럼 간절하고 절실했다. 연구 참여자 E가 제시한 장례 사진에는 귀향의 기원이 들어있다.

“ 살아계실 때는 제사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그랬는데, 이웃 어르신들이 자지도 않고 제삿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점점 많이 변해서 제삿밥 먹으러 오라는 기별도 없고(중략). 아침에 또 출근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울 수 없으니까 우리 두 노인네가 지낸다. 이거야 참.”(연구 참여자 E, 15.11.06.)

연구 참여자 E의 아버지는 72세에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사망은 지금까지 모든 의례에서 절차나 형식 등 아버지의 기억에 의존하던 그는 아버지의 장례에서 탈상, 제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게서 전수 한 것으로 진행한다. 아버지의 몸짓과 행동을 기억하는 기억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할아버지한테서 전수받은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연구 참여자 E, 다시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참석할 수 없어 이제는 홀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 서글프다.

연구 참여자 E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줄곧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인 문화를 전수한다. 그러나 영주귀국한 후 자녀와 같이 살 수 없는 제도로 인해 지금은 두 부부만 지낸다. 그는 아버지한테서 전수 받은 것을 자녀에게도 전수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현재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

2.4.3 가슴에 묻다



[그림 IV-57] 아버지 발인
(연구 참여자 D)

“ 부모님의 임종을 못 본 것은 불효지요. 내가 61년에 결혼하고, 아버지가 북조선으로 가면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65년에 북으로 갔어요. 뒤늦게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을 당하면 삼일장을 합니다. (16.01.14.)



[그림 IV-58] 삼우제
(연구 참여자 D)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가친척들이 어디 있어요. 초상이 났다 하면 한인들은 모두 내일처럼 도와주고 잘 묻쳐요. 장례 지내고 삼우제를 지낼 때는 우리 가족끼리 가서 자식들 인사시키고, 잔 올리고, 절하고, 편히 계시라고 인사하지요.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15.10.06.)

[그림 IV-57]과 [그림 IV-58]은 연구 참여자 D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사진이다. 연구 참여자 D는 아버지는 전쟁 끝나고 한국에 가겠다고 무국적으로 지낸다. 어느 날 북한 총영사가 와서 북한 국적을 받고 북한에 가면 고향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많은 한인들이 북한 국적을 받게 된다²⁸⁾. 그의 아버지도 고향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북한 국적을 받아 아

28) 1953 ~1954년 사이에 북한 총영사 관원들이 사할린에 와서 한인에게 선전 사업을 전개하면서 학습조를 조직하고 심지어 김일성 정책을 선전하는 동시에 북조선 공민증을 발급 받도록 권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 2만 명이 참가하여 북한 공민이 되어 1958년경에는 조선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백 명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북한으로 진출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시 사할린으로 귀국하고자 도망쳐 국경을 넘다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 사살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체포된 자는 성분 불량자로 몰려 시골과 탄광으로 끌려가는 등의 민족 간의 비극을 재현했다(이정

내와 장남을 데리고 북한으로 간다. 하지만 북한에 가니까 고향에는 갈 수도 없었으며, 소련에도 갈 수 없게 되자 북으로 간 지 2달 만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 장례는 고향에서와 같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장례는 삼일장으로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지관이 와서 풍수에 의해 못자리를 잡았다. 풍수는 한 하늘과 땅의 만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산과 하늘을 유기적으로 이어주고 물은 산의 혈맥이 되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재해, 2012). 그리고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특히 상중에는 이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일에는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는 부모님께서 이승에서라도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가셔서 편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림 IV-59]제사
(연구 참여자 D)

“ 원망도 많이 했어요. 형만 데리고 북한으로 갔으니까요. 내가 둘째인데 남은 가족들은 제차지가 되었어요. 나는 학교에 안가도 동생들은 공부시켜야 하고.(중략)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할린에 갔으니까 한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지요. 우리 한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15.10.06.)

[그림 IV-59]는 연구 참여자 D의 아버지 묘 사진이다. 그의 소원은 통일이 된 미래로 연결되어 부모님 산소에도 가보고, 형님도 만나는 것이다. 그는 사진을 보면서 길게 한숨을 쉰다. 대를 이을 장남을 데리고 북으로 간 아버지가 야속하다. 그는 둘째로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그와 부인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들도 공부를 시켰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밤낮을 가리지

, 1997).

않고 공장에서 바느질을 하며 자녀를 키웠다. 지금 그는 어려웠던 과거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향수로 자리하고 있다.

“아들이 유난히 착했어요.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다 잘했어요. 평소에 뭐라고 하면 “예”라고 하지 “안 돼요. 싫어요.” 그런 말을 모르고 살았어요. 일찍 갈라고 그래 착했는지. 죽었다고 연락 왔어요. 거짓말이겠지 하고 갔더니 거짓말처럼 정말 죽었더라고. 내 그걸 묻고 오는데 걸을 수가 없었어. 그래 내 언제나 속상한지 아요? 1년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지그 아빠 없는 소년 생각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 자식을 가슴에 묻었어. 내 속이 까맣게 났소.”(연구 참여자 D, 16.01.04.)



[그림 IV-60] 아들 제사
(연구 참여자 D)

“ 차남이라 부모님 제사는 안 지내요. 하지만도 내 아들 제사는 지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중략). 설이나 추석에는 아들 사진 옆에 부모님 사진 놓고 피도 올리고 술한 잔 부어주는데 내 마음이 마음이 아니지(중략). 음력으로 안 하고 양력으로 해요. 1월 1일 설날에 벌써 했어요.”(16.01.04.)

연구 참여자 D는 아들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어렸을 때로 이동한다. 그에게 아들에 대한 기억은 ‘유난히 착한 아이’로 남아있다. 그는 차남으로 부모님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더욱이 그의 부모님 산소는 모두 북한에 있어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장 쓸쓸한 날이다. 게다가 2009년에 아들이 사망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 D는 2009년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짓말 같았다고 한다. 아들이 죽은 후 1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았고, 거의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살았다고 한다. 아들의 죽음이 마음의 병을 가져오고, 마음의 병은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아들의 사망은 그에게 많은 것을 잃게 한다. 특히 아들 제삿날에 사할린에 있는 며느리와 손녀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경험 중 특징적인 것만을 선정하여 각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경험들을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연구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그들의 경험을 '타향 속 고향'이라는 주제를 내러티브로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구성하는 통과의례의 의미는 고향, 즉 공간적 의미의 고향이 아닌 시간적 이야기이면서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할린 한인들이 지닌 고향의 의미를 통과의례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확장한다.

IV장에서 기술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의미 중 출생에서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D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출생'이라는 공통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 하지만 이들의 감정은 서로 다르다. 연구 참여자 A의 '출생'은 딸의 출산이 중심에 있으며 '나의 금단지'로 표현함으로써 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정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C의 '출생'에서는 자녀의 출생을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내 자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연구 참여자 자신의 당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통과의례 중 '결혼'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E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공통으로 사할린 한인들은 전통혼례를 표방하고, 타민족과의 혼인을 지양하며,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타민족과의 결혼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과의례 중 '환갑'에서는 형식은 간소화되었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갑'에서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E의 이야기로 구성했다. 연구 참여자 A의 환갑에서는 가족이 늘어나 '가족이라는 두터운 울타리'가 생긴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연

구 참여자 C의 '환갑'에서는 러시아 며느리의 효심으로 의미화되었다. 연구 참여자 E의 '환갑'에서는 '낙엽이 되어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현재의 '나'를 희망이 없다는 감정을 갖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죽음'에서 연구 참여자 B의 이야기와 연구 참여자 D의 이야기, 연구 참여자 E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B의 '죽음'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연구 참여자 D의 이야기에서는 '가슴에 묻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연구 참여자 E의 내러티브에서는 '맴도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의미화하였다.

이처럼 각 통과 의례별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미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 참여자 부모가 과거 고향에서 경험한 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개인의 축적된 경험은 부모님이 경험한 범위와 비례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통과 의례는 직·간접경험 때문에 다양하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 맥락과 상호작용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비슷한 시대적·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기 풀어내는 이야기는 다르다.

이러한 통과 의례는 고향에 기원을 두지만 다음 세대와 연결함으로써 집단 공동체로서의 고향으로 의미가 상징적으로 확장된다. 통과 의례는 단지 고향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하다. 고향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들임으로써 현재 연장 선상에서 펼쳐진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V. 통과 의례에 나타난 ‘고향’과 ‘민족 정체성’

본 장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 의례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문제 2를 중심에 두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통과 의례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고향을 떠난 사할린 한인들이 고향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통과 의례를 통해 고향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제시한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연구 일지와 현장노트 등을 반복하여 읽고 보는 과정을 통해 영주귀국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부모가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삶과 이방인으로 살아온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영주귀국자들의 70년이 넘게 고향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을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잘 나타내기 위한 ‘은유 찾기’를 제안한다. 예컨대 인간은 하나의 경험에 대한 은유, 즉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Clandinin과 Connelly(1999)는 ‘풍경’을 제시한다. 그들이 말하는 풍경이란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성에 의해서 구성된 다양한 사건 등의 내러티브 공간을 의미하며 이야기의 장소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 의례 경험을 ‘고향 메타포’라는 은유로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행위의 하나인 통과 의례를 통해 고향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의미화하였다. '고향'은 나고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뜻하며, 고향하고 어머니 품과 같은 포근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원풍경이다. 돌아갈 수 있는 꿈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고향이란 회귀해야 할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향이 아닌 탈향의 서사가 형성되었다.

'사할린'은 사할린 한인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선들을 마주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담론을 비롯한 이방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편견, 선입견 등의 이야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사할린 한인들이 기존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적 풍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다. 소수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가족구성원들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담론에는 사할린 한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향의 메타포가 들어있다.

1. 고향 메타포

사할린은 모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국의 문화를 접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일정한 기간 유지하면서 지내온 것은 '고향'이라는 관념 때문이다. '고향'은 사람들을 결집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생긴다.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고향의 행위인 통과 의례가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힘을 얻는다.

<표 V-1> 고향 메타포 의미

범주	하위 범주
정신적 안식처	따뜻한 어머니의 품
	정신적 지주
공동체적 삶이 살아 숨 쉬는 곳	내부를 향한 결속
	양식을 공급하는 토양
뿌리 내릴 수 없는 땅	흔들리는 고향
	빈 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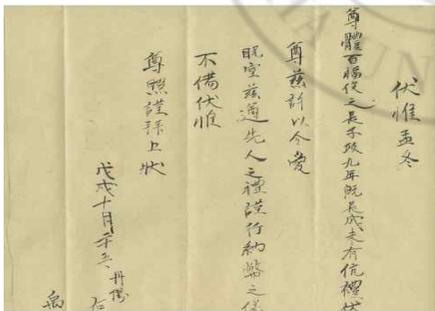
<표 V-1>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 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고향 메타포'로 의미화한 것이다. '고향 메타포'는 다시 '무형식 정신적 안식처', '공동체적 삶이 숨 쉬는 곳',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으로 세분화하였다. '무형식 정신적 안식처'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정신적 지주'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공동체적 삶이 숨 쉬는 곳'은 '내부를 향한 결속'과 '양식을 공급하는 토양'으로 의미 되었다.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은 '흔들리는 고향'과 '빈 등지'로 해석하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고향의 메타포를 설명하였다.

1.1 무형식 정신적 안식처

강제이주로 고향을 잃어버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를 통해 그들의 '고향'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고향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머니를 통해 들어보았던 고향을 그리게 된다. 부모를 통해 경험한 고향에 대한 간접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향은 조국이요 어머니이다.

1.1.1 따뜻한 어머니의 품

고향은 혈통 및 가족 내에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로 구성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부모님을 통해 고향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함'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림 V-1]
손 없는 날

" 한인한테는 날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안 좋은 날을 피한다는 의미니까. 이걸 써서 색싯집에 보내면 손 없는 날로 잡아요.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보낸다면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딸을 보내지."(연구 참여자 A, 15.08.12.)

[그림 V-1]은 딸을 출가시키기 위해 애쓰는 부모의 마음이다. 연구 참여자 A가 결혼할 당시에 사할린에서는 달력에 음력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하여 모든 의례나 행사를 진행한다. 손 없는

날을 잡는 것은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을 그르칠까 염려하는 마음가짐이다.



[V-2]아버지의 빈자리



[그림 V-3]청실홍실

위의 [그림 V-2]와 [그림 V-3]은 연구자의 결혼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 A의 사주단자를 통해 연구자는 1987년 연구자의 결혼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연구자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주단자를 꺼내어 보면서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한다.

연구자가 결혼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다. 아버지는 막내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60세에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장차 막내 사위 될 사람이 마음에 들어 주말이면 집으로 불러 장기와 바둑을 가르치면서 딸이 자라온 과정, 딸의 성격, 집안의 가풍 등을 말씀하시면서 딸을 부탁한다.

연구자는 연구자가 결혼할 당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궁금해진다. 친정어머니는 연구자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타까웠고, 딸이 좀 더 엄마 곁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리고 26살이지만 밥도 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잘 살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고 자기 계발을 위해 좀 더 사회생활을 했으면 했다고 하신다.

아래 [그림 V-4] '어머니, 그리움'은 1958년 연구 참여자 A의 결혼 당시 집에서 찍은 사진이다. 58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기억에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는 결혼사진에서 딸의 결혼을 위해 옷을 짓는 장모님의 사랑과 마주한다. 한복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다. 그의 손길에서 당시 결혼할 때로 돌아간다.



[그림 V-4]
어머니, 그리움

“ 한복은 우리 장모님이 직접 만들어 준 거요. 이 옷을 만들면서 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요. 영주귀국할 때 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꺼내 보는 것 같어. 어머니가 그리워서. 사랑이요. 꽃도 직접 만들어서 달고. 참 고왔는데.”
(연구 참여자 A, 15.08.12.)

당시 사할린 한인 사회에서는 결혼하는 당사자가 자기 옷을 지어 입고 결혼을 하면 잘 살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는 시집가는 딸을 위한 옷을 직접 지어 주신다. 아마도 이는 한민족의 정서인 ‘정(情)’이라고 해석된다. 어머니는 딸의 옷을 짓는 동안 과거로 돌아가 딸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고, 현재의 곱게 자란 딸과 헤어지는 섭섭한 마음,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미래를 생각했을 것이다. 결혼식에 입었던 옷은 단순히 예복이 아닌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과거를 거쳐 현재에 머물러 연구 참여자 A와 함께 가고 있다.

연구 참여자 A가 2007년 영주귀국 할 때 짐 속에는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과 머리에 쓴 베일, 그리고 장모님이 해 주신 이불까지 다 들어있다. 그가 58년이 지난 지금 결혼식 때 입었던 옷과, 베일, 이불을 가지고 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의 이삿짐 속에 들어 있는 한복과 베일, 이불은 단순히 지나온 과거의 추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가 이삿짐 속에 어머니의 그리움을 가지고 옴으로 딸을 출가시키던 날 서운함에 눈물을 흘리던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하하 어제 그저께 잔치한 거 같은데 벌써 25주년이라. 이 모자(갓)는 특별히 우리 막내 딸래미가 만들었어. 아빠 이거 쓰고, 엄마는 한복 입으라고. 이 한복은 우리가 결혼할 때 입었던 거고. 할머니의 사랑을 딸이 알아요. 고향도

내 가족처럼 따뜻한 곳이지.”(연구 참여자 A, 16.02.06.)



[V-5]
가족 애(愛)

“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요. 우리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하고 놀러가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중략) 우리 집사람은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꺼내어 놓고 중얼중얼 얘기해요. 장모님하고 얘기 하는 거겠지.”(연구 참여자 A, 15.11.22.)

위의 [그림 V-5]는 연구 참여자 A의 결혼 25주년을 맞아 친구들과 야외에서 결혼식을 재현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그가 쓴 것은 딸이 만들어 준 것이다. 딸은 아버지가 쓸 것을 만들면서 외할머니와 만나고 그는 이것을 통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한다. 그는 부인이 결혼할 때 머리에 쓴 베일을 만지면서 구겨진 꽃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쉰다. 그의 한숨에는 지나간 많은 추억과 애환, 그리고 현재의 ‘나’와 ‘딸의 미래’로 이어진다. 딸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희망도 함께한다.

“내가 27살에 처음으로 맞선을 봤어요. 우리 동네에 아버지 친구가 계셨는데 그분이 중신했어요. 선을 보는 날 중신애비가 맨 앞에 가고, 그다음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제가 따라서 갔어요. 보니까 얼굴이 빨그레하고 이뻐서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마음에 든다고 택일하자고 하더라고요.(중략) 여자라고는 처음 만나니까 설레지.”(연구 참여자 B, 15.09.03.)

현재 ‘77세’의 연구 참여자 B는 ‘맞선 보는 첫 날에 대한 설레임’이 스물일곱으로 오버랩하여 결혼에 대한 향수를 불러온다. 결혼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목소리에 기운이 들어갔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미소를 가득 머금었다. 아래 [그림 V-6]은 연구 참여자 B가 결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림 V-6]
시작, 그 설레임

“ 사주요. 무슨 해에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써서 여자에 보내면 보통은 어머니들이 손 없는 날로 잡아요.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중략)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거요. (연구 참여자 B, 15.09.03.)

그는 이것을 영주귀국할 때 가지고 왔지만 8년 동안 잊고 있었다. 이번 연구 참여의 기회가 그동안 그가 잊고 있었던 사주단자를 기억의 창고에서 조심조심 꺼내어 현재로 불러온다.

맞선보러 가던 날 중신아비 뒤에 아버지, 아버지 뒤에 연구 참여자 B가 걸어간다. 피부가 하얗고 통통하니 복스럽게 생긴 조선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한다. 여자도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어하는 것을 보니 싫지는 않은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둘은 결혼을 결정하고 두어 번 만나 영화를 보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다.

1.1.2 정신적 지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거주국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어 산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이 주는 힘이다.

연구 참여자 B의 부친은 일본으로 갈 때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박씨단자’를 가지고 간다. 박씨단자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나타내주는 ‘나의 뿌리’인 셈이다. 이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가를 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증표가

된다.



[그림 V-7]
나의 뿌리

“ 건 다 버렸는데 이것만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시면서 가지고 갔었어요.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나한테도 힘이 됐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을 꺼내어 보고 아버지 생각하고 힘을 냈어요.”(연구 참여자 B, 15.12.13.)

연구 참여자 B의 부친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친이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것을 보고 우셨는지 이제는 이해할 것 같다. 연구 참여자 B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친의 교훈으로 힘을 얻었다.



[그림 V-8]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 제삿상에 절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고향 가니까 같이 갑시다.” 하니까 좋아하네요. 영정사진 꺼내 놓고, “아버지 고향에 왔어요. 여기서 편히 삼시다.” 하니까 고맙다고 했어요. (중략) 아버지 힘으로 살았지. 나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소.”(연구 참여자 B, 15.08.22.)

연구 참여자 B는 2007년에 인천으로 영주귀국함으로써 그의 정신적인 지주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까지도 고향으로 오게 된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상의 제를 올리면서 “이제 저랑 같이 고향으로 갑시다.”하며 절을 올린다. 한국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도 조상의 영정 사진을 들고 들어와서 제를 지낸 것이다. 그는 “아버지, 아버지가 그리던 고향에 왔으니 편히 쉬십시오.”라고 절을 올려 고향

으로 같이 왔음을 신고한다. 아버지 제삿날 고향으로 모시겠다고 고하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한 아버지와 고향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다. 이는 고향에 도착했다는 종착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그에게 고향은 아버지이며, 아버지는 나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면 우리 형제들을 앉혀 놓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제사상 차림, 지방 쓰는 거.(중략) 아버님 노래가 "너희가 살길은 교육뿐이다. 많이 배워야 무시당하지 않고 나라 없는 이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너희들만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랑 같이 고향으로 가는 거다.(중략) 아버님 살아생전에 못 오시고 영정으로 모시고 왔어요.”(연구 참여자 E, 15.11.06.)



[V-9]
고향으로 온 아버지

“ 모시고 한국으로 오던 날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오셔야 하는데 아버지를 영정 사진으로 모시고 왔으니까. 제사 때 상 채리는 것도 아버지가 가르치고(중략). 우리 애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은데, 애들도 할 줄 알기야 알아요. 하지만도 요즘은 바쁘니까.”(연구 참여자 E, 15.09.12.)

연구 참여자 E는 영주귀국 하던 날 아버지를 영정 사진으로 모시고 고향에 온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아버지와 만난다. 아버지는 “나는 무식자라서 뭘 새로 배우고 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제사상을 차리고, 지방을 쓰고 하는 것은 몸에 밴 것을 하는 것이니 니들도 나를 따라서 해라.(중략) 내가 지금 뭘 바꾸면 고향에 가면 또 바뀌야 하는데 뭘 바꾸냐. 나는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못 가면 너희들이라도 고향으로 가거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고향을 전수한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민족적 차별을 받지 않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훈육한다.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조선의 국적을 버리고 소련 국적을 받던 날 “이놈들아 너희가 살길은 교육뿐이다. 교육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울부짖는다. 연구 참여자 E가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부친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기일에 참석한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함으로써 자녀와 할아버지와 연결 고리를 찾는다. 그의 바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없더라도 자녀들이 할아버지 기일에 참석하여 할아버지와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의성. 의성. 아버지는 공부는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지식이 많은 아버지야. 아버지는 목적은 고져 아들 하나 공부시키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중략)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몸을 낮추는 것을 봤거든. 이런 거 다 아버지한테 배웠어. 누가 가르쳐 주나,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해요."(연구 참여자 A, 16.02.06.)

연구 참여자 A의 아버지는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40세에 사할린 행거차에 오른다. 사할린으로 가던 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2년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돌아와 학교에 보내줄게.”하면서 집을 나선다. 아버지의 사할린 행은 외아들인 연구 참여자 A의 교육을 위한 선택이다.

아버지는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되어 탄광 등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일을 한다. 위험을 감수하며 고된 노동을 해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삶을 살면서 연구 참여자 A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다. 부친은 삶이 고될수록 연구 참여자 A의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교육만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에서다. 아버지가 힘든 시간을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 대한 믿음이며 그가 무국적자로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견디며 시의원으로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아버지이다.

1.2 공동체적 삶이 살아 숨 쉬는 곳

사할린 한인들에게 '고향'은 조상들과 자신의 기원지라는 의미와 거주국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들의 고향에는 그들의 부모들이 기억하는 고향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모를 통해 간접 체험한 고향의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다. 또한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고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향을 떠난 사할린 한인들의 고향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1.2.1 내부를 향한 결속

고향의 정신적, 물질적인 영향은 그 사람을 평생 지배한다. 이는 고향은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마을은 집의 공간적인 확대다. '고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민족동질성과 정체성이 합쳐져 더욱 견고한 연결망을 구축한다. 고향은 개인의 고향으로 시작하여 그의 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 모두의 고향, 즉 집단 공동체로서의 고향으로 확장된다. 고향은 사랑과 행복이 흘러넘치고 현실의 삶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공동체적 삶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하나의 사회 집단에서 경계 내기 '테두리'는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것은 주변 환경 및 주변 세계에 대적하여 외부에 대해 경계지우기, 그리고 내부를 향한 결속이다.

“ 나면 다 와서 도와줘요. 당사자는 초상이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삼일장을 하는 동안 고향에서 온 사람들끼리 푹푹 뭉쳐서 일사천리로 끝내요. 의형제라는 건 혈육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은 다 안 계셔요. 다 돌아갔습니다.”(연구 참여자 C, 16.02.14.)

지금 생활이 어렵고 고독할수록 고향은 더욱 그리운 존재가 되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하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는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그들은 모두가 고향을 등진 까닭에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유일한 길은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잔치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을지 모른다. 통과의례는 고향을 잃은 상실감에서 오는 고독을 서로 나누며 고향을 투사하여 또 다른 고향 만들기가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은 그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한다. 이때 형성된 마을은 일종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통과의례 장소이다. 세파를 이겨나갈 훈련장이자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공동의 통과의례를 경험하고 공동의 성장 경험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정체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며 변하지 않는다.

“ 사할린에서 도시마다 다 있고, 그 친척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타향에서 살아나갈라면 어렵잖여. 서로 서로 도와주고, 무슨 집에 대사가 있다 하면은 꼭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중략) 사실상 그때 소련 시대는 그런 거 공식적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인들이 뭉치면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반대했지.”(연구 참여자 A, 16.02.06.)

통과의례 행위는 전통적 믿음 속에 살아왔던 한인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고향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통과의례를 함으로써 희극장소가 되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기회이기도 하고 사회적 만찬의 날로써 모든 한인들이 모여 사회적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한인들은 고향에서처럼 일이 없을 때는 이웃집으로 마실을 가며 음식도 해 먹고 놀기도 하지만 만약 어느 집에 혼사나 초상이 생기면 음식으로 부조하거나 노동으로 품앗이하며 집단 내부를 강화해 간다. 동생간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공동 노동을 한다. 이는 공동의 활동이고, 고향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유된 문화는 집단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위협이 된다.

“45 후부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전통문화라든지, 통과례 같은 걸 갖다가 보전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런 행사들을 자꾸 벌이지. 우리가 봐 와서 배운 거예요. 학교가 있어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거예요.”(연구 참여자 D, 15.10.06.)

“사할린도 집집마다 없지않은 동네 두어 개씩 돌아다니는 맷돌하고 절구가 있었어요. 오늘 누구 집에 결혼을 한다 하면 맷돌이 돌아요. 절구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네 집에 제사다, 뭐 다 다 알아요.”(연구 참여자 E, 15.07.21.)

연구 참여자 D와 E의 내러티브에는 고향의 친밀한 정이 있다. 고향은 똑같은 의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상적 매개체이다. 고향의 정서를 담은 맷돌과 통과례는 사할린 이주의 과정과 영주귀국 후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사회적 드라마이다. 사회적 드라마로서의 통과례는 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다시 그들이 만들어내는 통과례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주 역사 전반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고향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한 인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들은 이웃 간에는 경조사는 물론, 손가락이 몇 개인지 헤아릴 정도로 친밀하다. 서로의 신상과 내력을 알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랜 시간 사귄 인정을 내포한다. 마을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웃 간의 바람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을공동체 성원들은 동네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기 때문에 더욱 돈독하다. 고향은 자기 동질성의 토대가 된다. 고향 사람은 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리며,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은 정이 메마른 곳이라고 대비하여 말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1.2.2 양식을 공급하는 토양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에 사는 그들은 사는 땅을 고향처럼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고향에서 행하던 의식들을 거행하며 고향과 유사한 대체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Relph, 1976/2008:150). 고향이야말로 그 사람과 별개가 아닌 개개인의 동질성이자 양식을 공급하는 토양이 된다. 고향은 물리적이고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정신적이다.

“ 중에 돈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회의를 해요. 아무개가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 좀 소개 해라. 결혼을 시키자. 집을 주자 등등. 또 멀리에 사는 의형제가 있으면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여기로 이사 오라 하고 자꾸 모여 살지. 고향을 만드는 거야. 몸만 사할린이지 고향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만든 고향이 힘이 되는 거지.”
(연구 참여자 E, 15.08.23.)

사할린 한인들은 대부분 ‘동생간’이라는 ‘계(契)’를 조직하여 힘을 얻고 위안을 받는다. 동생간은 일정한 친숙성을 수반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동생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부모 형제의 그리움을 달래고 모든 대소사를 함께하며 공동 성장을 꾀한다. 멀리에 사는 의형제들은 형제를 가까이에서 모여 살게 되고, 만약 소속 구성원 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모든 동생간 구성원들이 나서서 공동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경험은 고향의식과 지각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이러한 경험과 지각은 결과적으로 나의 힘이 되고 문화 전승의 토대가 된다.

“우리 한인들은 집에서 했어요. 국수를 70kg 나 뺐어요. 아휴, 동네에 사는 한인들은 다 왔어요. 환갑을 안 하는 한인이 어디 있어요. 한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지. 이걸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고향을 꿈꾸기도 하고.”(연구 참여자 D, 15.12.23.)

연구 참여자 D는 환갑 사진을 통해 1942년 아버지가 홀로 사할린으로 갈 당시를 생각한다. 물론 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이주할 때 그는 3살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 단지 그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들의 경험에

의한 기억이다. 많은 한인들이 그랬듯이 아버지도 사할린에 가서 1년만 일을 하면 돈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모집에 의해 사할린으로 간다. 아버지는 별목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고향을 그리워한다. 연구 참여자 D는 1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오지 않자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형과 같이 아버지를 찾아 사할린으로 간다.



[그림 V-10]
가족이 그리운 사람들

“ 아버지가 갈 때는 홀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한 집에 자식들이 보통 7~10명이요.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가족이 그리운 사람들이니까.(중략) 가족은 나의 힘이자 든든한 울타리지.”(연구 참여자 D, 15.07.23.)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환갑’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 가족과 친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이웃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의례를 행함으로써 공동체와 집단에 대한 강한 감정적 애착을 쌓고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림 V-11]
귀향의 꿈

“나는 혼자 사할린에 갔어. 30에 결혼해서 자식 서이 낳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생기고.(중략) 새고려신문하고 우리말방송에서 우리 사할린 한인 1세대들 환갑에는 어떻게 하고 보여주니까 그걸 보면 고향에서 하던 거가 생각나고, 또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꿈이 생겼지.”(연구 참여자 C, 15.11.11.)

[그림 V-11]은 1982년에 찍은 연구 참여자 C의 환갑 사진이다. 그가 사할린으로 간 지 40년이 되던 해이다. 그는 사할린에서 30에 결혼하여 자녀 셋을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모두 결혼을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에게는 고향에 가는 일만 남았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에 관한 소식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한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한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내 어렸을 적 고향으로 가곤 한다.

텔레비전에 비친 고향을 보고 나면 고향이 더 그리워진다. 그리고 꿈을 꾸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에게 고향은 힘이 되는 매체다. 고향은 개인이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정신적인 장소로 자신의 현재 삶의 연장선상 위에 위치함으로써 완성된다.



1.3 뿌리 내릴 수 없는 땅

1.3.1 흔들리는 고향

고향에 대한 애착은 그 곳에서 거주한 시간이 오래일수록 더 커진다. 고향에서의 추억은 더 많은 그리움을 낳고 물리적 환경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맺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주국의 국민으로의 삶을 살면서 생존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문화적 동화만 수용했을 뿐 여전히 모국에 대한 민족의식도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산다.



[그림 V-12]
바다로 간 어머니

“ ?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별초가 뭐예요? 산소가 있어야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어요. 어머니는 고향 진도로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어요.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바다로 보내드렸어요. 바닷물 따라 흘러 흘러 아버지 곁에 계시겠지요.”(연구 참여자 B, 15.12.13.)

연구 참여자 B의 모친은 2010년에 영주귀국하여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2년 동안 살다가 2012년에 사망을 한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고향인 진도로 가지 못한다. 그는 부친한테서 배운 관습대로 삼일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인천에서 가까운 바다에 뿌린다. 그는 영주귀국하면서 영정으로나마 아버지를 고향으로 모시고 와서 늘 함께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유골을 바다에 뿌리면서 아버지 곁에 가길 희망한다. 바다는 이곳과 그곳의 경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바다는 경계를 나타내는 바다가 아닌 비경계의 유동성을 가진 바다의 속성이다. 고향 땅에 왔지만 고향에 묻힐 수 없는 현실, 사후에라도 모친이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부친이 묻힌 사할린으로 가라는 뜻이다.

“ 끝나면 돌이 앉아서 음복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소에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렇게 못해요. 과일 서너 개 놓고 절만 해요. 이번에는 서운하게 해서 죄송하다 하고. 애들이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식들 좀 도와주고 건강 좀 지켜달라고”(연구 참여자 B, 16.01.17.)

“ 할머니 기일이나 추석에 집에서 제사 지내고, 버스 타고 연안부두 가요. 술 하고 안주 좀 가져가서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바다에 절하고 술 한 잔 드리고 앉았다가 오죠. 한국 사람들은 다 산소 가네, 어디 가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지.”(연구 참여자 B, 15.08.22.)

연구 참여자 B가 연안부두를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연구 참여자 B의 공간으로써의 고향은 일본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B가 말하는 고향은 그가 나고 자란 일본이 아니다. 바로 진도다. 그는 2007년 아버지 고향, 나의 고향에 왔지만 나의 고향은 찾을 수 없다. 친척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는 힘든 일이 있거나 울적할 때 연안부두를 찾는다. 그곳에 가면 할머니도 어머니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연안부두를 찾는 것은 지금 ‘나’의 현실 때문이 아닐까? “만약 영주귀국하지 않고 사할린에 있었다면 어머니를 부친의 묘 옆에 모셨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그는 어머니의 유골을 바다에 뿌려야 하는 불효 때문에 ‘고향’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

“사할린에 있다가도 부모님 제가 때가 되면 한국으로 옵니다. 사할린에서 제사를 지내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고향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또 사할린이 그리워요.(중략)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는요? 뭘 남길 수 있나요? 부잣집은 애완동물도 죽으면 산에 갖다 파묻어 주는데 우리는 죽으면 바다에 뿌리잖아요. 비석 뒤에 아들이 누구라고 이름 석 자만 써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연구 참여자 E, 16.01.11.)

연구 참여자 E는 일본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 2년에 한 번 사할린에 역방문을 한다. 그는 사할린에 있다가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온다. 사할린에서 지내면 자식들도 참석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고향으로 모시고 온 부모님을 생각하여 제사는 고향에서 지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제사를 마음대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사나 명절이 되면 더없이 쓸쓸하고 슬프다.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연구 참여자 E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영주귀국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할린동포들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들이 영주귀국한 후 다시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데는 자녀와 부모 즉, 사할린과 고향 둘 사이의 관계에서 모순적이며 충돌이 발생하는 갈등이 존재한다. 사할린에서는 부모한테 전이된 고향이 그리웠다면 지금은 자녀가 있는 사할린을 그리워한다.

“ 조상님께 절하고 경로당에 갔어요. 명절날은 경로당도 한가해요. 다 고향에 내려가거나 자식들이 찾아왔겠지. 그러나 우리는 갈 데가 없잖소. 경로당에 가서 체스를 하고 노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풀뿌리 캐 먹고, 보릿고개 보낼 때 니네들은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왔냐?”(중략) 이렇게 서러울 데가 있습니까?”(연구 참여자 A, 15.11.06.)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잤는데, 지금은 잠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는 연구 참여자 A의 하루는 아침 일찍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침을 먹고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점심을 먹고 경로당에 가서 체스를 둔다. 연구 참여자 A는 명절날 경로당에서 생긴 일에 대해 말을 잊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 A가 말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연구자의 노트에서).

연구 참여자 A가 경로당을 찾은 날은 추석 명절이었다. 차례를 지내고 경로당에 갔을 때 노인 한 분이 “나라가 살 만하니까 얻어먹으러 왔냐”

고 고향을 치는 바람에 더욱 슬픈 명절을 보낸다. 연구 참여자 A가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는 사할린에서 교사로 정년퇴임을 하고 시의회 의원으로 일하다가 영주귀국하였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영주귀국은 노후를 편히 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효의 방법이다. 그가 이제야 고국을 찾은 것은 자의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 참여자 A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해야 해요. 내가 산 증인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갈 거요.”하며 ‘우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대신하곤 했다.

1.3.2 빈 등지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에서 도출한 고향의 의미를 의미화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나 자기가 태어난 실제의 고향에 등지를 튼 것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타향에 등지를 튼다.



[그림 V-13]
빈곶데기

“ 고향 가는 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로. 갈 고향도 반겨줄 사람도 없소.(중략) 애들이 있어야 할아버지가 이렇다 할머니가 저렇다 하지. 내가 언제까지 살랑가는 몰라도 내 살아생전이지. 물려줄 집이 있나, 땅이 있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빈곶데기요.”
(연구 참여자 B, 15.09.03.)

연구 참여자 B가 영주귀국함으로써 그의 할머니도 아버지도 고향으로 올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의 차렷상은 시간이 갈수록 밥그릇 수가 늘

어난다. 얼마 전에 영주귀국하여 서로 의지하고 지내던 처남이 사망하면서 장인 장모의 제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²⁹⁾

연구 참여자 B는 이번 추석에도 두 노인이 절을 한다. 그는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인과를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본다. 그는 고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가 노래한 고향과 내가 전수받은 고향은 감사해야 할 장소로서, 치유하고 위로하는 의미로서 최후에 돌아가야 할 본향이며, 뿌리와 근원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김민정, 2006)이다. 이처럼 그에게 고향은 타향살이로 불안정한 존재를 안정적인 존재로 전환해주는 장소로 고정되어 있다.

그가 고향을 찾은 것은 1992년에 고향방문단을 통해서다. 그는 당시 다음에 고향에 올 때는 아버지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따뜻하고 양지바른 곳에 아버지 묘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가 다시 고향을 찾은 것은 2007년 영주귀국하였을 때이다. 영주귀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도에 갔을 때 친척들은 바쁘다며 그를 외면했다. 갑자기 그가 나타나면서 재산 상속의 문제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지고 급기야는 연락되지 않는 상태이다.

“날 거지 취급하세요. 우리가 거렁뱅이로 보이냐 봐요.”(눈물) 그는 회한으로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라도 말하고 나니 후련하다.”고 한다.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왔다는 그에게 지금 이곳도 고향이 될 수 없다. 고향보다 더 외로운 타향살이다. 과거에는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다고 위안으로 삼았던 고향이라면 지금 그에게 고향은 여전히 ‘?’ 표로 남아 있다.

지금 그는 고향의 단절을 염려하고 있다. 자녀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향이 연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이다. 자녀들이 한국과 관계를

29)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할 당시 대부분 독신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친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촌 이내 정도였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친부모, 처부모나 양쪽 모두 차별 없이 대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나 사위와 딸에 대한 관계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은숙, 김일립, 2008).

유지할 공통의 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빈 등지’라고 느낀다.

“ 있을 때는 지방도 써서 붙이고 했어. 사할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지방 써서 붙이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 거지. 근디 고향은 그렇지 않아.”(연구 참여자 B, 15.09.03.)

“결혼식을 하려면 떡을 치고, 부침개를 부치고, 콩나물을 기르고, 두부를 하려고 맷돌을 돌리고.(중략). 그런데 여기 오니까 고향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 마트에 다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음 따로 몸 따로야.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마음은 항상 사할린에 있어. 부모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유전되었는지.”(연구 참여자 E, 16.01.11.)

연구 참여자 B는 사할린에서 생각한 고향과 영주귀국하여 체감하는 고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할린에 거주할 때는 혼례에 참석하고 환갑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한인이다’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의식이나 의례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한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다른 방법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에 온 뒤로는 내가 특별히 그러한 의식이나 의례를 하지 않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몸은 한국에 있어 한국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고향으로 신체가 허약해짐에 따라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의 의지는 어렸을 때는 부모였지만 지금은 자녀일 것이다. 영주귀국의 선택은 곧 자녀와의 이별이 되었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그들은 사할린이 그리워 공허하다. 연구 참여자 B는 향수병도 유전이라며 자녀를 그리워한다.

“옛그제 친구가 갔어요. 아들이 화장해서 지그 아버지 유골을 사할린으로 가지고 갔어요. 죽어서 뼈라도 고향에 묻히겠다고 했는데.(중략) 그 친구 집에 가서 유골을 정리하잖아. 유품이랄 게 있다. 여권하고 주민등록증 챙겨서 보냈지.

것도 없어. 빈 등지여. 몸만 있었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니까 영 마음이 안 좋아.”(연구 참여자 D, 16.01.14.)

연구 참여자 D의 친구가 사망함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 D는 마음이 안 좋다. 더욱이 화장을 해서 유골을 사할린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묘를 쓸 만한 땅도 없을뿐더러 만약 묘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사망하면 천안의 망향의 동산 납골묘에 안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이 이요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러시아에서 사는 자녀들이 왔다가 다시 러시아에 가야 하는데 인천에서 천안이라는 거리가 멀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거나 유골을 사할린으로 가지고 간다. 그의 친구는 죽어서라도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고향 땅에 묻히겠다고 왔다가 정작 죽은 후에는 자손에 의해 다시 사할린으로 갔다.

연구 참여자 D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 나의 미래를 본다. 그는 친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족사진 몇 장과 친구들과 찍은 사진 몇 장을 발견한다. 가족사진과 여권, 그리고 한국인임을 나타내주는 주민등록증은 챙겨 보내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보내지 않고 연구 참여자 D가 가지고 있기로 한다. 그 사진마저 보내면 친구를 영영 보내게 될 것 같은 미련 때문이다.

“여기 할머니 하나가 죽었어요. 거기는 부부가 온 게 아니라 동거로 왔거든.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매일 좋다 나쁘다 하면서 찌그덕 거렸어요. 이걸 인간이 할 짓이 못 돼요. 처음 며칠은 체면 때문에 서로 잘 지내요. 그런데 며칠만 지내면 이제 70평생 개성이 다 나와요.”(연구 참여자 E, 16.01.11.)

연구 참여자 E는 사할린 동포 한 분의 죽음에서 영주귀국제도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한다. 연구 참여자 E가 이야기하는 동거인에 대한 문제는 일반 노인에게서 타나나는 외로움과 생활고, 질병에서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영주귀국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이다. 현행 영주귀국 대상자는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사할린에서 거주하거나 출생한 자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국내 거주 조건에는 2인 1가구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부부 외 동거인과 짝을 이루어야 되었다(최상구, 2014). 이러한 제도적 모순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급히 재혼을 해서 영주귀국을 하거나 동성끼리 짝을 지어 영주귀국을 하기 때문에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이은숙, 김일립, 2008). 심지어 동거인과 갈등이 불거져 역귀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들이 다시 사할린으로 역귀국을 하는 것은 고향이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2. 민족 정체성

「 고향길 」

-사할린 장윤기-

세 시간에 갈 수 있는 가깝고도 먼 고국
올해일까 내년일까 기다림에 지친 세월
죽기 전에 한 번만 가고 싶었던 원 풀리니
원통하다 이 땅 속에 눈 못 감고 묻힌 친우

아, 어머니 고국이여 그리운 부모형제
가고파 보고파 땅을 치며 울부 짚소
다녀 갈 입자 없는 그 신세 서러워
피맺힌 원한 속에 잃어버린 청춘시절.

시집 온 지 한 달만에 헤어진 그 꽃 각시
만난신고(萬難辛苦) 참고 견뎌 일편단심 기다려 온
절통한 그 소원도 못 풀어 주고 떠나다니
50년 고향 길은 또 다시 생이별 길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영주귀국하여 사망한 시인 장윤기의 시다. 사할린과 고향은 비행기를 타면 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그러나 50년 동안 그 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림에 지친 한인들이 동토의 땅에 누웠다. 50년 만에 고향에 갈 길이 열렸다. 그것은 영주귀국이다. 그러나 영주귀국은 1945년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거나 사할린에서 출생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자녀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생이별을 노래한 시다.

본 연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의 본질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V-2>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의 의미를 추출한 것이다.

<표 V-2> 민족 정체성 의미

주제	하위 주제
동일시	장례 : 삼일장
	명절 성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나의 민족정체성'을 나타내는 담보물
	아버지가 지어주신 '내 이름 석 자'
한민족 문화 계승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매개체
	고향을 전수 받다
민족 문화 공동체	'계(契)' · 동생간
	경계에 있는 사람들

<표 V-2>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으로 의미화한 것이다. '심리적 동일시'는 다시 '장례 : 삼일장', '명절 성묘'로 세분화하였다.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은 '나의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담보물'과 '아버지가 지어주신 '내 이름 석 자''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한민족 문화 계승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매개체'와 '고향을 전수 받다'로 의미되었다. '민족 문화 공동체'는 계(契)로 '동생간'과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세분화하여 해석하였다.

2.1 심리적 동일시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의 여러 가지 개념 중 '동일시'는 한 개인이 한국적 가치와 관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에서 '나는 이럴 때 한인이라고 생각한다.'로 '심리적 동일시'는 '장례: 삼일장', '명절 성묘'로 의미화 하였다.

2.1.1 장례: 삼일장

Montserrat Guibernau(2013), Shulman(1999)에 의하면 공동체에 속하는 개인들은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의례를 통해 특정한 영토에 애착을 느끼며 민족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절차를 보면서 역시 나는 한인이다. 즉, '나와 동일시한다.

“ 3년 탈상은 아버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니깐 우리도 그렇게 했지. 그게 부모에 대한 효라고 생각했으니까.(중략).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안 하고 병원에서 하지만 지금도 삼일장을 치르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 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연구 참여자 A, 15.12.06.)

김영순·정찬영(2008), 유권중(2004)에 의하면 우리 전통 상·장례에서 죽음은 삶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상례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죽음을 맞는 과정,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나누어 거행하였다. 죽음은 마침의 의미가 아니라 남은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이는 상·장례는 죽은 자를 보내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고 나아가서 사후에 제사를 올림으로써 사후에도 지속적인 효의 윤리 실천을 위한 예비 절차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A 역시 아버지의 장례는 주위의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에서 행하던 절차대로 삼일장을 지킨다. 3년 탈상 동안 따뜻한 밥을 올리고 출타를 보고하면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 A가 아버지의 장례에서 전통문화를 따른 행위는 아버지와 만남이자 효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3, 4세대는 러시아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박승의, 2014). 이들은 러시아 문화와 경제,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장례문화 역시 그 절차와 순서는 간략하게 되었지만 삼일장 등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의 전통을 만들어 간다.

“ 할머니가 1965년 88살에 돌아가셨을 때 동네 한 어르신이 할머니를 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셨어요. 관이 나갈 때 접시를 밟아서 깨고 갔어요. 상여가 가다가 다리 위에서 잡시 쉬었어요. 지관이 산에 가서 못자리를 잡고, 좋은 자리에 모셨어요. 삼일장 장례가 끝나고 위패를 모셔 놓고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식을 오렸어요.”(연구 참여자 B, 15.12.13.)

김영순, 정찬영(2008), 남민이(2002)에 의하면 장지로 가기 위해 관을 내올 때 접시를 얹어 놓고 관으로 그것을 깨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내세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세계에 통합시키는 의미이다. 이는 전이 의례로 다음 의례인 통합의례에 가기위한 준비 단계이며, 남은 후손을 위한 것으로 금기의 절차와 신성의 절차 수행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할린 한인들은 장례문화에서 삼일장을 선호했으며, 탈상은 가정의 형편과 종교 등에 의해 삼우제, 49일, 백일, 1년, 3년 등으로 하여 상의 기간은 다양했다. 세염의 과정은 한국에서는 베풀을 입히는데 반해 사할린에서는 삼베옷이 아닌 새 옷을 입히고 새로 산 구두를 신긴다고 한다(조성길, 2012). 요즘도 사할린 한인들의 장례의례에서는 삼일장을 한다.

연구 참여자 B의 할머니는 1965년에 사망했다. 그의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3년 동안 상을 차려 놓고 상식을 올리며 할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할머니는 억척스럽고, 고집이 세며, ‘나한테 만큼은 최고’로 기억한다. 연구 참여자 B는 할머니의 ‘장례의식’에 대한 기억에서 할머니의 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

“ 3년 탈상을 했고, 보통 상 중에는 목욕탕에 가서 별거벗고 목욕도 하지 않고, 수건에 물을 묻혀 닦는 정도로 씻었어요.(중략)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것 있으면 사다가 할머니 상에 먼저 올려놓고 할머니가 드신 다음에 우리가 먹고, 진짜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똑같이 했지요. 야~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한쪽 날개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이 서럽대요(서럽게 움). 지금도 장례식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요.”(연구 참여자 B, 16.01.17.)

연구 참여자 B의 아버지 또한 출근하기 전에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고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사서 어머니상에 먼저 올리면서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니 많이 드세요.”라고 올린 뒤에 식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 B에게로 전이되었다. 연구 참여자 B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한쪽 날개를 잃은 것 같았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말한 것은 할머니에 대한 정이며 그리움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가 가장 생각이 났고,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힘이 들 때면 할머니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도 부르고 투정도 부린다. 연구 참여자 B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름으로 평온을 찾는다.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다.

2.1.2 명절 성묘

연구 참여자들은 명절이 되면 ‘내가 한인이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우리 민족에게 명절은 신나고 즐거운 날이다. 명절이 되면 일가친척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놀이와 음식을 통해 한 데 어울렸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명절에 관한 이야기에서 ‘동일시’로 의미된 것이다.



[그림 V-14]
 풍경: 공동묘지

“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묘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고향에서 하던 대로. 우리는 추석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요. 사과, 배 등을 가지고 가서 술 한 잔 부어드리고 절 한번 하고 오면 마음이 편하지요. 추석이 되면 한인들은 공동묘지에 다 모여요.(연구 참여자 D, 16.01.14.)

연구 참여자 D와 러시아와 한인, 두 개의 국가와 민족, 언어, 습관과 문화 등으로 정체성에 혼돈이 야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에 대한 향수는 일가친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행복한 날, 즐겁고 풍족한 날’이다. 그들은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는 ‘한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추석이 되어 묘를 찾으면 다른 묘를 찾은 한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낸다³⁰⁾. 공동묘지에 모이는 성묘객으로 인해 ‘나도 한국 사람’이라는 한민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모이기 좋아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추석만 돼 봐요. 다 모대서(모여서)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음식 같은 거 잔뜩 가지고 산에 가지요. 다 채벼 놓고 거기서 다시 제사 지내고. 옆에 온 사람들한테도 한 잔씩 주고,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중략). 그게 사람 사는 낙(樂)이지. 지금 그런 낙을 어떻게 찾아. 한심하지.”(연구 참여자 A, 15.11.22.)

30) 8 15일은 남한 출신이 대부분인 사할린 한인들의 최대 명절이다. 8.15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며 실제로 사할린의 기후는 한국의 추석의 기후와 유사해서 제사상에 올릴 햇과일도 이 시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64년 이후에는 8.15모임을 정부에서 폐지하여 공식적인 명절로 쇠지 못하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 한국이 경제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할린에서는 한인들이 대대적으로 8.15부활 행사들을 함으로써 각 직장에서도 하루 휴가를 주는 등 러시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한인들의 날로 평가 받는 날이 되었다(이은숙 외, 2008).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정이 많고 효심이 깊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사할린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이자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추석이 되면 한인의 묘는 평소와 다르다. 꽃이 놓이고, 페인트가 칠해지고, 풀을 뽑고 잔디를 정리한 묘는 모두 한인의 묘이다. 가지고 간 음식은 낯모르는 사람과 관계의 매개가 된다. 고향을 묻고, 본을 묻는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술잔이 오간다. 명절은 찾아갈 곳도 찾는 이도 없지만 마음만 분주한 그들의 마음을 대신한다.

“한식이 되면 사과, 배, 포를 가지고 가서 술 한 잔 드리고, 풀도 뽑고, 묘 울타리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옆에 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옆에 것도 해주고, 아들, 손자들도 다 데리고 가서 이 묘는 누구 것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가르치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손자들도 우리가 한 것처럼 지그 애들 데리고 와서 할랑가는 몰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신세가 이렇습니다.”(연구 참여자 E, 16.01.11.)



[그림 V-15]
할아버지의 바램

“1954 추석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느라고 고속도로가 막히잖아요. 사할린에서도 멀리에 사는 형제들까지 다 와서 차례 지내고, 음식 싸 들고 성묘 가요. 한인이라면 다 하는 거요. 묘만 봐도 이것은 한인의 묘.(중략) 손자들이 뭘 알아야요. 할아버지가 가니까 가는 거지요.”(연구 참여자 E, 16.01.11.)

연구 참여자 E는 사할린에서 사는 동안 부모님의 고향이 곧 내 고향이 되었고, 그 고향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근원적 따스함과 평화다. 이러한 고향의 환상은 부모님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명절이 되면 손자들을 모두 데리고 부모님의 묘에 가서 조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므로 손자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 속 깊은 뿌리 박힌 그리운 고향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자연적으로 체득된 하나의 생활이자 삶 그 자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명절은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자녀를,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림의 그리움이 아닐까?



[V-16]
부르는 노래

[그림 V-17]
건강하세요!

[V-16]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합동차례를 지냅니다. 사할린에 계신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조상님들을 대신해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서 올리는 절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무탈하기를 보살펴 주십시오.”(연구 참여자 E, 2016.02.08.)

[그림 V-16]은 2016년 구정을 맞아 사할린센터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는 사진이다. 연구 참여자 E는 연구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동차례 계획을 알려주며 시간이 되면 같이 합동차례를 지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다. 연구자는 어르신들께 세배도 드릴겸 한복을 입고 갔다.

설날 합동차례 구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합동차례에 참석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은 약 100여 명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제를 기내기 위해 정갈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새해 덕담을 나눈다. 어떤 어르신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어떤 어르신은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보니 각각 다가오는 느낌은 다른 모양이다.

차례는 연구 참여자 E가 제주가 되어 진행하였다. 그가 제주를 대표로 향을 피워 사할린에 계신 조상을 모시면서 시작된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으로 절을 하고, 굽힌 무릎을 펴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합동차례에 참석한 사할린 영주귀족 동포들은 술을 올리며 저마다 소원을 빌며 사할린에 두고 온 자손들까지도 연결된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떡국 한 그릇으로 차례는 끝이 난다. 그러나 뭐가 아쉬운지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물끄러미 제단만 바라보던 한 분이 다시 제단 앞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조상과 이야기 한다. 합동으로 절할 때 시간이 부족하여 마음껏 대화를 다 나누지 못한 아쉬움일까? 아니면 먼 길 오신 조상님들을 좀 더 잡고 싶은 것일까?

연구자는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린다.

"아이고, 세뱃돈을 안 챙겼는데 어찌나?"

"세뱃돈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지내는 것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세배를 받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밝지만 앓다. 심지어 눈시울을 붉히신다. 아마도 연구자를 통해 사할린에 있는 자녀들 보았을 것이다. 사할린에 있는 자녀들도 어르신들이 그립기는 마찬가지겠지. 어르신들은 세뱃돈 대신 연구자를 꼭 안아주시면서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다.

2.2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Uba(1994)에 따르면 한 개인의 민족 정체성은 그의 자긍심과 긍정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김상호, 2008). 이는 자기 민족 정체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에서 추출한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이라는 주제이다. 여기에는 ‘나의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담보물’과 ‘아버지가 지어준 내 이름 석 자’로 의미화 하였다.

2.2.1 나의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담보물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여정에는 ‘고향’이라는 주제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 고향은 주체의 인격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할 미래적 지평이자 현실 너머에 있는 이상향이다. 여기에는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함의되어 있고, 이는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동반하고 있다.



[그림 V-19]
무국적 공민증

" 러시아 국적도 받지 않았지. 국적 바꾸면 고향에 못 온다고. 맨날 차별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 교육에 매달리고, '고향'자만 들어가도 목이 메고 애국심이 부글부글하지. 결혼이다 환갑이다 다 모여서 풍장치고 노래 부르지. 고향 노래."(참여자 B, 15.12.13.)

“일제시대는 가고 소비에트 시절이 왔는데 우리가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래서 민족차별도 많이 받았고, 우리 부모들은 무국적자로 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규제가 많았어요.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초상집에 가려고 하는데 통행증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통행증도 돈을 써야 빨리 받지.(중략) 우리 부모님들이 왜 무국적자로 지냈겠어요? 고향이에요. 고향에 오겠다는

하나로 버틴 거예요.”(연구 참여자 D, 15.12.23.)

무국적의 사할린 한인들은 일본의 폭력 속에서 한민족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긍심과 생존 욕구 사이의 방황한다. 이들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핍박을 견뎌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소련 국적을 받아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은 소련 사회 속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사회적인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한다. 무엇보다 적성 민족으로 분류된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소련 공민으로서 공민증이 주어지지 않아 소련 공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루는 할아버지 제사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우리 3형제를 불러 놓고 영영 우셨어요. “아, 이놈들아 우리는 글을 못 배워 한이 된다. 니들만이라도 배워서 나라 없는 설움을 벗어나. 우리는 니들 꿈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희생한다. 왜 내가 남의 나라 국적을 받아야 되냐? (중략)” 하시면서 한인의 긍지를 잃지 않으셨어요.”(연구 참여자 E, 15.11.06.)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 글을 몰랐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고, 동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³¹⁾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국가의식이나 애국심을 더 강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당수는 무국적자에 대한 소련의 차별 정책을 견디지 못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제도적으로 완전한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련 연방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인구가 많았다는 것 외에 무엇보다도 학교와 언론 기관³²⁾들이 토착화에 저항하며 한인들에게 한글과 민

31) 사할린 한인들은 무국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1950~1970년 사할린 주는 국경지대였다. 그래서 무국적자로 남아있던 한인들은 공민권과 노동권에서 제한적이었다 (박승의, 2015). 소련의 법에 따라 대륙에서 이주한 자들은 기본급에 100%를 추가 급료를 받았고 다른 세금감면의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한인들은 섬의 토착민으로 인정되어 이런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Kuzin Anatolii, 2014).

족교육을 시키며 현지 적응을 유도했기 때문이다(윤인진, 1996).

연구 참여자 E의 아버지는 꺾박 받는 국민이 되지 않겠다는 신념이 강해 자녀들의 교육³³⁾에 힘쓰며 자녀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전수한다. 연구 참여자 E 아버지가 말한 “내가 왜 러시아 국적을 받아야 하나?” 라는 것은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국적을 버려야 하는, 조국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인다.



[그림 V-20]
박씨단자

“ 제삿날이면 아버지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뼈대있는 집 자식이다. 잊지 말고 행동에 조심해라.” 우리 ‘박씨세계단자’라네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받은 거래요. 자랑스럽지.(중략) 강제이주는 생각하기 싫어요. 나한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지.”(연구 참여자 B, 15.12.13.)

연구 참여자 B에게 ‘박씨단자’는 ‘나의 뿌리’ 확인이자 ‘조선 사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징표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의문이 생길 때 완충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부모와 동일시되는 하나의 상징이다. 연구 참여자 B는 아버지를 통해 나의 뿌리에 대해 듣게 되고, 연구 참여자 B는 이로 인해 ‘나는 한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긍심

- 32) 미디어의 기능을 살펴보면 민족 집단의 고유한 문자, 가치,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을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한국방송개발원, 1997). 모국정보의 전달(Jonson, 2000), 모국문화 유지(정의철, 2011), 모국문화 배양(김상호, 2008)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문화적응을 지원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민족 공동체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박봉수 외, 2016에서 재인용).
- 33) 사할린 한인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최상구(2015), 김춘자(2015)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할린 한인 1세대는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한인의 성실함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축적한 물질 자본을 자녀교육에 투자하여 2세, 3세대들이 전문직, 화이트칼라직에 종사하여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을 갖는다. 이것은 언제나 연구 참여자 B와 동행하여 행동에서도 긴장하게 한다. 연구 참여자 B가 강제이주에 대해서 침묵하려는 것은 강제이주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탄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된 일종의 방어기제는 아닐까?

2.2.2 아버지가 지어주신 ‘내 이름 석 자’

민족 정체성은 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상징의 사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상징은 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을 내보임으로써 자신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는 경계선을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한자로 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긍심을 느낀다.

“ 혼인신고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성을 내 성으로 하라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건데 왜 바뀌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에요. 피가 조선 사람이니까, 내가 러시아 이름 가졌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 되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E, 15.10.10.)

“나는 우리 딸들 이름을 정남, 진남, 정옥이라 지었어요. 우리 딸이 조선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 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어. 바꾸려면 우리 인연 끊자고 했지. 그래서 지금도 박 씨요. 밀양 박씨. 우리 손녀들도 성(姓)은 다 한국 성이요.”(연구 참여자 B, 16.02.06.)

러시아의 문화 중 하나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는 것이다. 그는 사할린 한인들이 성까지 모두 러시아 이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B의 러시아 이름은 ‘박’이라는 성을 살려서 박 세르게이이다. 연구 참여자 B가 결혼할 당시에도 부인의 성을

존중해주어 부인의 성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딸이 남편의 성을 따라 바꾸겠다고 했을 때 연구 참여자 B는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을 바꾸려거든 인연을 끊자고 하면서까지 딸의 성을 지켰다. 이는 한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림 V-21]
날 닮은 손녀

“ 한인하고 결혼했어요. 지 그 엄마도 한인하고 결혼했고. 딱 봐도 한인이요. 머리도 눈도 다 날 닮았어요. 손자사위 할아버지도 영 주귀국해서 서울에 사는데 우리는 친형제처럼 지내요. 한인이니까 정이 가고. 지금은 한인들끼리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자랑스럽지.”(연구 참여자 B, 16.02.06.)

연구 참여자 B에게 ‘한인’이라는 기준이 뭘까? [그림 V-21]은 연구 참여자 손녀와 손녀사위이다. 둘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 휴가를 맞아 할아버지를 방문했다. 연구 참여자 B는 손녀사위가 조선 사람이라 자랑스럽다. “야 엄마도 조선 사람하고 결혼하고, 야도,,,,”. 연구 참여자 B는 딸 셋이 모두 한인과 결혼을 하였고, 나의 딸도 나의 손녀도 조상이 물려준 성을 사용함으로써 아직도 ‘한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연구 참여자 B는 손녀와 이야기할 때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조선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3 한민족 문화계승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수준을 살필 수 있는 지표는 그가 어느 정도 민족 단결력을 유지하고 족내혼(endogamy), 모국어 사용, 전통문화와 관습들을 인정하고 지키려는 의지이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 의례에서 도출한 민족 정체성의 하위 개념이 한민족의 문화를 유지, 전승하려는 의지에 대한 것이다. '한민족 문화계승 비형식적 교육'이라는 주제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매개체'와 '고향을 전수받다'로 의미화하였다.

2.3.1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매개체

우리가 조상과 부모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조상님과 나를 길러 주고 사랑하여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효도의 연장이다. 제사는 가족과 친족 등의 혈족 관계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관계를 일컫고, 시간적 연속성은 조상과의 관계를 말한다. 다음은 조상과 자손, 즉,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매개체 '제사'에 대한 기술이다.

“ 신을 안 믿는다 하지만은 뭐랄까요. 무슨 걱정스러운 거 있죠. 음식집에서 구워 놓은 거 여기서 구워서 가져가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이렇다저렇다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애들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오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기분이 좋지요. 우리 애들한테 전해줘야 하는데 지금 같이 살지 않으니까 걱정이요.”(연구 참여자 B, 15.08.22.)

연구 참여자 B의 내러티브에는 할머니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힘들 때 부모님을 떠올렸다. 좋을 때보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실패했을 때 고향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러나 연구 참여자 B는 평소에 마음이 울적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자녀를 데리고 할머니 산소에 간

다. 절을 하고 앉아서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한다. 이는 정성으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사가 순탄하게 되는 복을 얻는 다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할머니한테서 받은 사랑, 할머니한테 의지하던 20세,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 제사 때마다 손자들 앉혀 놓고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얘기해요. 증조할아버지는 자식의 교육을 염원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고향, 고향 하다가 고향에 오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온 거라고(중략) 내 죽은 다음에는 자식들이 제사를 지낼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를 이어 아버지, 그리고 내. 다음에 아들이 이어주면 감사하지. 조상에 대해 절대로 잊으면 안 되지”(연구 참여자 A, 15.11.22.)

제사는 조상이라는 과거와 자손이라는 미래를 이어 주는 의식으로 나타나는 현재는 제사를 통해 조상과 자손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국민호, 2005.)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A는 할아버지께서 하던 방식대로, 또 아버지가 하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로부터 대물림된 이야기 속에서 재구성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풍습을 고집해온 부모를 통해서 체득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A의 고향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뜻함, 그리고 자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안타까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A의 아버지는 간절히 귀향을 꿈꾸었다. 아버지의 간절한 귀향의 의지 표현에 있어 “고향, 고향 울부짖었다.”로 강력하게 묘사한다. 이는 당시 연구 참여자 A가 느낀 아버지의 귀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죽음으로 더 이상 귀향을 꿈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보호받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랑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제사를 통해 나의 행적은 나의 자손의 기억에서 재현될 것이다.

“ 상 채려 놓고, 무슨 무슨 신이라고 지방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하니까 붓끝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먹을 갈고 지방 쓰고, 딱 붙여놓고 제사 자 지내고. 이런 것은 특별히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할린에서는 어느 동네를 가도라도 이런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켜왔어요.(중략) 우리 애들도 제사는 같이 지내요. 아마 내가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연구 참여자 E, 15.11.06.)

제사는 연구 참여자 E의 가계 내력과 함께한다. 할머니를 비롯한 아버지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유가적 가풍을 지켜왔다. 연구 참여자 E 또한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가풍을 실행하고 전수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특히 제사에 대해 자녀와 조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여 제사를 중시하고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써서 붙인 지방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쓰라는 대로 따라서 썼다. 아니 그랬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따라서 쓰게 한다. 자녀도 지금은 왜 이것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연구 참여자 E의 나이가 되면 그 아들도 손자한테 또는 증손자한테 똑같이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한국에서는 음력으로 설을 쇠지만 우린 양력으로 세거든요. 사할린에서도 제사는 양력으로 지냈으니까 그대로 지내야죠. 아들한테 술 한 잔 주고 부탁하지요. “니 자식들 다 잘 되게 해 달라.” 하고 빌고(중략)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들도 먼저 가서 없고, 우리 둘이서 지내죠. 우리가 죽으면 애들이 할랑가도 모르지”(연구 참여자 D, 16.01.14.)

연구 참여자 D의 내러티브에서는 명절날이 가장 가슴 아픈 날이다. 연구 참여자 D는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들의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아들의 제삿날에 손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한다. 연구 참여자 D가 말한 “우리가 죽으면 애들이 할랑가도 모르지”는 아들이 살아 있어야 제사도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함으로써 손자들이 나를 비롯한 조상의 제를 잇을까 염려에

서 오는 것으로 본다.



[그림 V-22]
어머니의 된장찌개

“ 후에 제사는 안 지내요. 고향에서 조카가 지내요. 늙어서 제사에 갈 수도 없어. 명절에는 어머니 사진 꺼내 놓고 절해요. 어머니가 만든 부침개, 된장찌개 맛은 어디에도 없지. 우리 며느리도 로국 사람이지만 한국 음식 잘해.(중략) 고향집의 감나무가 생각나지.(후략)“(참여자 C, 15.09.06.)

C는 사할린에 있을 때는 부모님 제사나 명절 때에는 자녀들과 모두 모여 어머니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영주귀국한 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고향의 조카들이 지내기 때문이다. 그가 설이나 추석이면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마련하여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은 나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노후하여 고향집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할린에서 제삿날에 절을 하고 술을 올리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한 습관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 사진에서 고향에서 먹던 구수한 부침개와 된장찌개를 불러와 로국 며느리의 된장찌개로 연결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가 사할린으로 갈 당시, 194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 마당에 열린 감을 그린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당에 열린 감은 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사할린으로 간 아들이 오면 먹여야 했기 때문이다. 고향집의 감나무는 주렁주렁 열린 감뿐만 아니라 C가 어렸을 때 올라가서 놀던 향수도 열려 있다. 지금 고향집 감나무는 노후해 그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의 기억 창고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 70여 년 전의 고향집 담에 있는 실한 감나무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V-23]
할아버지 만나는 날

" 이렇게 하고 두 번
절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다
같이 해 볼까. 그리고 술은
이렇게 한손으로 술잔을 들
고, 한 손은 술잔을 받치고
이렇게 왼쪽을 세 번 돌려.(중
략)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거야.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
고.(연구자 제보, 15.08.02.)

연구자가 사할린으로 현지 조사를 갔을 때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2일(일)부터 5일(수)까지 사할린한인노인회에서 주최하는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캠프'가 있었다. 약 30명의 사할린 한인 4세 5세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간단한 말은 알아듣는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은 한인의 통한이 맺힌 역사적 장소를 견학하며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해하고 잃어버린 과거를 현재로 불러와 미래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청소년들은 캠프를 떠나기 전에 한국문화원 마당에 있는 사할린희생사망동포위령탑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선조들과 즐거운 만남을 고한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하자 10명 정도가 손을 들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절은 어떻게 하고, 술과 음식은 어떻게 올리고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전 사할린한인회 회장의 설명에 청소년들의 눈이 반짝인다.

이 아이들은 3박 4일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을까? 이 아이들에게 고국의 위치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아이들의 생각이 고국과 맞닿을 방법은 무엇일까?

2.3.2 고향을 전수 받다

고향이 아주 돌아갈 수 없는 이산·망명자의 경우에 고향의 정체성은 고국이나 민족과 중첩하기도 하고, 혹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보여준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 대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땅을 고향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Relph, 1976). 이들은 고향과 유사한 대체 공간을 만들어 고향에서 행하던 의식들을 거행하기도 하며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다(김태준, 2006).



[그림 V-24]
고향을 만든다

“1965 우리 아버지 환갑 사진이요. 이때 보세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어요. 1달 전부터 돼지 잡고, 두부하고, 국수를 70kg이나 뺐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을 하나 하나 전부 다 만들고, 고향이요. 고향이 가능하게 했지요.”(연구 참여자 D, 15.10.06.)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들에게 부모와 형제는 곧 ‘고향’이다. 고향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상징이다. 연구 참여자 D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임재해(2004)에서 마을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떡을 찌는 절구통과 두부콩을 가는 맷돌이 있었다고 한다. 사할린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다 하면 그 절구통과 맷돌을 돌아가면서 사용했고, 특히 한인들은 집에서 막걸리를 담가 마셨으며,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하며 시름을 달랬다. ‘고향’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상징이다. 동네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을 통과 의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 의례부터 기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고향을 전수받아 읊

겨 놓은 것이 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이주했을 때 탄광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동네의 지리적 환경은 마을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동네의 환경과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는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담론거리다.



[그림 V-25]
풍악을 울리다

“ 자식들이 모두 절을 하고 술을 올리지요. 큰 아들부터 저 꼬트머리 손자까지 전부 절을 하고, 술도 한 잔씩 드리고.(중략) 음식으로 부조해요. 노래꾼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몸만 사할린이지 전부 고향하고 똑 같아요.”(연구 참여자 D, 16.01.04.)

사할린 한인들은 통과의례를 통해 고향을 전수 받고, 통과의례를 마을의 축제로 만든다. 이는 마을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개인의 통과의레이지만 결국 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한민족 문화를 전승해간다.

“아들 돌잡이 했지. 보통 돌상에는 실이야, 돈이야, 쌀이야, 연필이야 다 놓고 했지. 연필 잡은 거 같은데.(중략). 할머니가 얘기한 것이 생각나요. 너는 돌 때 실도 잡고 돈도 잡았다. 너는 무병장수할 거고, 어른이 되면 돈도 많이 벌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는 부모님이 고향에서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여기도 고향이나 마찬가지여.”(연구 참여자 E, 16.01.11.)

연구 참여자 E는 “아들 돌잡이 때 아들은 무엇을 잡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들이 무엇을 잡은 것은 같은데 무엇을 잡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돌상에 올려놓은 물건과 아들 돌에 미역국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을 생각하더니 자신의 돌까지도 이야기했다. 연구 참여자 E는 일본에서 태어나 6살까지 일본에서 살았다. 그는

‘풍산 신’ 가문의 장손으로 38살에 과부가 된 할머니의 등에 업혀 자랐다. 그에게 할머니의 등은 가장 튼튼한 방어벽이었다. 일본 아이들의 차별, 멸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E가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어떠한 물건을 보면 바로 고향의 무엇과 연결 해 이야기했다. 꽃이 피면 고향의 들에 가 있고, 새가 울면 고향의 산으로 가 있곤 했다. 할머니 등에서 들은 자장가는 자녀를 재울 때, 그리고 손자 손녀를 재울 때 자장가가 되기도 했다.

“제삿날이 되면 동네에 기름 냄새가 가득해요. 콩기름을 짜서 부침개를 부치고, 특히 추석이면 고향이나 다름없지. 송편을 만들고, 씨름판을 벌이고, 참,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할린 노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익혀왔던 거, 몸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중략) 그런 것은 책에도 없어요.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고향’을 불러오는 것인데, 참 살맛 났지.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산교육이요.”(연구 참여자 E, 15.09.12.)

연구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추석은 ‘살 맛 나는 날’이다. 추석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로 하루가 분주하다. 어느 때보다도 더 친화(親和)가 강하게 일어나는 날이다. 이날은 과거에 거주하던 공간적 ‘고향’과 다를 바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취득된 명절이 자식들한테 전해지는 날이다.



[그림 V-26]
고향 닮은 사람들

“ 날은 영주귀국한 형님도 오고 누님도 오면 좋을 텐데 오지 못해서 속상하지요.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영주귀국 못해요.(중략) 여기에 온 사람들 모두 환갑은 다 해요. 환갑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연구자 제보, 15.08.03.)

연구자가 사할린에 갔을 때 참석한 사할린 한인 환갑잔치이다. 환갑잔치는 장남과 장손이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환갑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한인들로 약 100여 명이나 되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흰 봉투를 내밀며 축하인사를 하는데 한국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환갑’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 고향과 연결한다.

잠시 후 손자의 친구들이 비보이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띠운다. 하지만 하객들의 반응이 신통하지 않다. 환갑잔치 분위기는 조선어학교 동기생들의 아코디언 소리에 절정을 이루며 모두 ‘우리’가 된다. 갑자기 등장한 비보이와 아코디언 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것에서 사할린 한인 1세대가 지난 모국에 대한 정체성과 사할린 2세와 3세, 4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사할린 한인 3세, 4세들은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러시아에 동화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2.4. 민족 문화 공동체

장소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투안, & 이푸, 1995). 마을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 이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마을문화가 있다.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통과의례를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획득하는 것이다. 즉 정체성은 출생으로부터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생애를 통하여 구조되는 유동적 성격이 강하다.

2.4.1 계(契) · '동생간'

사할린 한인들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동생간'이라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절, 관례, 혼례 등을 지키며 유지하였다. 계는 마을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태(母胎)가 되기도 한다.



[그림 V-27]
즐거운 휴식

“ 때 의형제가 18명이니 자식들까지 모여 동기간끼리 푹푹 뭉쳐서 한 달 전부터 돼지도 잡고, 마당에다 풍광을 쳐 놓고 요란하게 놀았지. 고단한 삶을 잠시 쉬게 하는 가장 즐거운 휴식이고, 나라 없는 백성의 설움과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고향을 만드는 날이지.”(연구 참여자 A, 15.08.12.)

연구 참여자들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이주 과정에서 고향을 잃어버

렸으며, 그와 아울러 그것의 보호 기능과 같은 좋은 요소들도 놓쳐 버렸다. 사할린 한인들은 러시아 땅에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적응해야만 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낯선 땅에서는 사람들끼리 친근해져야 새로운 고향 만들기 위해 '동향'을 중심으로, 혹은 '동성'을 중심으로 형제간을 결성한다. 사할린으로 이주할 당시 대부분 독신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부계만으로는 친족 관계가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동생간'이라는 의형제 형태의 친분관계가 성행했었다. 동생간은 성이 같거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관계를 구성하여 친족관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단순히 친목 단체가 아니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으로 호칭하며 친척과 같은 확고한 친족 공동체의 의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재해(2004)가 말한 것처럼 마을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력과 신앙, 각종 의례와 각종 풍속을 포함한 놀이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치관이나 세계관까지 공유하는 집단이 된다.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상호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도덕을 지향한다. 이들은 가까이에 살면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 '계'는 타향에서 고향과 소통하는 장이다.



[그림 V-28]
어깨 펴는 날

“ 동생간의 힘은 대단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와서 척척 해내고, 아버지 환갑에도 한 달 전부터 와서 막걸리 만들고, 노래하고, 결혼식은 물론이고 집도 척척 짓고, 친형제보다 더 끈끈했어요. 내가 한인이다 하고 어깨 펴고 살았지.”
(연구 참여자 E, 15.11.06.)

윤인진(2003)은 모국의 문화와 전통은 이민자가 거주국에서 적응을 시도할 때 처한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각과 자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민족문화 중 ‘계’, ‘두레’와 같은 관습제도가 있는데 강제징용 1세대들은 대부분 ‘동생간’이라는 계를 조직하여 상부상조의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에 적응한다. 이들은 동생간을 중심으로 한인이라는 민족을 상징하는 ‘통과의례’를 행하여 향토애나 고향 의식을 강화시켰다. 통과의례는 결국 한민족을 응집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통과의례는 한인 공동체를 친숙하게 이끄는 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들에게 동기간이라는 공동체 문화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성된 자생적 문화 창조로 또 다른 고향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되었다. 동기간은 사할린 한인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이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둘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생간에 소속된 개인은 의식과 의례를 통해 재현되는 공동체성원 지위를 제 공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윤곽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 V-29]
어머니의 아우

“ 의형제들이 있고, 여기는 부인들이고,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하고 잘 지냈어요. 명절 준비하는 것도, 환갑이다, 결혼이다 하면 모두 모여서 했지. 고향의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우리 한인들의 힘이었던 거지. 내가 한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달리 방법이 있나?”(참여자 E, 16.01.11.)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지역공동체는 곧 마을이며, 마을은 공동체로 불릴 수 있는 기본단위다(김지연, 2014.) 이에 마을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다. 탄광을 중심으로 한 한인 마을은 한인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보한 문화의 전승

현장이 되었다. 그 문화의 주체에는 '고향'과 '통과의례'라는 관념이다. 통과의례는 한인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대상이며 마을 구성원들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통과의례를 통해 한인의 미풍양속과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 유지, 전승될 수 있는 주요 무대였다.

2.4.2 경계에 선 사람들

사할린 한인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유일한 길은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잔치이다.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서로 삶을 공유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보다 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결속력이 더 강한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민족문화를 유지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민족을 배척해야 했고,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사할린 한인들은 '고향'을 주제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의식, 의례를 치러 타민족과의 구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타민족을 경계한다.

“ 딸이 결혼을 하는데 성을 남편 성으로 한다고 해서 남편 성으로 바꾸면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앞으로 집안의 모든 행사에서 제사나 잔치 같은 데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꾸지 않았어요. 조상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 가면 또 바뀌야 하잖아요. 성은 절대 안 바뀌요.”(연구 참여자 B, 16.02.06.)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B의 결혼에 대한 내러티브에는 딸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장녀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조선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장녀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러시아의 문화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B는 “니가 성을 바꾼다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

하여 딸은 결혼해서도 본인 고유의 성을 가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 B가 딸에게 본래 자기의 성을 가지게 한 것은 미래 귀향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할린 한인들의 결혼? 해방 후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과 결혼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극소수라고 할 수 있죠.(중략) 우리가 누구한테 핍박받았는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니. 매국노지요. 부모들은 고향에 가려고 국적도 포기하고 모진 수모를 다 견뎠는데 어떻게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연구 참여자 E, 15.07.21.)

사할린 한인들이 일본의 필요 때문에 사할린으로 이주할 때 기혼자든 미혼자든 독신으로 간 사람들이 대다수다(조성길, 2012). 그 중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 때문에 홀로 산 사람도 있지만 외로움에 지쳐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본국으로 귀향을 한다. 그러나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 사람들은 혼자만 일본으로 귀향할 수 없어 사할린에 남아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는 조선 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한인 사회는 흔들린다(쿠진 아나톨리, 2015). 연구 참여자 E는 일본 여성과의 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우리 장남은 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식은 울렸는데.(중략) 살아 보니까 로국 여자가 쓸만한데 그때는 분위기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연구 참여자 D, 15.10.06.)

"말도 말아. 나는 아들 결혼에 대해서 책으로 써도 다 못 써. 아들이 그것도 장남이 로국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배가 이만큼 불려서 왔어. 아, 이래서 집이 망하는구나 싶어 그래 내가 쓰러졌지. 절대로 못한다고. 그 때는 성이 같아도 결혼을 안 하는 땀도 하필이면 로국 여자야. 고향에 어찌 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 조상 불 먼목이 없지."(연구 참여자 C, 16.01.05.)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D의 장남 결혼에 대한 내러티브에는 과

거의 '나'를 통해 현재의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그들은 장남의 타민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조선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한다. Kuzin Anatolii(2014:194)에 의하면 당시 사할린 한인 사이에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혼인을 맺지 않았고 특히 타민족과의 혼인을 터부시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C는 장남이 타민족의 여성과 결혼을 함으로써 가풍이 무너지고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자리에 눕게 된다.

“우리 시동생이 로국(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밥도 안 드시고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많이 원망했어요. 애들이 동생한테 배워서 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연구 참여자 A, 16.01.11.)

러시아 며느리를 둔 연구 참여자 A의 내러티브에는 사할린 한인들의 언어적,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이 보인다.³⁴⁾



[그림 V-30]
차남의 여자

“이들이 러시아에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로국 여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당장 쫓아가서 헤어지지 않으면 부자의 인을 끊겠다고 하고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결혼식도 안 해 줬지. 나중에 할 수 없어 갔더니 손자가 2살이야. 정말 죽고 싶었어요.”(연구 참여자 A, 16.01.11.)

연구 참여자 A의 차남이 러시아 여성과 혼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니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나에게 둘째 아들은 없다. 연

34) 한 개인의 자유의사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현상과 환경으로 인해 한인들의 러시아화를 촉진시켰다(윤인진, 1998. 111).

을 끊자.”라고 한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여성과 혼인을 하고 2년 동안이나 부모와 단절된 생활을 한다. 그래도 연구 참여자 A는 아들의 대학 졸업을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 용돈을 보내주었는데, 아들은 그 돈을 다시 부모에게로 되돌려 보내고 일체 연락을 하지 않자 그의 아내는 러시아로 아들을 찾아 간다. 이미 손자가 태어나 2살이 되었을 때이다. 이는 거주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여 동화가 상당히 진행된 집단의 경우에는 타민족과 통혼을 보인다는 윤인진(2008)의 연구와 흡사하다.

“ 손자가 나이가 30인데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걱정이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할머니가 원하면 한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아마 지그 아빠 엄마 결혼할 때 우리가 반대했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니가 좋으면 어떤 여자든 괜찮다고 했는데.(중략) 거기는 러시아 사람밖에 없잖아요. 조선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지.”(연구 참여자 A, 16.01.11.)

연구 참여자 A는 손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는 타민족과 통혼을 지양하며, 족내혼을 추구하여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만 한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한다. 러시아 문화권에 안주하다 보면 러시아 문화에 익숙해야 하고, 모든 사고방식도 그 문화에 휩싸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화로 공유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한인의 정서는 2세대에게서도 묻어나고 있다. 그러나 3세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문화의 풍경은 결혼식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래서 3, 4세대의 결혼식은 현지 문화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사할린 한인 1세들은 강한 민족성과 결혼관에서도 한인만을 고집하지만 사할린 한인 2세와 3세, 4세들의 민족 정체성은 전적으로 한민족의 혈통과 전통 문화만을 강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할린 1세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강한 모국 지향적인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2~3세 이후에는 모국의 문화적 유산과 민족 정체성이

거주국의 국민 정체성과 혼용된 이중 정체성을 표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삼일장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의 제사를 지낸다고 했더니 동료 교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개명치 못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죽은 신을 모신다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칠 때 소련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를 해임시켰습니다. 우리 러시아 국적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할 수 없다고.”(연구 참여자 A, 16.02.06.)

연구 참여자 A는 장남이다. 그의 부모님은 "너는 장남이니 반드시 고향에 가야 한다. 고향에 갈 날이 머지않았으니 절대 국적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연구 참여자 A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국적을 갖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³⁵⁾ 그러므로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을 경험한다. 한인들의 장례문화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소련 사람으로 우리 민족의 장례문화나 제사에 대해 미개한 나라의 민족이 하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한인만이 러시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한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았어. 내 장남이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자 어머니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조선 사람이냐. 용서할 수 없으니 헤어져라."라고 하면서 때렸대요."(연구 참여자 D, 15.10.06.)

연구 참여자 D의 장남은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한다. 연구 참여자 D 집에서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러시아 여성의 집에서 더욱 반대한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자르고 때리면서까지 조선 남자와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조선 남자는 권위주의기 때문에 여성과

35)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사할린 한인들은 대학에 가기도 어려웠지만 취업의 기회에서도 배제되었다. 만약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급여에서 차이가 있었고, 진급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최상구, 2014:52.)

평등하지 않고, 씻지 않아 김치 냄새가 나며, 특히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이는 사할린 한인들의 사회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던 한인의 삶, 러시아인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한인들의 과거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가 재구성하는 그 의미를 살펴 보았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내러티브는 '고향 메타포'와 '민족 정체성'이라는 두 갈래로 도출된다. 우선 '고향 메타포'가 생성된 것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부모가 혹은 연구 참여자 자신이 고향을 떠나 거주국에서 등지를 틀면서 고향을 인식하였다. 그 고향에 대한 인식은 고향을 떠나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강하게 인식되어 진 것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통과의례를 통해 고향을 재현한다.

통과의례를 통한 '고향 메타포'는 '출생'에서 시작된다. 대를 이을 아들을 염원하고 그 아들은 돌잡이를 통해 미래와 연결된다. '결혼'에서는 '시작, 그 설레임'으로 재구성되어 결혼의 성립을 끝낸다. 고향의 재현은 통과이례 '환갑'에서 절정에 이른다. 환갑이라는 통과이례를 통해 완전한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죽음'라는 통과이례는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고 '귀향'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끔으로써 과거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통과의례를 통해 고향을 재현함으로써 통과이례 내러티브의 공간은 원래 내가 태어나거나 조상이 머물던 의미에서 사할린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다시 현재 '내'가 있는 곳으로 이동 중이다.

통과의례는 또 다른 의미의 '민족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탄생시킨다. '심리적 동일시'로 '나는 언제 한인이라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에 대한 답은 장례 절차인 '삼일장'과 '명절 성묘'를 통해 얻는다. 그리고 통과이례를 통해 얻은 '자긍심'은 '내가 한인이라서 자랑스럽다'고 느

길 때는 역사의 굴곡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담보물'인 족보와 '아버지가 지어 준 내 이름'을 통해 답을 구한다. '비형식적 문화 계승'에서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제사나 명절 음식을 매개로 고향을 전수하고 한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통과의례를 통해 소속감이나 동포애를 끌어내는데 '우리'라는 감정은 동생간이라는 '계'를 통해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두텁게 한다. '민족 문화 공동체'에서는 사할린 한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가 성립되고 어울림이 이루어진다. 사할린 한인들의 어울림은 순수함 또는 정이다. 어울림은 생활공동체로 생활의 방식이자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한인들과 분리할 수 없다.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통과의례의 특징은 '나' 개인의 의례로 시작하여 동네 전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고향이 확장된다. 고향을 잃은 고단함이 통과의례를 통해 축제로 승화되어 가난하고 꺾박받은 서러운 과거도 향수로 자리한다. 이방인으로 차별받은 역사적 사실은 통과의례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통과의례는 공간이라는 사할린과 시간이라는 과거의 단절을 뛰어넘어 현재와 긴밀하게 이어졌다.

VI.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통과의례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영주귀국자들의 통과의례 의미를 굴절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5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주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현지조사 그리고 포토텔링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원은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통과의례에 관한 사진이미지, 심층면담의 녹취록 자료, 현장 노트, 연구자 일지 등이다. 자료 분석은 3차원적인 탐구지점에서 사할린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간주하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내면적인 상태와 외형적인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행위의 공간으로 되살려 내는 데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라는 연구 주제를 중심 축으로 놓고, 시 공간적 흐름과 사건, 사고, 인물 등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통과의례 사진 이미지는 무엇을 찍었느냐에 그치지 않고 통과의례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까지도 포괄하여 시·공간적 흐름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내러티브적 코딩을 하여 주제를 전개 하였다. 코딩 후 각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

인의 통과의례 경험을 중심으로 다시 쓰기를 하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들의 통과의례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이끌어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D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를 하였고, 자녀 출생의 기쁨을 ‘나의 금단지’로 표현하였다. 나의 자녀들을 키울 때 기쁨보다 손주들의 출생이나 돌에 더 의미를 크게 두고 있어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자리 잡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놓여있었던 참여자들의 현실이 교차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E의 내러티브를 기술하였다. 실질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간 연구 참여자 C와 E의 결혼에 대한 내러티브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A와 C의 결혼과정에는 당시 사할린 한인의 결혼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특징적이다. 예컨대 같은 혈육이 아니어도 가까이 지내는 의형제 간에는 결혼을 지양했으며, 특히 타민족과의 혼인을 꺼려하는 것이다.

‘환갑’에 관한 것에서는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E의 내러티브를 해석하였다. 이 세 연구 참여자들의 환갑에 대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고향’을 중심으로 혹은 ‘같은 성’을 중심으로 ‘동생간’이라는 의형제를 맺어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 나를 안전하게 해 주는 기제가 되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삼우제를 지내며 위패를 모셔 3년 동안 상식을 올린 후 3년 후에 탈상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사할린 한인 1세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세대들의 죽음과 세대교체 이후 이러한 전통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명의 연구 참여자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경험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내러티브의 의미는 크게 '고향 메타포'와 '민족정체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가족 안에서의 삶인 동시에 소수민족으로서 재외동포의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식민지 비주류사회의 이방인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관계적 어려움이 가족 그리고 주류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경험의 의미로 '고향 메타포'는 크게 '무형식 정신적 안식처', '공동체적 삶이 살아 숨 쉬는 곳', '뿌리 내릴 수 없는 고향'이라는 세 개의 의미를 찾았다. 먼저 '무형식 정신적 안식처'는 정주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 모진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아버지의 희생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및 연구 참여자의 정서적 내적 경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이 살아 숨 쉬는 곳'은 사할린 한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고향을 만드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고향을 만들기 위해 내부를 향한 결속은 불가피 했고, '고향'이라는 단어는 실향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통과의례를 통해 내가 그 사회에 소속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소속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흔들리는 고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의 교육과 신분상승을 위한 러시아 사회문화적으로 동화와 영주귀국으로 인한 갈등을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동일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한민족 문화 계승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 '민족 문화 공동체' 의미화 되었다. '심리적

동일시'는 장례의례나 명절 성묘를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한국인이지'라는 느낌이다.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은 소수민족으로 개명치 못한 민족이라고 차별을 받으면서도 내가 한국인이라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한민족 문화 계승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은 통과례가 이주 초기에는 전통적으로 계승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의 전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모로부터 체득되는 과정으로 의미되었다. '민족 문화 공동체'는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향에서 하던 대로 통과례라는 의식을 함으로써 또 다른 고향이 생기게 된다. 통과례에 참석하면 나의 소속이 생기게 되고, 그 소속됨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동화정책과 세대의 교체에 따른 한인 정체성과 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가족구성원과 민족을 중심으로 통과의례를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재구성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경숙 외, 2012; 김인성, 2011; 김주자, 2006; 나형욱, 2009; 배상우, 2006; 배수한, 2010; 박여리, 2014; 박재인, 2014; 신봉규, 2013; 안미정, 2014; 오승주, 2012; 이명선, 2009; 임채완 외, 2015; 정진아, 2014; 정천수, 2007; 조재순, 2009; 호경임, 2002; 황정태, 2002; 황현옥, 2005)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가족구성원과 민족, 그리고 러시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통과의례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이 이주하게 된 동기와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타향에서 느끼는 고향과 민족, 거주국과의 상호작용 등 이주에서 영주귀국하기까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거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연 고향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통과의례는 어떻게 나타나며, 통과의례의 의미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과거의 선택과 미래에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할린 한인에게 식민국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한민족의 역사 이해 및 민족 정체성 확보에 중대한 의미를 더한다. 오랫동안 식민의 신분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혼란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민족적 자긍심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고향과의 단절과 민족적 차별은 오히려 한민족 공동체와 전통문화를 뿌리 깊게 형성하게 했다. 비록 그 빛은 흐릿해졌지만 유교의 존재 가치를 모두 잃은 것은 아니다. 외형상 상당한 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고 여

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조상에게 유교 의례의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는 통과의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통과의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러시아와 한국의 고유풍속 간에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켰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허용되지 않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고유명절을 지켜왔다. 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언어와 결혼관행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 명절인 추석과 설의 오래된 풍속은 그들의 뿌리 깊어 스며들어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의 명절로 받아들이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즐거리를 포착하기 위해서 들리는 목소리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목소리는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의 핍박 받는 민족으로 다양한 경험 이야기이다. 결국 통과의례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주체로서의 목소리이다. 한편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영주귀국한 후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대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으나 정작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목소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 개인적 맥락에서 논의하자면 일반적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사할린으로 이주할 당시 자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의해 사할린으로 이주하였거나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설령 고향이 한국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이라 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향에 대한 기억은 직접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전이된 고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에 의해 '고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박봉수, 임지

혜, 2015).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환상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서로의 존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친밀한 이웃관계에 놓인 성스러운 근원적 자연의 세계와 훗설(Husserl)이 말하는 정신적 뿌리, 정신적 유대감으로의 고향(김민정, 2006)이다.

그들이 고향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은 유년기 부모님들의 실천교육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으로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박해의 고통에 대한 저항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교육만이 그런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극명한 의식을 표출시켰다. 무국적자의 삶,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문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소련의 동화정책으로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문화와 유교적 관행이 병행되거나 혼합되는 복합적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세대가 교체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빠르게 해체하여 상당한 변용을 겪게 되었다. 이때 한인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고향'이라는 상징적 메타포는 민족을 한데 집결 시키는 기능을 하였고, 흐릿해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로써 통과의례는 민족 정체성 확보에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다.

통과의례는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통과 의례는 고향을 잃은 사할린 한인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1세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례와 일생의례 등 전통문화의 독특한 인생관, 세계관이 함께 어우러져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세대들은 전통의례와 처세를 중시했다. 그들은 통과 의례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과 친지, 이웃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조정하여 사회문화적으로 통합을 이루려 노력하였다. 이들은 통과 의례와 추석과 같은 전통문화를 민족 정체성 확보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들은 음력을 사용하고 추석과 같은 명절들을 일종의 문화적 축제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통과 의례는 식민으로 강제이주되었던 고난의 시기에도 사할린 한인들의 정체성 확보에 중요한 근거가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과의례를 유지하는 것은 이보다 더 강력한 민족 공동체적 의미를 부각 시킬 메타포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의 상징적 의미부여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 발전시켜 온 사할린 한인들은 통과의를 통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의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들은 '통과의례'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와 민족 정체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사할린 한인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민족 정체성의 역사적 뿌리를 찾으려는 작업이었다. 이와 같이 '고향'을 나타내는 '통과의례'가 지닌 상징성은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나라를 상실한 채 '고향' 즉,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 대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부여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고향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부모의 유언과 고향에 대한 환상은 연구 참여자들을 영주귀국으로 이끌었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사회복지 대상자로 삶을 살면서 고향에 대한 환상은 무너지게 된다. 그들은 사할린에 남겨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신체적 노환 등의 문제로 사회·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들의 과거 부정적 기억과 자신의 과거를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미래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온도는 식지 않았다. 낮아졌을 뿐이다.

둘째, 사회복지 맥락에서 논의하자면 88서울올림픽과 1990년 한·러수교 수립은 사할린 한인들이 귀향의 꿈을 꾸는 데 맞불을 놓는 계기가 된다. 게다가 1989년 소련당국의 사할린 거주 한인 영주귀국 허용과 1990년 한국정부의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 수립 후 개별 영주귀국이 시작되었다(최상구, 2015). 1994년 한일 정부는 적십자를 통해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에 이른다. 일본은 영주귀국에 필요한 주택과 요양시설

의 건설비용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주변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지역주민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지 선정을 미루어 이들의 영주귀국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2000년 안산의 '고향마을'을 시작으로 사할린 한인 1세들이 정착한데 이어 2007년에는 서울, 인천 등에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여 1세의 배우자와 장애인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현재 전국 24개 시설에는 약 4,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은 일본의 적십자와 한국의 적십자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2007년부터 시행한 영주귀국 확대사업을 통해 1세의 배우자와 영주귀국하였다. 한국정부의 '영주귀국업무처리지침(1990년)'에 따르면 영주귀국 대상자는 재정 보증 및 신병인수가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2인 1세대로 구성하고 1인 거주는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1945.8.15 해방 당시 사할린 거주 또는 출생자로 제한하여 자녀들과 동반 귀국이 허용이 안 되는 병폐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최상구, 2014).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 B'의 어머니는 안산 고향마을로 영주귀국하였다. 어머니가 영주귀국할 당시에 안면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할린 동포와 동반 귀국하여 혼자 지내다가 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2007년에 영주귀국할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안산 고향마을에는 공가(空家)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인천에 살았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 B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해서 유골을 바다에 뿌린다. 원래 바다의 속성으로 보면 '한국'과 '사할린'을 구분 지어주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바다의 내면에 비경계적이고 그 흐름이 가진 유동성은 '인천'라는 공간 너머의 '사할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러

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 온 이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역사진상규명이나 적응에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부양의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지원 대상으로 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의 흔적으로만 보았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시각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국제이주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켰고,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여 다양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는 가족과의 또 다른 형태의 이산이 되었다. 따라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외로움을 떨쳐 버리고 조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내가 한국 사회에 소속되었다는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의식,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체계를 구성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치 있는 메커니즘으로 새로이 조명 되어야 한다.

일제 강점기와 소련체제에서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 살아온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의 이야기는 주요 사건 위주로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식적 역사 기록에서 충분히 배제되어 있었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할린 얼어붙은 땅에 버려진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남기는 것이다. 이들의 낮은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후손들에게 회자되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영주귀국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만의 세상, 한국 속의 또 다른 섬 사할린센터라는 울타리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

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지? 따라서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의 특수성이 고려된 희망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일반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여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과 조화를 향한 네트워크 구축, 다양성 속의 통합성과 통합성 속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할린공동체가 정체성을 구축 확산시켜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역공동체와 사할린공동체의 관계 설정과 사할린문화의 현재화와 지적 교류의 활성화, 대중문화의 교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영주귀국한 노인들이 한국 사회와 접촉을 통해 문이 개방되어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망(network)을 형성하여야만 3세, 4세대들이 고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 문제는 여타 한·일 역사 문제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며 러시아·구소련 지역 동포(이하 고려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할린 한인 후세대들이 고국과 단절되지 않도록 언어·문화 교류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을 혈연과 문화 그리고 경제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국과 더욱 강한 연결고리를 맺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2006). 극동지역 고려인기업의 설립과 경제활동 실태 분석-설문지 및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10, 85-112.
- 강현석(2008). Bruner의 내러티브 논의에 기초한 교육문화학의 장르에 관한 학제적 연구. 교육철학, 36, 1-40.
- 강현석, 조인숙(2013).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초등교육연구, 26(3), 187-213.
- 권지성, 주소희, 김진숙(2007). 사회복지 연구와 연구참여자 권리 보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 35-68.
- 고옥, 이인화(2003). 전봉관 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 공보처(1995).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공보처.
- 국립민속박물관(2001). 러시아 사할린 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김경숙, 임은희(2012). 사할린귀환 시설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위한 집단원 예치료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94-422.
- 김광욱(2008). 스토리텔링의 개념. 서울: 겨레어문학.
- 김계르만(2005).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 김나탈리아(2004).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사회특성에 관한 연구: 독일인 디아스포라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현(2006).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기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111-134.
- 김대현, 박경미(2003).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정연구, 21(2), 23-49.
- 김만태(2011). 한국 일생의례의 성격 규명과 주술성. 정신문화연구, 34(1), 177-206.
- 김명지(2013). 제일코리아 디아스포라 미술의 의의와 정체성 연구. 전남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정(2006). 실향민의 고향의식 - 우숙자 시집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4, 87-111.
- 김상호(2008). 사할린 한인방송과 민족정체성의 문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32-82..
- 김성수(1989).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비평, 여름호.
- 김성중(2006).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0, 195-218.
- 김성중(2009).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 309-329.
- 김시덕(2011). 일생의례 관련 속신의 종류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18, 37-66.
- 김영순(2008). 문화산업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한국문화사.
- 김영순, 정찬영(2008). 한국 전통 장례에 대한 레비-스트로스 기호학적 분석 : "변칙 범주" 개념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4, 115-140.
- 김영순, 박한준 외(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서울: 북코리아.
- 김영순(2011).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과 변용. 서울: 북코리아.
- 김영순, 임지혜, 정경희, 박봉수(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36-96.
- 김영술(2008).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차별과 귀환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 김영숙, 이경임, 신애숙, 박훈(1996). 구 소련거주(독립국가연합)한인들의 김치 이용의 실태에 관한 조사 - 1. 김치와 식생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5(4), 593-600.
- 김인성(2011). 사할린 한인의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정착분석: 제도 및 응용실태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 279-301.

- 김주자(2006). 사할린 귀한동포의 생활 적응 실태연구 : 노인시설 거주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희, 김영순, 김지영(2015). 질적 연구 여행. 서울: 북코리아.
- 김춘자(2015). 사할린 한인사회와 우리말 방송의 역할. 한국이민사박물관 사할린 한인 연구 세미나 자료집.
- 김태준(2006).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한국문학연구, 31, 7-37.
- 김 피오토르 게르노비치, 방상현(1993). 재소한인이민사: 스탈린의 강제이주, 탐구당.
- 김형곤(2009). 미국과 중국에서의 한국전쟁 사진과 기억 - 미국과 중국에서 발간된 사진화보집의 구성과 표상양식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48, 153-169.
- 나형욱(2009).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재외동포와 다문화, 109-137.
- 남민이(2002). 전통상장례와 현행 상·장례에 관한 고찰. 경영연구, 21(2),
- 노영돈(2003). 재외동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편, 통권, 113.
- 노영돈(2008).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 한민족공동체, 16, 60-76.
- 류은영(2009).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 229-262.
- 민병기(1998). 망명작가 조명희론. 비평문학, 8.
- 민현식(1999). 사할린 동포의 한국어 의식 조사 연구-98' 사할린 한국어 교원 연구 보고서 (2). 한국어 교육, 10(1), 109-140.
- 박경용(2013). 사할린 한인 김옥자의 삶과 디아스포라 생활사. 디아스포라연구, 7(1), 163-196.
- 박경희(2005). 유치원 교사의 교직헌신 척도 개발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봉수, 임지혜(2015).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경험과 그 의미 탐색. 언

- 어와 문화, 11(2), 161-192.
- 박봉수, 김영순(2016). 사할린 한인의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민족 미디어의 의미. 학습자중심교육학회, 16(5), 737-760.
- 박봉수, 이미정(2016).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의미. 디아스포라연구, 10(1), 41-70.
- 박승의(2013). 사할린 한인디아스포라의 민족문화정체성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9, 113-152.
- 박여리(2014). 기공(氣功)수련을 하는 노인의 치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안산시 사할린 동포 여성 노인의 사례. 한국노년학, 34(4), 763-780.
- 박용익, 정연옥(2013). 이야기 텍스트의 구조. 언어와 언어학, 61, 53-79.
- 박정석(2007). 케달라의 귀환이주자: 이주과정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12(1), 1-39.
- 박종천(2010).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2, 363-397.
- 박재인(2014). 낯선 고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산 트라우마의 단면-고향을 떠나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C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0, 31-69.
- 박환(2003). 해외동포의 원류: 한인 고려인 조선족의 민족운동. 경기도: 집문당.
- 반병률(2008). 러시아 한인(고려인)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러시아원동시기(1863~1937)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 99-124.
- 방일권(2012).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8), 363-413.
- 보건복지부(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5).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현황.
- 배상우(2006). 사할린영주귀국 시설노인의 생활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수한(201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부산 정관 신도시 이주자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3(2), 281-310.
- 배워토리아(2015). 러시아 유일한 동포 한글신문. 한국이민사박물관 세미나 자료집.
- 백경희(2016). 러시아 소수민족 네네츠인들의 민속 문학장르. 러시아학, 21-44.
- 서경식(2006).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 서경식(2009).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 영희.
- 서경식(2012).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형진의 옮김, 서울: 단비.
- 서민규(2013). 한민족 디아스포라 분석연구-조선족 사례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진숙(201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일본 군'위안부', 재한원폭피해자, 사할린 한인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재용(2015).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일생의례 연구사. 동아시아고대학, 38, 187-217.
- 신경림(1996). 질적 연구평가 기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2), 497-506.
- 신명섭, 이은숙(1999). 고향의 개념: 그 의미와 가치. 대한지리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67-73.
- 신봉규(201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모국사회 적응 연구: 오산과 천안 정착민 사례. 재외한인연구, 31, 95-131.
- 신상문(2005). 재러한인의 현황과 주요과제: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착지원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17, 137-179.
- 심헌용(1999). 극동연해주에서의 러시아한인 민족자치주: 역사적 사실 및 전망. 한국시베리아학보, 1, 65-105.
- 심헌용, 김재기(2004). 러시아 재이주 (再移住) 한인의 난민적 상황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4(1), 117-152.

- 안미정(2014). 부산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이주와 가족. 지역과 역사, 34, 317-359.
- 안정애(2006). 내러티브 교재 개발과 역사수업에의 적용. 역사교육연구, (4), 47-107.
- 안정현(2011). 해방기 시를 통해 본 '귀환'문제 고찰: 강제징용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5, 259-286.
- 양영자(2009). 후기노인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55-281.
- 여승철(2000). 특집: 사할린동포를 말한다/생활고와 외로움, 가장 큰 현실 문제. 통일한국, 18(4), 19-21.
- 염지숙(1999).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 57-82.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염지숙(2009). 유아교육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관계와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주목하기. 유아교육학연구, 13(6), 235-253.
- 염지숙(2011).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학논집, 15(6), 295-310.
- 오승주(2012). 집단미술치료가 사할린 영주귀국한인의 삶의 만족도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청원군 집단거주자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오누마 야스아키(1993).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이종원 역저, 청계연구소.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인철(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398-419.

- 유진각(2005). 한글+한자문화 칼럼: 연해주 고려인 자치구역 수립사업의 구상. 한글한자문화, 72, 58-61.
- 윤병석(2005). 소비에트 건설기의 고려인 수난과 강제이주. 중앙사론, 21, 572-594.
- 윤상원(2010). 시베리아내전의 발발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사학보, (41), 271-304.
- 윤은향(2015). 내러티브를 활용한 표현활동 수업 실행, 안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인진(1996).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 6, 66-95.
- 윤인진(1997).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재외한인연구, 7, 63-120.
- 윤인진(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12(1), 5-64.
- 윤인진(2004). 이산가족 정체성의 세대별 비교와 결정요인 연구. 아시아연구, 52(1), 178-204.
- 윤택림(2006).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 윤택림(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진실 차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381-406.
- 윤희진(2014). 지역 향수의 다성적 내러티브와 고향에 대한 사회적 리얼리티 재구성 -영종도 신히민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광규, 전경수(1993). 재소한인 — 인류학적 접근. 경기도: 집문당.
- 이광규(1999). 해외교포와 한민족공동체.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49-171.
- 이광규(2000). 한국의 탐구. 재외동포, 서울대출판부.
- 이명선(2009).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재(2004). 포석 조명희 연구-조명희와 소련지역 한글문단. 국제한인문학연구, 1, 265-298.
- 이미애(2012).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노인과 국내노인의 구강건강상태와 삶의 질 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연옥, 장임숙, 장덕현, 이수상, 이광희(2014). 다문화사회에서의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 -미국 북가주지역 한인미디어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58, 90-115.
- 이용성(1999). 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근대신문의 역할-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93-115.
- 이용숙(1999). 교육연구에서의 질적 자료의 분석. 이용숙·김영천(편),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 과학사.
- 이윤기, 김익겸(2008). 연해주와 한민족의 미래. 서울: 오름.
- 이은숙, 신명섭(2000). 한국인의 고향관: 그 지리학적 요인과 정서. 대한지리학회지, 35(3), 401-426.
- 이은숙, 김일림(2008).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사회·문화적 정체성-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0, 19-33.
- 이장혁(2011). 사할린 귀환동포들의 음악활동을 통해 본 디아스포라 정체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1997).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의 실태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7, 257-314.
- 이재혁(2010). 러시아 사할린 한인인구의 형성과 발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혁(2011). 일제 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 시베리아연구, 15(1), 85-135.
- 이현정, 김미영(2004). 의복이미지와 화장이미지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복식, 54(7), 91-106.
- 이훈정(2003).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에빌라(2010). 사할린 한인들의 정체성: 우리말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다
문화교육연구, 3(1), 105-124.
- 임은진(2013). 6.25전쟁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장소. 문화역사지리, 24(2),
155-166.
- 임종찬(2009). 시조문학 탐구. 국학자료원.
- 임재해(2004).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말. 서울: 민속원
- 임지혜, 박봉수(2014). 지역 기반 다문화 체험교육의 의미와 실제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0(1), 207-232.
- 임채완(2002).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연
구, 14(2), 175-210.
- 임채완, 이소영(2012). 글로벌 디아스포라학의 세계화. 한국동북아논총,
63, 311-337.
- 임채완, 선봉규, 박경환, 전형권, 이장섭, 허성태(2013). 코리안 디아스포
라: 이주루트와 기억. 서울: 북코리아.
- 임채완, 이소영(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3(1), 145-175.
- 장민구(1977). 사할린(樺太)抑留同胞 實態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사선, 김현주(2004). CIS 고려인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CIS 지역 한국
관련 문예 자료의 발굴 조사 연구 2. 현대소설연구, 21, 7-22.
- 장사선, 우정권(2005).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서울: 월인.
- 장석홍(2007).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의 배경과 강제성. 한국학논총, 29,
473-502.
- 전경수 외(2001).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
박물관.
- 전광식(1999). 고향. 문학과지성사.
- 전형권, 이소영(2012).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이주루트 연구.
OUGHTOPIA, 21(1), 135-184.

- 정근식, 염미경(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 237-280.
- 정영국(2014).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영훈(2002).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재외한인연구, 12(2), 5-38.
- 정우진(2016).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음악적 특징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7(1), 105-124.
- 정의철(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미디어 -<이주민 방송>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4), 489-526.
- 정진아(2011).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연구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8, 391-421.
- 정진아(2014).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통일인문학, 5(8), 35-65.
- 정천수(2007).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생활상 및 사회복지 지원실태에 관한 연구: 안산 고향마을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호영(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성길(2002). 사할린 한인들의 어제와 오늘, 겨울꽃. 서울: 파랑새미디어.
- 조은경(2014). 한·중 항일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와 동아시아 역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197-233.
- 조재순(2009). 사할린 영구 귀국 동포의 주거생활사: 안산시 고향마을 거주 강제이주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 20(4), 103-112.
- 조현용, 이상혁(2012).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언어 환경과 한국어교육 문제 연구. 한국어 교육, 23(1), 257-282.
- 정호영(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진용선(2009). 러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최경옥(2012). 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지위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18(4), 141-196.
- 최계수(2006).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 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306-307.
- 최길성(2000). 사할린 동포의 민족 간 결혼과 정체성. 비교민속학, 19, 103-123.
- 최길성(2001). 사할린 한인 이주와 변용. 동북아 문화연구, 1(1), 243-271.
- 최상구(2014).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일다.
- 최영진(2012). 환동해권의 소수민족 정책과 정체성. 한국민족문화, (45), 265-298.
- 최재목(2007). 특집 논문: 환경철학과 생태문화; 고향 (故郷) 의 회생 (回生) 과 그 생태론적 의의 (意義)-. 환경철학, 6, 1-35.
- 최혜실(2006).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Vol. 66). 삼성경제연구소.
- 최혜실(2011).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이야기의 본질과 활용. 경기도: 한울.
- 텐옥사나(2010). 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 한경혜(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인학, 24(4), 87-106
-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2014).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교육과학사.
- 한국이민사박물관(2015).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사할린 한인들의 망향가'
- 한양선(2016). 내러티브 교육으로서 파울루 프레이리 교육 실천론의 적용 가능성 탐색. 인문사회 21, 7(1), 633-649.
- 한혜인(2012).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 해방 후~1970년대 중반까지의 사할린 한인 귀환 움직임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02, 157-198.
- 허승철(1996).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1959, 1970, 1979, 1989 년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 분석. 재외한인연구, 6, 40-65.
- 호경임(2002).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석준(1993).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지역연구, 2(4), 101-122.
- 홍영숙(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홍진혁(2016). 문화학: 시리즈 영화에서 오프닝 시퀀스의 서사적 기능- <테이큰> 시리즈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1, 701-731.
- 황선익(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431-461.
- 황정태(2001). 사할린귀환동포의 생활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현욱(2005). 집단미술치료가 사할린 귀환 동포의 자아 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llewijn, M. (2008). O. DRAAISMA (2008). De heimweefabriek. Geheugen tijd en ouderdom. *MAANDBLAD GEESTELIJKE VOLKSGEZONDHEID*, 63(6), 562.
- Anderson, B. R. G., & 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Ang, I. (1996). *Living room wars: Rethinking media audiences for a postmodern world*. Psychology Press.
- Barth, F. (1998).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Waveland Press.
- Bruner, J. (1987). Life as narrative. *Social Research*, 54(1), 11-32.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1). Personal knowledge.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curriculum*. Oxford: Pergamon, 128-13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9), *Narrative inquiry: Storied experience in forms of curriculum inquiry* by Short, E. C. 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Huber, J., Huber, M., Murphy, M. S., Murray-Orr, A., Pearce, M., & Steeves, P. (2006). *Composing diverse identities: Narrative inquiries into the interwoven lives of children and teachers*. New York: Routledge.
- Clandinin, D. J. (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Clifford, J. (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302-338.
- Cohen, R. (2008).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Routledge.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07).
- Denzin, N. K. (1989). Interpretive biograph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ries 17. *California and London: Sage*, 23.
- Draaisma, D., & Allewijn, M. (2008). De heimwee fabriek. Geheugen, tijd en ouderdom. *MGV*, 63(6), 562.
- Eisner, E. W. (1991).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Prentice Hall.
- Ezz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Gribich, C. (2007),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 Halbwachs, M., & Coser, L. A.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ath, S. B., & McLaughlin, M. W. (1993). *Identity and inner-city youth: Beyond ethnicity and gender*.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234 Amsterdam Avenue, New York.
- Historische Uitgeverij.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 권세훈 역(2010).
- Jonson, M. (2000). How Ethnic Are U.S. Ethnic Media: The Case of Latina Magazine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3, 229-248.
- Jenkins, R. (2000). Categorization: Identity, social process and epistemology. *Current sociology*, 48(3), 7-25.
- Kluckhohn, C., & Gottschalk, L. R. (1945). *The personal document in anthropological science*.
- Kraidy, M. (2005). *Hybridity, or the cultural logic of globaliz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 Kumar, A. (2006). *Hybridity or the Cultural Logic of Globalization*, Marwan M. Kraidy,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30(2), 193-195.
- Kuzin Anatolii(2014). 사할린 한인사: 19세기 후반기에서 21세기 초까지. 문준일·강정하 옮김. 서울: HUEBOOK.
- Langness(1991), *Liv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Biography*.
- Norton, B. G., & Hannon, B. (1997). Environmental Values. *Environmental ethics*, 19(3), 227-245.
- Measor, L., & Sikes, P. (1992). Visiting lives: Ethics and methodology in life history. *Studying teachers' lives*, 209-233.
- Merrill, B., & West, L. (2009). *Using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 research Sage.
- Merrill,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erriam, S. B., & Tisdell, E. J. (2015).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John Wiley & Sons.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 Montserrat Guibernau(2013), *소속된다는 것*. 유강은 옮김(2015), 서울: 문예출판사.
- Motyl, A. J. (1992). The modernity of nationalism: nations, states and nation-states in the contemporary worl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307-323.
- Murray, "Catherine & Yu, Sherry & Ahadi, Daniel. (2007).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edia in BC. *Canadian Heritage Western Regional Office(no. 45193670)*.
- Park, B., & Choi, S. (2015). Understanding of Life through the Biographical Study on the Old Sakhalin Korean, Dong-Sik Shi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5, 387-390.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 SAGE Publications, inc.
- Polkinghorne, D. E., & 강현석, 이영효, 최인자, 김소희, 홍은숙, 강웅경, 공역.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서울: 학지사.(원저 1988 출판).
- Polina, Ostanova(2011).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고향의식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Vol. 67). London: Pion.
- Reyes, B. I. (1997). *Dynamics of immigration: Return migration to Western Mexico*. Public Policy Instit. of CA.

- Ryang, S. (2001).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55-86.
- Safran, W.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83-99.
- Said, E. W. (2001).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literary and cultural essays*. Granta Books.
- Spradley, J. P. (1980). 참여관찰법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Ten, Oxana(2011). 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 우즈베키스탄 교려 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yler, S. A. (1986). *Post-modern ethnography*. From document of the occult to occult document (pp. 122-1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uan, Yi-fu(1995).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 Uba, L. (2003).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Guilford Press.
- Valery Han(2001).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정체성 문제,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Van Gennep, A. (1986). 통과의례 (서영대 역). 인천. 인하대출판부.
- 金永洵, 孫德俊, 朴奉秀, 楊彦鑫. (2015). 哈林韓國人的過去與未來. 赤子, 7, 49-49.
- Дин Ю.И. ,2015,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고향 검색. 2015.09.01.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동북아신문 <http://dbanews.com>
- 대한적십자 <http://www.redcros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http://www.koreis.com>
- 새고려신문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안산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http://icsakhalin.co.kr>
- 안산시청 <http://iansan.net>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http://www.icsakhalin.c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재외동포 신문 <http://dongponews.net/>
-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 해외한민족연구소 <http://ioka.or.kr/>



ABSTRACT

Narrative Inquiry on Sakhalin Returnees' Rites of Passage

Bong Su Park

Ph.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Inha University

August, 2016

This study evaluated the rites of passage of Sakhalin Koreans before and after their permanent return to South Korea and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rites of passage through the memories of their diaspora life, as well as their experiences of deportation and systematic migration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is study also revealed how the rites of passage influenced their personal and daily lives, and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ir values and identity. Furthermore, it allows people to explore small worlds such as an individual, a town, or a region, which is hidden in the big frame called an international situation. It makes it possible to restore vivid lives of individuals in a structure. To achieve this, this study explored and reclassified the narratives, of family members of Sakhalin permanent returnees, regarding the rites of passage.

“Home” for Sakhalin Koreans, is an important symbol and metaphor representing their ethnic identity. They had lived as marginal men and foreigners after losing their hometowns. In order to settle down, they made villages similar to their hometowns, and found their emotional hometowns through conduction of rites of passage. They called the land of their ancestors their ‘home’ and endowed a value to the land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identity.

In particular, the symbolic meaning of “ho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iting the Korean diaspora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The culture of the

Sakhalin Korean community is an autonomous culture made upon mutual needs. The home, the historical basis, and the identity function form one group which provides the meaning of self-existence. The meaning of home is not only a personal home, but it symbolically expanded to a home of each person in the village including families, and a home of an ethnic community. Consequently, home is a space of interaction which provides a shelter and a supportive space.

The word “home” evokes nostalgic feeling and plays a role of bringing together the people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The rite of passage is originated from the home but it is simply a way to explain the home and an action to remember it. A narrative of rites of passage operates to make-present the nostalgia and memories of home, and is a basic principle of allowing its internal composition by projecting it to the “home”. The home brings the past memories to the present and plays the role of a moral pillar on the extension of the present.

Although the narratives of research participants have similar generation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their stories regarding rites of passage are different. Rites of passage clearly showed the unique lifestyle and attitude of diaspora,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ethnic groups, and their understandings and philosophy on the surroundings. It brought them to the chapters of life. Rites of passage include values, ethical beliefs, a view of nature, and worldview formed during life in a specific place. The “rite of passage” symbolizing the Korean race, strengthens the local patriotism and the sense of home.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as driving force in familiarizing with the ethnic identity. Consequently, the rite of passage is used as a mechanism to fortify the ethnic identity and flocculate a group. It is a mediator securing the ethnic identity.

The symbolism of having the “rite of passage” is an important resource in acquiring the ethnic identity to permanent Sakhalin returnee Koreans. To obtain the ethnic identity, the rite of passage was continuously reproduced for it not to lose the vitality. The acts of the rite of passage provide mental and psychological comfort to the members, who have lived in a traditional belief, and home becomes their psychological pillar. The work of recalling the tradition and ceremonies of the home is a wish to confirm and refresh the ethnical ident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under the threats of colonial existence. The rites of passage start from the “personal” ceremony and connect to the ethnic identity upon the interactions with the neighborhood. The exhaustion from the

loss of home is sublimated to a festival through the rite of passage and the past of poverty and oppression becomes the nostalgia. The rite of passage overcomes the spatial (i.e., Sakhalin) and temporal obstacles of the past linking them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timately.

The permanent Sakhalin returnee Koreans are a part of the living modern Korean history. They lived dynamic lives in the turmoil of history. Therefore, their lives should be evaluated at various aspects. However, studies only focus on revealing the historical truth or understanding their adaptation. These studies still have a limitation of considering them as targets of social welfare. It provides a rationale to study them at various aspects instead of considering them as a trace of history.

The permanent Sakhalin returnee Koreans made an international migration over the borderlines of countries and they expanded their social network. They also formed a transnational social space connecting South Korea and Russia to increase the diversity. However, it separated them from other families. Therefore, the permanently returned Sakhalin Koreans should be integrated to the South Korean society healthily. Various and systematic approaches are needed to help them establish the pride of contributing to the nation, have the feeling of solidarity and community spirit, contribute to founding a social identity, and overcome the monotone and loneliness of life by giving them mental stability. They should be newly illuminated as a mechanism to compose a system of meaning for their own lives and confirm their existence.

There were many stories of the permanently returned Sakhalin Koreans, who lived as marginal men under Japanese colony and Soviet Union system. However, only a very little portion of them is left. These stories are oriented by important events. Consequently, they were excluded from official historic records and were far from our interest. Therefore, our task is to leave the stories of diaspora, who were abandoned on the frozen soil of Sakhalin when they were young. We have to draw social attention and deliver these stories to our descendants in order to echo their stories and not to lose their low voices.

Keywords: home metaphor, ethnic identity, diaspora, phototelling, storytelling